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54호 2011년 9월 21일 수요일 (음력 8월 24일 · 불기 2555년 · 주간)

어려운 일을 맡아도 모두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요.
그것이 인과법을 잘 푸는 묘법입니다.
-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말 뿐이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이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은 결국 경찰 진압이 투입됐고, 어청수 前 경찰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두 사안 모두 불교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안이라 실망감은 더욱 크다.

불교계는 두 사안 모두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변화를 강하게 촉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불교환경연대는 5대 종단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와 함께 제주도 해군기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7월 25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 사회현안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8월 3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제주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불교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부 스님들이 강정마을을 찾기도 했지만 종단이나 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현장 참여와 연대는 실종됐다.

성명서로 그만인 불교계
이웃종교와 확연히 비교돼
행동 없는 구호는 '그만'

반면 천주교 신부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적극 결합하면서 함께 투쟁했다. 경찰 진압에도 강정마을 현장에는 25명 가량의 천주교 신부들이 자리를 지키고 항의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강정마을 사태가 사회적 연대의 문제였다면 어청수 前 경찰청장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불교계로서는 보다 직접적인 현안이었다. 그는 경찰청장 재직 시절 종교편향 문제로 범불교도 대회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다.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8월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위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조정과 화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환경 · 산림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어 前 청장의 임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불교환경연대는 한발 더 나아가 어 前 청장의 임명을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성명서를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대응활동을 보여주지 못 했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이 도화선이 됐던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자성과 쇄신 결사' 때와는 대조적이다. 당시 불교계는 수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불교계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시작하니 구체적인 실천을 찾기 어렵다. 철학의 부재다. 그러니 불교가 사회를 이끌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도 불교의 문제라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국 前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도 "자성과 쇄신 결사에는 적극적이면서 진정으로 종교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약자의 문제에는 소홀했다. 현장을 찾아가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성명서만 내고 활동이 없으면 진정성만 의심받을 뿐이다"고 말했다.

반면 불교시민사회와 종단에서는 내부 역량과 현실적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 김두환 국장은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문제제기가 필요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모든 사안에 종단이 직접 대응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 팀장은 "사회적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별처럼 빛나는 후배사랑

동국대 연극학부 출신 동문들이 뜻을 모아 '후배사랑 멘토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9월 15일 동국대에서 연극학부 동문회(회장 이효정)와 멘토 장학금 약정식을 했다. 장학금 조성에는 이덕화 강석우 임예진 이경규 이효정 홍학표 이경실 김상중 김유석 최준용 최유라 남성진 홍진경 채정안 이정재 최정원 소유진 류시원 김수로 등 20여 동문이 동참했다. 이들 연예인(멘토)들은 직접 오디션을 통해 학생(멘티)과 1:1 결연을 맺은 후 한 학기당 250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멘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클린턴도 간화선을 환영했다

"남편이 꾸짖을 적에도 화두를 챙기고, 마누라가 시비를 걸 때는 처사가 화두를 들고, 이런 생활을 하면 좋은 가정이 되고 마침내 세계평화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뉴욕 시민들 앞에서 화두 참선을 통한 세계평화를 이루는 길에 대한 할을 쏟아냈다. 동화사와 해운정사가 주최하고 뉴욕불교사원연합회,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가 주관한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가 9월 15일(현지 시각)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렸다.

진제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한국와 미국에서 1500여 사부대중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가득 채웠다. 미국인들도 낯선 한국 스님의 법문에 온 신경을 집중해 경청했다. 1930년

진제 스님, 뉴욕 법회 성황
각계 인사들 평화 기원 축전

완공된 리버사이드 교회는 뉴욕의 주요 관광지이자 정치적 토론 장소로 유명하다. 마틴 루터킹 목사와 넬슨 만델라, 피델 카스트로 등 주요 정치인들이 이곳에서 연설한 바 있다.

진제 스님은 "세계 평화를 위해 동양의 정신문화를 소개해서 온 인류에게 공헌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종교는 인간 내면의 정화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선한 이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과 불자들이 9 · 11 추모공원을 돌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법문에 앞서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는 간화선에 대해 청중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간화선 수행자들은 고대 선사들의 수수께끼 같은 화두를 탐구한다.

이날 법회에는 또 빌 클린턴 前 미국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축전을 보내왔다. 빌 클린턴 前 대통령은 "뉴욕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교류하는 곳으로 사랑받아 왔다. 진제 스님의 방문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이클 불룸버그 뉴욕 시장은 "뉴욕은 다양성이 큰 자산이다. 종교와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해 화합하는 것이 뉴욕이다. 진제 스님의 역사적인 방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법회에는 올해 초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 진제 스님과 종교 평화에 대한 대화를 나눴던 폴 니터 유니온 신학대 교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진제 스님은 16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화선 특강과 실참을 지도했으며 폴니터 교수와 종교간 평화대화를 진행했다.

관련법문 16~17면, 차주상보

뉴욕=박기범 기자

854호 CONTENTS

선암사 문화재 7점 행방묘연 스님들 아이패드 쓰면 안되나 2
대장경 특별전 3
인터뷰 美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 5
특집 · 간화선 평화대법회 진제 스님 리버사이드 교회서 법문 16 · 17



알 림

새 가을, 감성을 일깨우는 새 연재

읽을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병원은 고통이 넘치는 곳입니다. 병고의 지옥고를 벗어나 새 삶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느다란 한 번의 호흡을 끝으로 이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법당에서 환우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약사여래행을 실천하는 지홍 스님이 가슴 뭉클한 감동의 사연을 전합니다.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인간의 사유하는 동물이다. 그러나 사유하기 때문에 걱정을 사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방하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조계종단과 동국대에서 다년간 강의와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펼쳐 온 정운 스님이 여러분을 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고영섭 교수의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

〈삼국유사〉를 야사(野史)로만 알고 계신다고요?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문화대백과사전입니다. 한민족의 정신사를 비롯해 한국문명사를 집대성한 우리 민족의 수트라입니다. 역사서로만 만났던 〈삼국유사〉를 동국대 고영섭 교수의 신심 가득한 시각과 감성 가득한 가슴으로 만나봅니다.



#이우상 교수의 숲에는 갈등이 없다

숲에는 수많은 초목이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하늘을 보며 살지만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숲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보세요.



#김경집 교수의 서울 불교문화를 찾아서

언제가 한번쯤은 지났을 법한 그 곳, 어쩌면 알듯 말듯한 그 곳, 그러나 누가 물으면 우물쭈물하게 되는 서울의 숨은 이야기들을 진각대 김경집 교수가 재미지게 풀어갑니다.



사라졌다… 선암사에 있던 문화재 7점

조계종·태고종, 재산인계인수 중간점검 결과 발표

문화재당국과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천년고찰 순천 선암사에서 다수의 문화재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회계 부실과 토지 망실 등 재산 망실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재산관리 하던 순천시 관리부실 여실히 드러나
회계 부실, 토지 망실 등 선암사 두고 의혹만 커져

조사결과 문화재 7점의 분실이 추정되는 등 순천시의 재산관리인 당시 문화재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가 작성한 유물카드에는 있지만, 실제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는 불화 1점(행로암 신중도), 편액 2점(강선루 편액), 서지 3점(대혜각보각서, 선암사 창건연대일람, 염송집), 경판 1매(침굉집 발문) 등 총 7점이다.

선암사 재산관리인이던 순천시의 유물카드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관리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시 유물카드에는 2413점으로 조사됐으나 전수조사 결과 3263점에 달해 850점이 차이가 났다. 또 2005년 이후 순천시 작성 유물카드는 한국의 사찰문화재, 선암사불화, 미술사학지, 전국사찰소장 목판집 등 각종 문헌자료 대비결과 600여 점의 차이가 발생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기본적인 인수인계목록의 정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성보문화재의 수장 위치파악이 곤란하고, 기 조사 유물목록의 누락에 따른 실제조사에서의 수량차이 파악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보관상태 엉망

보존환경과 관리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조장치가 가동되지 않을뿐더러 유물을 겹쳐 보관하는 등 개별 문화재 성질을 고려치 않는 수장 방식으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체계도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관계자는 "현재 순천시와 선암사가 각각 열쇠를 갖고 있어 화재 등 사태 발생 시 유물 훼손 가능성이 높다"며 "CCTV는 작동되지 않아 최근 다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문화재의 수장 위치도가 없어 문화재 위치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 할 정도였다며 비효율적인 관리행태를 꼬집었다.

토지망실 의혹 있어

이밖에 선암사 소유 토지와 회계관리, 소장 문화재에 대한 조사. 문화재 유지보수 관련 문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순천시 주암면에 소재한 4942평과 답 210평 등 5152평이 2007년과 2009년도에 L골프장에 매매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다.

선암사 측은 71건 3만424평에 대한 재산이 개인에게 매매되거나 소유권 이전, 사찰과 개인의 공유관계로 되거나, 근저당권 설정도 있다는 부실한 재산관리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골프장 토지는 체육시설로 지정돼 전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매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관련 조사는 순천시가 제공한 244필지 336만9318평의 부동산 내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하며 권리 및 현재의 소유권 관계, 근저당 등 권리관계여부, 등기부와 토지대장과의 일치여부, 미등기 여부, 원거리 토지의 실제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한 임차관계 등을 조사 검토했다.

조사관계자는 "일제시대 자료인 임야조사서와 토지조사서, 심지어는 사찰령까지 취합한 후 구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등본, 구대장, 카드식대장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과정을 추출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 태고종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이 부실공사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선암사 수장고 모습

공동인수위는 토지 망실과 관련 재조사 이후 환수 등 법적인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재산의 변동, 손익의 변화 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선암사 재산관리인인 순천시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만 보관하고, 매 사업연도의 수지(손익현황)와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 집계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국회서 사태 은폐 질타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9월 13일 "천년고찰인 선암사와 보물급 문화재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순천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 보고조차 없었던 것은 이런 사태를 은폐하기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42년간 선암사의 재산관리권을 행사해 온 순천시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실태와 재산관리 실태가 확인됐다"며 "문화재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문화재 보수 공사 부실여부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기관 차원의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선암사 승선교(보물 제400호), 대웅전(보물 제1311호), 일주문, 팔상전 등 문화재 보수공사에 10년간 100여 억원의 보수비용이 투입됐지만, 승선교는 부실 복원으로 돌 사이의 틈이 벌어졌고, 누수로 인해 대웅전 처마가 썩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선암사 성보박물관 전수조사 결과 분실 및 훼손문화재 진상조사 후에도 후속조치가 없었던 점 ▷부실 문화재 보수공사로 인해 선암사의 보물급 문화재와 사찰건물 훼손정도가 심각한 점 ▷선암사 입장료 수입 등 관련재산을 회계·결산 자료도 없이 지자체가 사용된 점 등을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실감사를 질타했다.

순천시 상대 소송 들어가

공동인수위는 최근 순천시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불법건축물을 축조한데 대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의 임야를 인도하라는 소장을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순천시가 운영 중인 차체험관으로 순천시가 재산관리인으로 있을 당시 선암사 경내 부도전 뒤 5000㎡의 부지에 연건평 803㎡의 규모로 총 8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지난 2007년 개관해 순천시 명의로 등기하고 지금껏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다. 공동인수위는 순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철거와 임야 인도를 요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나은 기자의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왜 스님들은 아이패드 쓰면 욕먹을까



9월 4일 경북 청도의 비구니 경학도량인 청암사승가대학은 최신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 개통식을 가졌다. 이곳 학인스님들은 태블릿PC인 '아이패드2'에 청암사가 제작한 앱(App)을 설치하고 수업을 진행했다.

이를 조선일보가 '비구니 승가대학 스님들이 태블릿PC 마주앉아 쭉 나란히…'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knocker8은 "속세 떠난 중들이 속세 익히는 모습이라…재물은 속세에 있나니…"라고 댓글을 달았고, sbo33bn은 "종교가 없어질 날이 올 것 같다"라고 글을 남겼다. shs0151은 "부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던가? 무엇 때문에 벽면기도를 하는가?"라고 남겼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청암사앱 제작에 참여했던 현공스님은 게시글을 통해 "무슨 일에든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속물처럼 보인다는 표현은 조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스님은 "청암사앱을 제작하는 동안 이것도 하나의 불사라 생각하며 하루를 빠듯하게 살았고 출시 후 더없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청암사 스마트 캠퍼스의 전자수업을 응원했다.

S씨는 "불교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화와 조직력이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지 못한 느림을 반성해야 한다"며 "오래전 스님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모습에 반대 많이 하더니 지금은 신발이 되어버린 것이 자가용 문화다. 이미지는 곧 익숙해진다"고 말했다.

일간지에 실리는 종교편향적인 댓글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다.

B씨는 "조선일보 애독자들이 시각에 따라 댓글을 달 때 종교편향적 표현도 하고 있으니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며 "그런데 스님들이 인터넷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공부에 방해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도 한다"고 말했다.

K씨는 "무의식중에 '스님들이 사회문제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시간낭비'로 바라보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박구원 만평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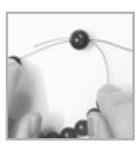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해인사 선방 1200년 만에 첫 개방

대장경 특별전, 아트프로젝트 등 초조대장경 기념 문화행사 한창

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것으로, 지혜의 그릇이라고도 불린다.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을 기념해 대장경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또, 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에서는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의 일환으로 현대미술과 만나는 행사가 시작된다.

대장경과 현대미술이 만났을 때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9월 23일~11월 6일 '통(通)'을 주제로 2011 해인아트프로젝트를 개최한다.

행사는 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하는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의 특별행사이다. 고려시대 1011년, 전쟁의 역경을 호국 신념으로 이겨내고자 시작했던 대장경 조성을 현대미술과 접목한 행사이다.

전시주제인 통(通)은 천년의 시간 동안 대장경판을 지켜준 가야산 바람의 '통'과 불변고정적 실체가 없다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모티브로 ▷공간 ▷만물 ▷사고로 나뉘어 기획됐다. 이를 위해 10여 개국 34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현대예술의 경계 넘기가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간 소통을 통해, 다른 문화간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려 나선다.

동·서양 미술사를 막론하고 전례 없는 형태와 스케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야외조각전과 성보박물관 국제전, 국제회화전 등이 펼쳐진다.

주 전시관인 성보박물관 국제전 '만물의 통'에서는 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빌 비올라(Bill Viola)의 비디오 작품과 장후안(Zhang Huan)의 20여 톤의 향의 재로 조성한 '재 붓다(Ash Buddha)', 중국 개념미술의 선구자 쉬 빙(Xu Bing, 베이징 예술대학 부총장)의 '천서(A book from the sky)' 등 해인사의 역사·문화·정신을 상징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를 계기로 해인사는 한국 불교박물관의 목적과 방향성을 재고하고, 불교문화의 현대 예술작품 소장을 통해 해인사 성보박물관이 독창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인사 경내의 가야산 탐방로를 따라서는 야외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을 만날 수 있다. 해인사의 역사성과 장소 특성성을 반영한 야외조각전 '공간의 통'이다. 일주문지나 해인사 중심 경내에서는 구광루 국제회화전 '사고의 통'이 펼쳐진다. 국제회화전에서는 전쟁 기아 환경 인종차별 국가 종교 등과 같은 세계 공통의 문제들을 세계 각국 출신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표현한다.

행사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열리는 국제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체, 언어 그리고 정신'을 주제로 서로 다른 문화와 전문분야들이 통하는 근원적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안성금 作, '부처의 소리'

개막일인 23일에는 개막식 설치작품으로 김아타의 '얼음불상'이 전시된다. 얼음 소재의 불상은 얼음이 녹는 2~3일간 관람이 가능하다.

24일은 해인사가 지정한 '해인아트데이'이다. 이날은 1200년 전 개산한 해인사가 처음으로 선원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날이다. 선방에서의 선체험은 물론, 전국 강원 법고 대회 등이 개최된다. 저녁에는 대적광전 앞 탑마당에서 복합·실험적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특히 여러 장르의 공연이 유기적으로 연기돼 하나의 곡인 '해인삼매'를 공연할 행사에서는 해인사 스님들의 동참이 눈에 띈다.

주지 선각 스님은 "행사는 대장경의 비폭력적이면서 독창적인 화합 정신을 이어받아 창의적 소통을 하고자 했다"며 "서로 다른 문화간의 창의적 소통을 통해 언어 사상 인종 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의 화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해인사는 해인아트프로젝트를 올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년 4~5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지속성 행사로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해인사를 예술작가들에게 제공하는 해인아트스테이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55)934-3173

천년의 지혜 담은 그릇 한눈에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은 9월 20일부터 '천년의 지혜 천년의 그릇'을 주제로 2011년 초조대장경 천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했다. 박물관이 고려대장경연구소, 동국대도서관과 공동주관해 개최한 행사는 11월 12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을 비롯한 국보·보물로 지정된 초조대장경 인출본 다수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해인사 장경판전에 소장된 재조대장경 목판인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목판, 〈대각국사문집〉 목판 등 국보 7점 보물 31점을 포함한 164점의 고려대장경 관련 유물들이 선보인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 스님은 "초조대장경 천년을 기념해 많은 사람들이 대장경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쉽게 소개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시 유물 가운데 〈내전수함음소〉는 난해한 한자의 자음과 자의 등에 주를 더한 것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에도 남아 있지 않은 귀중한 경판이다. 유물은 대장경 계보와 음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신찬일체경원품차록〉은 경전들을 소개한 일종의 목록집으로 30권으로 구성돼 초조대장경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재조대장경을 판각할 때 교정 작업의 책임자였던 수기 스님은 이 책이 대장경을 열람하는 사람에게 이익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해 30권의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으로 대체했다.

흥선 스님은 "두 유물은 완벽한 대장경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던 수기 스님의 교정 작업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시에서는 대장경에 대한 연구 주석서를 모으고 간행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활동과 교장(敎藏) 간행사업을 재조명했다. 의천 스님은 신라 고승의 저술 및 송, 요, 일본 등에서 경전 내용을 해석하고 연구한 장소(章疎)를 수집·간행했다.

흥선 스님은 "교장은 4000여 권의 방대한 양으로 간행됐다. 이는 경율론 삼장에 교장을 더한 것으로 6000여 권 규모로 조성된 초조대장경과 비교하더라도 대장경



못지않은 중요한 경전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는 대장경의 분류체계인 천(天)·지(地)·현(玄)·황(黃)·우(宇)를 따라 기획됐다.

'천-말씀을 담는 그릇, 대장경'에서는 대장경의 개요와 초조대장경 조성 이전까지를 정리해 소개한다. '지-고려에서 대장경을 처음 새기다, 초조대장경'에서는 전소돼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초조대장경이 일본 남선사 등에서 인출본이 발견돼 세상에 사실로 자리매김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준다. '현-대각국사 의천스님과 교장'에서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속장경(續藏經)이라 불리기도 했던 의천 스님의 교장을 소개한다. '황-우리 손으로 승화 재해석하다, 재조대장경'에서는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된 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재조대장경을 집중 조명했다. '우-고려대장경의 전승과 발전'에서는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속에서도 간경도감과 사찰에서 편찬돼 온 경전을 조명했다.

흥선 스님은 "친절한 전시가 되기 위해 영상물 등 시청각 자료를 늘렸고 IT기기 등을 이용한 검색 기능을 전시에 적용했다. 전시에는 대장경뿐만 아니라 경상 등 대장경 관련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말했다. (02)2011-1965

조동섭 기자

그림으로 그려진 사후세계


지옥을 다스리는 제1진광대왕(왼쪽), 제8평등대왕(오른쪽)

국박, '명부전의 불화' 전 개막

불교에서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지장보살과 시왕 등을 그린 작품 20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9월 6일 '명부전(冥府殿)의 불화'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했다. 명부전은 불교의 사후세계를 구현한 전각이다. 명부전의 주인공은 지옥에서의 구제를 담당하는 지장보살과 지옥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왕, 즉 시왕이다. 서화관 불교회화실의 유물을 전면 교체해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지장보살과 시왕을 그린 불화를 중심으로 불교의 사후세계를 보여주는 각종 불화들을 소개했다.

전시는 명부전의 최고 존격인 지장보살로 시작한다. '지장보살과 지옥의 왕들'은 화면 가운데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지옥을 다스리는 시왕이 양쪽에 시립한 구도로, 밝은 채색과 꽃문양 등이 조선 전기 불화의 여운을 보여준다.

'직부사자直符使者'와 '감재사자監齋使者'는 사람이 죽었을 때 지옥에서 파견되어 죽은 자를 감시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지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저승사자들을 그린 작품이다.

'지옥을 다스리는 현왕(現王)'은 본래 지옥의 왕들 중 5번째인 염라대왕이지만 지옥에서 보다 빨리 죽은 자를 구제하는 능력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신앙됐던 현왕의 모습을 보여 준다.

'지옥을 다스리는 시왕(十王)' 9점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로 전시실에서 가장 넓은 벽을 차지하며 일렬로 전시돼 있다. 강렬한 채색, 일관된 구성이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이 일련의 시왕 그림들은 북한산 태고사(太古寺)에 있었던 작품으로 전해진다. 처음에는 지옥을 다스리는 10명의 왕을 한 폭에 한 명씩 그려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제5 염라대왕 1폭이 소실돼 9폭으로 전한다.

시왕은 사람이 죽은 후 7일마다 한 차례씩 심판을 하여 49일까지 7명의 왕이 심판하고, 그 후 100일, 1년, 3년이 되는 날 제8·9·10왕이 심판한다. 이 심판일마다 재를 올리면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중요한 예배 대상이었다. 그림 하단에는 죄를 지은 자들이 지옥에서 갖가지 벌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종교화로서 교화적인 의미도 크다.

이 같은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불화 '칠여래도(七如來圖)'의 일부인 '광박신여래(廣博身如來)' '감로왕여래(甘露王如來)' 전시된 곳을 지나면, 극락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 '극락으로 가는 배'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극락으로 데려다주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을 그린 그림이다. 배에는 죽은 이들이 나란히 타고 있고, 사람마다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처사(處士)' '보사녀(補寺女)' 등이 기재돼 있다. 지옥에서 구제하는 지장보살과 극락을 주재하는 아미타불이 용선에 함께 타고 있어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극락에 갈 것임을 확신시켜 주려는 듯하다. 이어서 전시된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벽화'가 보여주듯, 반야용선을 타고 떠난 여정의 마지막은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의 세계이다. 이 아미타삼존벽화는 전남 강진에 있는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에 그려진 벽화로서 1938년 그려진 모사도이다. 실물은 국보 제313호로 지정돼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김영나 관장은 "이번 전시는 명부전에 봉안된 불화들을 통해 불교적인 사후세계관을 이해하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했던 옛 사람들의 소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般圓僧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 보급



般圓僧이 정성껏 사경한 반야심경사경 작품의
보시가는 불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般圓僧 010-3599-6653
금산선원 : 부산시 사상구 감전 1동 122-39

般圓僧은 정진기도를 하면서 반야심경 사경을 하였습니다. 통도사 문수원에 주석하시는 수안 큰스님 은사로 모시고 반야심경에 대한 지도 아래 하루도 빠짐없이 20여년을 반야심경사경 참선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사경기도는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이르시라고 자시부터 참선으로 사경을 하며 백중날 회향하고 또 불자님을 위하여 원상을 그리고 육바라밀을 마음에 담아 사경을 하여 인연 있는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행복하고 소원성취 하라고 20여년을 보시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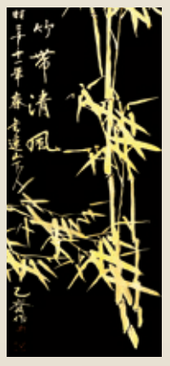
원상을 그리는 것은 하나요, 우주 전체입니다. 경을 육각으로 쓴 것은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모든 기운도 육각에서 생기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경입니다.

15년간 뇌종양 투병 생활 속에 고통을 참으며 반야심경참선 기도를 하였습니다. 2001년 9월 말일(부처님의 가피력으로 9년간 사경 참선 공덕으로)그날 밤에도 자시에 사경 후 머리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꽝 하기에 이제야 육신을 버리는구나 하고 저 무거운 육신을 더 짊어지고 다닐 필요 없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구름을 타고 저 세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 주신분이 나타나 할 일이 남아 있으니 갈 수 없다며 25년 생명 연장하라 하면서 죽비로 이마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마는 뻥 뚤려 버리고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은 간곳없고 맑은 정신으로 지금 般圓僧은 새 생명으로 반야심경 사경에 혼을 담아 수행정진 하고 있습니다. 般圓僧은 생을 다하는 날까지 사경 참선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기도 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을 소지하게 되시면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을 소장하고 보시하시는 분은 향후 불사를 할 경우 반드시 건립비에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般圓僧 합장


• 작품명 : 새우
• 사이즈 : 가로 30cm×세로 45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품가 : 70,000원


• 작품명 : 竹
• 사이즈 : 가로 22.5cm×세로 59cm
• 재 질 : 한지 금분
• 작품가 : 100,000원


• 작품명 : 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세로 45cm
• 재 질 : 한지 먹
• 작품가 : 50,000원


• 작품명 : 연꽃달마
• 사이즈 : 가로 30cm×세로 45cm
• 재 질 : 한지 먹
• 작품가 : 50,000원


• 작품명 : 십장생
• 사이즈 : 가로 30cm×세로 45cm
• 재 질 : 한지 석재 혼합
• 작품가 : 300,000원

위 작품은 불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을제 서영찬 선생님께서 기증하는 작품입니다.
아래 작품을 소장하시어도 불사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을제 선생님의 작품세계는 홈페이지 www.sycart.co.kr 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 주 문



건봉사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30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앞에서 건봉사 부처님 치아사리 친견법회 회향식을 개최한다. (053)982-0130



용인 반야선원, 나눔결사 실천
용인 반야선원 회주 자광 스님(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은 9월 16일 안성 연꽃마을을 찾아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법주사 미륵전 원불봉안 회향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0월 1일 미륵대불전 앞에서 미륵전 원불봉안 회향식을 개최한다. (043)543-3615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0월 14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금강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061)755-5306



선운사 제8회 꽃무릇 시화전
고창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9월 24~31일 선운사 만세루에서 제8회 선운사 꽃무릇 시화전을 개최한다. (063)561-0411



홍법사 개산 8주년 기념 콘테스트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9월 30일까지 개산 8주년 기념 디카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051)508-0345



증심사 명사초청법회
광주 증심사 주지 지장 스님은 10월 11일 조계종 승가고시위원 설우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한다. (062)226-0107



금강조계종 수륙재 봉행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총무원장 청화 스님은 9월 25일 포항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국운융창 발원 수륙재 및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051)638-4088



한국불교학회 추계 학술논문 공모
김용표 한국불교학회장은 9월 30일까지 한국불교학회 추계 학술논문을 공모한다. (02)2260-3835



불교여성개발원 가족법회 프로그램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10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종로 동일빌딩 6층에서 가족법회 좋은인연 만들기를 개최한다. (02)722-2101

한강시원제 복원 지역문화 인프라로

제8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여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2004년부터 개최된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이 10월 14~16일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일원에서 '생명·평화·명상 치유의 한마당'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과 함께 지역축제로 확대 개최된다.

불교문화축전을 준비하고 있는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오대산은 삼국유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등 당시 사람들의 이상향이었다. 그 모습을 천년이 흐른 지금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통해 다시 되돌려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동계올림픽을 기해 찾을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스님은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여유의 멋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월정사는 오대산 역사문화의 전통 계승을 하는 한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테마축제 형식으로 축전을 개최한다.

특히 한강의 시원지로서 위상을 복원하기 위한 '한강 시원제의'가 실시된다. 시원제의는 강원도와 경기지역을 잇는 지역문화 인프라로 월정사의 주관하에 평창군과 강원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스님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문화 올림픽으로 발전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지역문화의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오대산 우통수(于筒水)는 옛문헌에 의하면 한강의 근원이자 시원지(始原池)이지만 알려지지 않았다"며 "잊혀져 가고 있는 우통수의 인문지리적인 위상과 우리민족의 정신문화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축전 첫날인 14일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의식'을 시작으로 2018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탑돌이와 생명살림 방생 대법회, 수륙대재를 봉행되며 오대산 시음송회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오대산 옛길 걷기,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 생명과 명상·치유 산사음악회도 개최된다.

마지막 날에는 제4회 대한민국 불교 차인(茶人) 대회와 신라시대 보천과 효명태자가 문수보살에게 우통수 물로 차 공양을 올렸던 헌다례 의식을 재현돼 대미를 장식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명상과 미술·음악 등의 치유 프로그램, 선재스님의 선식 치유와 사찰 음식전, 한국의 명장 다완 기증전 등 다양한 불교문화 및 수행, 전통민속문화 체험 등도 개최된다.



정념 스님은 "마음의 안정과 함께 치유를 통해 생명사랑과 평화로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취업박람회 Good Job Festival 개최

동국대(총장 김희옥)은 9월 6~7일 '취업박람회 Good Job Festival'을 개최했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는 50여개 대기업 및 공기업 등이 참가해 기업채용관, 공기업채용관, 취업컨설팅&부대행사관, 취업전략세미나관, 학생경력개발원 홍보 및 모집관 등 다채로운 취업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1만 여 학생들이 구인구직등록, 채용정보 및 채용상담, 즉석면접, 입사지원서 클리닉, 지문인식적성검사 등 취업정보를 습득했다. (02)2260-3051 노덕현 기자



봉은선원 수련원장에 석장 스님

"전문 수행사찰로 운영"

봉은사의 봉은선원 신임 수련원장에 석장 스님이 임명됐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9월 1일 봉은선원 대중법회를 열고 선감 돈오스님 후임으로 수련원장 석장 스님을 임명했다.



신임 수련원장 석장 스님은 "수행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를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차분하고 여실하게 정진해서 눈 밝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오길 바란다"고 수행정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문화국장에 수진 스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국장에 수진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문화국장에 수진 스님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임명식에서 "종단 업무에 있어 문화부의 역할이 50%에 이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부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올해 종단의 민족문화 보전에 대한 노력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진 스님은 상덕 스님을 은사로 1989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3년 범어사에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2005년 미국 펜실바니아 주 West Chester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사회복지활동에 매진해왔다.



노덕현 기자

"국민곁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재를"

김찬 신임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운영 기조 밝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김찬 문화재청장의 취임일성은 개인 신념의 공사 구분과 문화재 활용에 대한 것이었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9월 15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에 관계없이 문화재 보존, 관리 원칙에 따라 앞으로 문화재 정책을 펼치겠다. 문화재 보존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효과적인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문화재청 50주년을 기념한 계획도 공개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행정 50주년을 기념해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를 헤리티지 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6일~30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50주년 기념한 국제학술대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26일 문화재청 50주년 국제심포지움, 27일 개성 고려도성 국제학술심포지움, 28일 고도 육성 국제포럼, 29일 한국사교육과 문화유산, 30일 한국민속종합조사 40년의 성과와 과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또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 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를 주제로 50주년 특별전이 열리며 10월 2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전통복식을 재현한 '코리아 헤리티지 패션쇼'가 선보인다.

5일에는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 소주방권역의 원형 복원 기공식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정부대전청사,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덕수궁 일대에서는 '문화재 사랑 사진전'이 펼쳐진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국민들 곁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재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50주년을 맞이한 문화재청이 국민들에게 선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3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25일, 잠실보조경기장에서

국제포교사회(회장 배광식)는 9월 25일 잠실보조경기장에서 'Happy World Together'을 주제로 제3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등 8개 국가의 이주민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축구 배구 줄다리기 계주와 각국의 민속놀이, 전통음식 나누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된다.

국제포교사회 배광식 회장은 "이번 행사가 서울시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전년에 비해 행사의 규모도 커진 만큼, 앞으로 이 행사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대불총 유소년 풋살대회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스포츠를 통한 어린이 포교를 위해 유소년 풋살대회를 개최한다. 대불총은 10월 23일 대구공업대학 풋살경기장에서 '제1회 대구불교총연합회 회장배 선재동자 풋살대회'를 개최한다.

대불총은 이를 위해 10월 초까지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어린이로 구성된 32개팀 풋살팀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노덕현 기자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연수원(바라.작법무)
사)전통불교 조계종 부설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각 사찰행사전문)

본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3기 학인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특 강
• 이론 및 실기. 사물, 각종 사찰행사 실기	수		•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인간문화재 경호 큰스님 직강 •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이사장. 부산영산재작법무 조교 원산 스님 • 속성반 (010-2563-5550) 1. 바라, 작법무, 사물. 2.사주 명리(성명)학
• 전통소리(안정사) • 삼신이운 및 전통불교의식 • 무형문화재 제9호 오공양 작법소리 • 복청게(천수바라)	목	4~5시	
• 오공양 작법무 (운심작법, 다게작법, 삼귀의, 작법무) • 천수바라(무) (사다라니바라)	금	5~6시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 영산보존회의 바라. 작법무

1. 본교생(졸업)으로서 성적 우수한 자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보존회 "전수 장학생 추천"
2. 부산시 영산재 행사 출전 실무
3. 년 1회 정기행사 직접공연 (공연발표회, 영산대재, 산신대재, 수륙대재 등)

■ **입학서류 :** 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1장
■ **접 수 일 : 2011년 9월 5일 - 9월 30일** (수시)
■ **입 학 식 :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사)전통불교조계종 총 본 산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대학 **부 산 영 산 재 연 수 원 (바라. 작법무)**

부산시 범일동 1454-17 귀 영축사
총무원 : 010-2563-5550. 070-4128-8975. 팩스 051)635-8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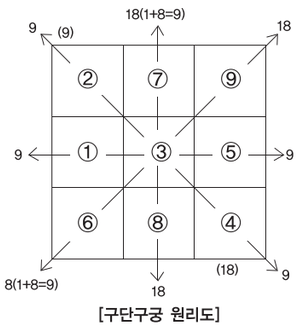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 찾으니 괴로운거죠

트위터 스타 혜민 스님의 안국선원 법회 '인기'
'질투' '콤플렉스' 등 재밌는 주제에 대중 열광

"키가 작아요" "학벌이 좋지 않아요" "날씬하지 않아요" "유머감각이 부족해요" "영어를 못해요" "패션감각이 부족해요"

늦여름의 주말 오후. 안국선원 법당에 120여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둥글게 앉아 팀을 이루어 '콤플렉스 게임'을 하고 있다. 각 팀별로 콤플렉스를 한 가지씩 이야기하다 겹치는 팀이 탈락하는 게임이다. 젊은이들은 게임에서 지지 않으려고 갖가지 콤플렉스들을 쏟아낸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콤플렉스를 나누면서 긴장을 푼 뒤 콤플렉스가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지도 법사 혜민 스님이 콤플렉스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나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친 모습을 보고 나를 찾으려고 하니 열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청년들은 혜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에 '빵' 터지기도 한다.

토요일마다 열리는 안국선원(원장 수불) 청년법회가 인기다. 3만 8000여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느린 트위터 스타 혜민 스님이 20~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오후 5시부터 '집착' '질투' '서운함' '마음과 명상' 등 듣기만 해도 솔깃해지는 흥미로운 주제들로 법문을 하기 때문이다.

혜민 스님은 지난 해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 스님으로 소개돼 국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영화감독을 꿈꾸던 스님은 미국으로 영화공부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UC버클리에서 만난 티베트 린포체 스님의 영향으로 종교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세계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 재학 시절, 갑자기 출가했다. "성공을 위해 경쟁만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얼마나 허탈할까"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중인 혜민 스님은 안식년을 맞아 국내에 머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에 리차드 기어가 한국을 찾았을 때는 통역을 도맡았으며 매주 안국선원에서는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법회, 한국어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으로 올해 말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 어떻게 법회를 준비하게 됐나

한국에는 20~30대 초반 불자들을 위한 법회가 많지 않다. 10년 전 미국에서 절을 열심히 다니던 친구를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불교학생회를 찾아 활동하려고 하다 마땅히 갈 데가 없어 포기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나에게는 굉장한 쇼크였다. 청년들끼리 향유할 수 있는 불교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다가 한국에 있을 동안이라도 청년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법회를 준비했다.

– 안국선원에서 진행하는 청년법회에 대해 들려 달라

처음에는 안국선원 청년법우들을 위주로 법회를 시작했다. 그러다 내 트위터에 법회를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처음에는 40여 명이었던 참석자들이 지금은 120여 명이 넘었다. 안국선원에서는 '불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로 불교를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불교를 근엄하고 어렵고 고리타분하고 어머니, 할머니들만 다니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접근해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미국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불교 심리학을 주제로 안국선원에 적용해봤다.

– 트위터 팔로워만 3만 8000여 명이다. 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온다.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시다. 기도해달라' '아이가 유산됐다. 어떡하냐' 등 실질적인 고민을 물어오면 답할 수 있는 한 답변들을 해준다.

트위터를 통해 루시드폴의 조윤석씨랑 같이 차를 마시기로 했다. 팔로워였던 조윤석씨가 "시간이 있으면 안국선원에 나와 청년프로그램에 참석했을텐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줬다. 또 연예인 홍석천 · 윤복희씨를 비롯해 신경숙 작가, 홍정욱 국회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준다. 유명인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다.

(혜민 스님의 트위터 주소는 twitter.com/haeminsunim 이다.)

–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미국서 3년간 수업하고 안식년을 맞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에서 '한국 현대 간화선'을 공부하고 있다. 최근 동국대에서 진행한 국제간화선 세미나에서 통역을 맡았다. 2010년 처음 열린 국제 간화선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행사 일정을 챙기는 역할을 했다. 2회 연속 세미나에 참여해보니 차이가 느껴지더라. 올해 간화선 세미나에서 외국학자들을 대상으로 백담사에서 간화선 체험을 하게 했더니 질문의 수준이 달랐다. 작년에는 이론적인 질문들만 했는데 올해는 '스스로 번뇌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등 실질적인 질문을 하더라. 수행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엄청나다는걸 느꼈다.



혜민 스님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종교학 석사를 수학하던 중 출가를 결심, 2000년 봄에 해인사에서 사미계를 받으면서 조계종 승려가 됐다. 그 후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박사 졸업 후 2007년부터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햄프셔 대학교에서 정식 교수로 발령 받아 교편을 잡고 있다.

–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게 됐는지

고등학생 때부터 삶의 궁극적 질문을 갖고 있었다. 지나가는 스님을 붙들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길에서 만난 몰몬교(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선교사에게 질문을 퍼붓기도 하고. 대학생 때는 요가 스승을 찾아 인도의 정신적 구루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달라이 라마도 친견했다. 그래도 풀리지 않던 차에 UC버클리 대학을 다니면서 3학년 때 종교학으로 전공을 정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나와서 한국 절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와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은사 스님인 휘광 스님(뉴욕 불광선원)을 만나 출가하게 됐다.



안국선원 주말 청년법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이 '콤플렉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한국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교의 매력을 알릴 수 있을까

불교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교다. 하지만 사람들이 현대적 언어로 불교를 풀어내지 못한다. 미국은 탈위계질서문화이다. 내가 스님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아픔, 괴로움을 스스럼없이 그들 앞에 내놓았을 때 상대편도 공감하고 법회에 온다. 또 한국의 주지 스님들이 젊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스님들이 젊은 불자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교회를 가보면 청년들만의 놀이문화가 발달돼 있다. 그들은 일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재밌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편하게 자기네들끼리 불교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 미국에서는 어떤 강의를 했나

〈선불교 개론〉〈불교심리학〉 등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 미국에서는 불교 과목이 한번쯤은 듣고 싶은 과목으로 인식된다. 서양에서는 불교가 과학적이고 체험적인 종교로 인식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들이 관심을 갖는 종교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 사상가였던 랄프 왈도 에머슨, 헨리 데이비드 소로 등 지적인 사람들을 통해 불교가 서구에 소개되다 보니 불교 관련 서적을 사보는 사람들도 지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 한때 영화인을 꿈꿨던 스님으로서 불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국내에서 10월에 개봉하는 테렌스 맬릭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트리오브라이프'를 추천한다. 종교적인 메시지가 강하다. 이외에 종교학자로서 좋아하는 영화들은 많다. 브레이킹 더 웨이브(덴마크), 밀양(한국), 중앙역(브라질), 유산(덴마크),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일본) 등의 영화도 인상깊게 봤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좋아한다. 불교적 영화로는 축구를 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이야기인 '더 컵',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도 좋아한다.

– 영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간단한 팁이라도 소개해달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경복궁에서 대화를 나눈 계기가 영어실력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20대 미국인 관광객 케빈과 대화를 나눈 뒤 나는 종종 주말이 되면 경복궁, 인사동 등을 찾는 버릇이 생겼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마디라도 영어로 말을 걸어보고 싶어서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쑥스럽겠지만 그 쑥스러움은 5분 정도 지나면 잊혀진다. 외국인들과 심도 있는 교류를 나누려면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지리, 시사적 이슈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쌓여야지 단어를 달달 외운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요즘 한국의 20 · 30대들 사이에서는 치열해진 생존 경쟁을 빗대어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연애와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한 젊은 층을 뜻하는 말이다. 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남들과 똑같은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본인의 삶을 설계하지 말라. 나만의 빛깔과 열정을 내안에서 찾도록 노력하자. 남을 따라가면서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니까 뒤쳐진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나만의 의미있는 삶을 계획해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는 내가 아닌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하라.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종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 010-3565-2462, 070-4187-4747
☎ 055)364-4747 / FAX : 055)364-4849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범음범패 교육대학 9기생 모집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명예종정 명진 석법운

(종정실 사서실장 : 박선혜화) (종정실 경호실장 : 석법진)

원로회회장 석홍섭
원로부회장 석무공
원로부회장 석만월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법일
기획원장 석법상
호계원장 석월오
감사원장 석동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능현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도현
행사부장 석명오
의전부장 석근홍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호법부장 석대연

감찰원
감찰원장 석다우
감찰부장 석윤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지명
문화부장 석혜주

사정원
사정원장 석현종
사정부장 석지혜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운
포교부장 석혜통

교육원
교육원장 석무겸
부 원 장 석운오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법오
1 국 장 석대덕
2 국 장 석해인

교구종무원
울산종무원장 석현종
김해종무원장 석청해
거제종무원장 석덕운
대구종무원장 석청명
창원종무원장 석범일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비구니원
원로회장 석효각
원 장 석청명
부 원 장 석광명
석정은 석능현 석도현
석혜안 석혜문 석수진
석수해 석해인 석지현
석효선 석해연

중앙위원회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대심행)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문화위원장 박무근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유사 대원불교조계종이 "진주"에 있사오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중·일 불교학자 하나로 모은 비결은?

불교학의 새로운 명문 요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센터



9월 8일 일본 류코쿠 대학에서 열린 인도학불교학회 행사장 모습.

신생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수주 5년만에 한중일 연구자 하나로 결집한 국제네트워킹 프로젝트 진행 중


금강대 김천학 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일본학자들과 담소하는 모습.

21세기의 첫 번째 10년을 넘어서서 두 번째 10년으로 들어선 지금, 전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첨단정보기기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늠하는 첫 번째 요소는 '철학'이다. 철학이 산업 각 분야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단적인 사례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대변되는 애플의 경우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사회의 전반을 견인하고 있는 애플의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스티븐 잡스로 대변되는 '철학'이다. 스티븐 잡스의 철학이 발명해낸 혹은 그의 철학이 종합해낸 아이콘 상품이 다름 아닌 아이폰과 아이패드이다.

2006년 한국연구재단(舊 학술진흥재단)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라는 고민과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인문학적 정신의 좌초'라는 위기의 국면을 동시에 직면해야 했다. 위기는 고민을 초래했고, 고민은 새로운 기회를 낳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 고민은 당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 분야 사업을 진두지휘 하던 걸출한 프로그래머 조성택 교수(고려대 철학과)를 만나면서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이른바 '인문한국(HK) 프로젝트'를 출범시킨다. 21세기 들어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강타했던 '한류'와 같은 주도적인 에너지를, 오히려 위기에 좌초되기 직전이었던 한국의 인문학 분야에서 찾아냄으로써, 한국사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도약의 원천으로서 '인문학'을 주목한 결과였을 이 프로젝트는 벌써 5년차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인문한국(HK) 프로젝트가 처음 출범할 때, 국내 유수의 전통 명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선정됐던 불교학 분야의 연구센터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이다. 신생 대학으로서의 입지 때문에 우려의 평이 적지 않았던 연구 공동체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적어도 불교학의 특정 분야에서는 '국내'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 김천학 교수는 "국내외 여러 선생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이다"라며 공을 사양하지만, 그가 내놓는 연구소 현황과 역할에 대한 해외학자들의 평은 인문한국(HK) 프로젝트 진행 4년 만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이루어낸 성과들을 다시 돌아보게끔 할 정도로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취재의 계기가 된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제62회 대회 패널 발표는 그러한 분위기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계기였다. 일본인도학불교학회는 매 대회 때마다 일반 자유발표와는 별도로 세계불교학계의 흐름을 반영하는 패널발표를 별도로 구성하는데, 올해 류코쿠(龍谷) 대학에서 열린 제62회 발표회에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를 비롯해 일본 도요(東洋)대학 동양학 연구소, 중국 런민(人民)대학 '종교이론과 불교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불성사상의 동아시아적 전개"를 주제로 한 패널이 있었다.

이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인문한국(HK) 프로젝트의 핵심주제인 '불교사상과 문화의 동아시아적 변용'이라는 주제에 기반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3개 대학 연구소의 공동패널 구성에 금강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개 대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패널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일본학계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학회 마지막 날 오후에 진행된 5개의 패널 중에서, 금강대를 중심으로 한 공동 패널이 참가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9월 8일 진행된 이날 패널 발표에서는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 도요(東洋)대학 총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일본 도요대학에서 이부키 아츠시(伊吹 敦) 교수가 '선종의 성립과 불성관의 변용', 키츠카와 도모아키(橘川智昭) 교수가 '유식종의 이행(理行)', 중국 런민대학 짱원리앙(張文良) 교수가 '화엄과 천태의 불성관' 금강대 김천학(金天鶴) 교수가 '불성사상으로부터 본 한국불교와 일본불교'를 주제 발표 했다.

이날 패널 발표의 좌장을 맡은 다케무라 마키오(竹村牧男) 도요(東洋)대학 총장은 "본 패널은 금강대, 도요대학, 인민대학의 세 나라 세 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오늘 논의되는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불성론'은 금강대에서 2012년 6월 22~23일 열릴 국제학술대회에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석길암 HK교수에 따르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사업센터는 연구역량의 국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석 교수는 "이번 한중일 삼국의 공동발표와 연구 진행은 2년 여에 걸친 국제네트워킹 작업의 첫 번째 결실"이라며 "한중일 3개 대학의 연구소간 연구협정이 맺어져 있다. 향후 국제화엄학대회의 공동 개최 및 성과물의 한중일 동시 간행도 예정됐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가 성사된 데에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가 HK사업 수주 이후 간행한 〈대승사론현의기〉 교주본과 〈지론사상의 형성과 변용〉(일본어판 및 한국어판 동시 간행), 근간 예정인 〈장외지론종문헌집성〉 Ⅰ·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인문한국(HK) 사업 수주 이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해가고 있다. (자료제공=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조동섭 기자

초목성불론, 일본서 구체화됐다

김천학 소장, '불성사상으로부터 본 한국불교와 일본불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김천학 소장

'일체중생 실유불성'이 화엄 성불론 신라 견등은 화엄서 일본에서 저술 의상학파의 전통설 인용한 사상… 교화 당위성은 '중생=부처'에 있어

화엄학에서 '성불'은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화엄학은 '불성'에 천착하기 보다는 불성을 전제로 하여 성불의 길을 모색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화엄의 성불론을 구체적으로 논한 것이 신라 견등의 〈화엄일승성불묘의〉이다. 견등의 본 저술은 일본에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견등은 일천제에 청정한 본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견등에게 일천제는 전혀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감임기(堪任位)에 도달할 수 없는 유정을 일컫는 말일뿐이다. 또한 의보와 정보 및 삼세간이 공통적으로 종성을 갖추고 있기에 심오하기에 비정이 성불할 수 있다고 본다.

성불론을 종성의를 통해 이해하는 예는 일본 화엄종 가운데 1019년에 저술된 신엔(親願)의 〈종성의초〉에서 확인된다. 〈종성의초〉에서는 종성론의 의의가 명확히 성불 (成佛) 혹은 불성불(不成佛)을 논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무성(無性)을 주장하는 것은 외도라고까지 비판한다.

한편, 견등은 신라 의상학파의 전통설에 해당하는 구래성불을 원교의 성불론으로써 주장한다. 견등에게 '불성'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해 '이미 성불해 있다(已成佛)'는 사실은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매 순간 순간 마다 경험되는 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래성불의 이명이 염염성불이다. 매 순간마다 성불을 실현하는 구래성불론은 성불의 가능성(佛性)과 가능성의 실현(成佛)을 실천 체험에 근본을 둔 자체불(自體佛)로 일원화시키는 개념이다.

중생이 이미 부처가 아니라면 종일토록 교화해도 성불할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교화이다. 따라서 교화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신(부처)이 자신(부처)을 교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상학파 화엄전통을 계승한 견등의 입장이다. 의상학파에서 주장하는 '배자체불(拜自體佛)'의 사상 역시 견등이 계승한다. 성불은 오로지 자신에게 다급한 문제이고, 자신에 의한 성취 방법과, 자신을 위한 성취만이 그 의의에 있어 보편적이다. 전통적인 신라 화엄의 성불론이 실천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것을 계승하는 견등의 성불론 역시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촉구하는 성불론이 된다.

일본의 〈화엄십현의사기〉는 의상학파의 저술을 처음으로 인용하는 사기류에 속한다. 이 〈십현의사기〉에서는 의상이 사용하는 구래성불이란 용어를 도입하면서, 〈화엄경문답〉(법장저술로 인식)에서만 사용하는 '무아보심(無我報心)' 개념과 동일화한다. 특히, 〈십현의사기〉에서 〈화엄경문답〉을 인용하고, 이성불과 미래불의 관계를 문제 삼는데 이와같은 문제의식은 견등의 〈성불묘의〉와 가장 유사하다. 〈종성의초〉와 〈십현의사기〉에서 견등을 인용한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그 전개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신라 견등과의 관련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신라화엄은 일본불교 전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일본화엄은 중국 및 신라의 화엄학을 습득하면서 독자의 사유로 전개된다. 대표적인 것이 〈십현의사기〉와 〈종성의초〉에서 전개되는 초목성불론이다. 초기 중국이나 신라화엄에서 구체적으로 초목성불론을 전개하는 경우는 없다. 〈십현의사기〉에서는 산하대지가 다 실제 성불한다고 주장한다. 〈종성의초〉에서는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성불한 부처의 설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성불론은 일본화엄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의 8종 겸학의 풍토 하에서 법상종, 천태종, 진언종 등과 교류를 통하여 화엄종의 교리가 변용되면서 전개된 결과이다.

정리=조동섭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0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11년 10월 21일(금요일)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섣불리 사회참여 말고 수행이나 잘하자던 분


성철 스님

김성철 동국대 교수, 성철 스님의 대사회 인식 분석

1960년 대 팔공산 성전암에서 8년 장좌불와 할 때 사찰 주위에 철조망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은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이 5 · 16 뒤 특명을 받은 장교가 찾았아와 권총을 뽑아 공포탄을 쏘아도 꿈적치 않은 일화는 유명하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물결이 넘실댈 때에도 스님은 '가야산 호랑이'로 평생 수행에 전념했으며 친견을 하기 위해서는 3000배를 해야 한다는 관문을 만들고 대중과의 소통을 끊었다. 1993년 입적 후에는 다비식장에 모인 문상객이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해방 이후 우리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히고 있다.

스님이 시대의 희망으로 불교계를 넘어 일반인 모두에게 존경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계 내부의 자정과 쇄신, 사회역량 강화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철 스님의 대사회 인식을 조명해 그 방향을 찾고자 한 학술행사가 눈길을 끈다.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리는 성철스님문도회의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제3차 학술포럼'에서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현대 한국 사회와 퇴옹 성철의 위상과 역할' 기조발제를 통해 성철 스님의 사회적 인식을 분석한다.

"불교 본질 회복 통해 시대역량 강화"하고자 했다.

김 교수는 포럼에 앞서 발제문을 통해 "성철 스님의 활동기는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前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기와 겹치지만 대중법문은 물론 1981년 조계종 종정 취임 이후 그 어떤 법문에서도 정치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적시하며 "이로 인해 김수환 추기경이나 문익환 목 등 한국 사회 급변기, 사회에 적극 관여한 종교인들과 비교해 성철 스님의 행적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군사정권 현실외면 비판…
불교 회복은 수행 본분에
승가위상 회복을 최우선시
불교사회참여 정형은 없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성철 스님은 당시 한국의 출가자가 해야 할 일은 섣부른 사회 참여가 아니라 불교의 본질 회복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60년대 이후 큰스님들이 우리나라 산중의 사찰에 안 계셨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지금과 같이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 가운데 쇠락했던 불교를 일으키고 출가자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수행자의 본분을 오롯이 지킨 분이 바로 퇴옹 성철 스님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성철 교수는 "스님은 승가의 위상 회복이란 상부구조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변혁이란 하부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을 철저한 수행자로 정의하면서 불교적 사회 참여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불교적 사회 참여에는 어떤 정형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몸을 나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소 박사의 '현대 한국 사회에 투영된 퇴옹의 삶과 사상',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원의 '불교의 현대화에 담긴 퇴옹 성철의 의도'도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백제 왕흥사 기와 생산 유적 확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는 9월 9일 부여 왕흥사지에서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했다.

왕흥사는 사비백제(538~660년)의 대표적인 왕실사찰로 2007년 목탑지 조사에서 창건시기(A.D.577년, 위덕왕 24)를 밝혀주는 명문사리기를 비롯한 보물급 유물이 다량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사역 동편 150m 지점에 위치한 기와 가마터에 대한 추가 조사로, 2005~6년에 조사된 것을 포함해 모두 17기의 기와 가마가 약 500㎡의 좁은 면적 안에 서로 중첩된 채 발굴됐다.

기와 가마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됐는데, 출토된 기와는 선문양이 타날(打捺)된 것과 물 손질로 인해 문양이 지워져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격자문이 타날된 것도 일부 확인됐다.

또 일부 가마에서는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물레판과 유사한 형태의 와제품 등이 출토됐다.

왕흥사 기와 가마는 왕흥사가 창건되는 577년경부터 조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기와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의 생산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립부여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가마의 구조적인 변화양상과 출토유물을 분석해 왕흥사를 비롯한 사비도성 내 기와의 생산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사찰의 기와 생산은 사찰 경제 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 자료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출토 기와의 모습.

생명의 가치를 불교로 돌아본다

세계불교문화대제전 대미
생명과 종교문화 접점 모색
동물권 · 자살문제 등 검토

2011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참가한 전세계인들에게 불교의 생명윤리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세계불교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세계불교문화포럼은 9월 21일 4박 5일간 경주엑스포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세계불교문화대제전 중 마지막 행사로 제전의 대미를 장식한다. 세계불교문화대제전은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불국사 명상음악 페스티벌, 3개국 불교무술공연, 승시, 연등재, 영산재, 불교연합합창단 공연 등이 펼쳐진다.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불교문화포럼에는 1부에서 제랄드 몬테규 독일 콘스탄츠 대 교수가 기조강연한다.

2부에서는 종교문화와 생명윤리 세션에서는 진월 스님(동국대 교수)이 '선(禪)의 관점에서 본 불교의 생명 윤리'를, 후지나가 신 일본 미야코노조대 교수가 '생명이란 무엇이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를, 베르나르 세네칼 서강대 교수가 '종교문화와 생명윤리 : 불교와 가톨릭의 접점'을 각각 발제한다.

이어 현대문명과 생명의가치 세션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인간 복제의 함의와 개체성'을, 허남결 동국대 교수가 '동물권의 부각과 그 수용 방식'을, 김웅진 협성대 교수가 '자살률의 증가 문제에 관하여'를 각각 발제한다.

한편, 불국사(주지 성타)는 9월 15일 '세계불교문화대제전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경주엑스포 조직위와 체결했다.

김관용 경주엑스포 조직위원장은 "찬란한 신라불교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문화 융합의 장을 만들고자 세계불교문화대제전을 기획했다. 불국사를 비롯해 전 세계 불교도들과 소통과 나눔을 통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불교중앙도서관 개관

중앙승가대(총장 태원)는 9월 6일 경기도 김포학사에서 불교중앙도서관을 개관했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강의동 오른편에 연면적 4000여㎡(약 14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 불교중앙도서관은 총 공사비 46억원이 투입돼 2010년 5월 신축에 착수했다.

불교중앙도서관은 8만 여 장서와 500종의 연속간행물, 252개의 열람좌석을 갖추고 있다.

특히 1층과 2층 대장경실에는 달라이라마가 기증한 티베트대장경을 비롯해 태국대장경, 미얀마대장경 등이 전시돼 있으며 갤러리와 다향실, 명상실 등을 갖춰 문화복합공간 역할도 담당한다.

개관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총동문회장 원정 스님을 비롯해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태원 스님은 "불교중앙도서관은 자연과 사람, 불교, 교육이 하나 되는 대학의 심장이 될 것"이라며 "미래의 선지식 양성이라는 중앙승가대 설립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24일, 한국불교문화학회 비래사 재조명 학술대회

한국불교문화학회(회장 김승호)는 9월 24일 오전 10시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강당에서 '대전 비래사 문물의 전통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불교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사재동 충남대 명예교수가 '비래사 문물의 불교문화학적 고찰', 한기범 한남대 교수가 '비래사의 창건과 전개', 이달훈 대전대 교수가 '비래사의 대지와 건축', 김창균 동국대 교수가 '비래사의 불상과 문화', 유기준 공주대 교수가 '계족산 비래사와 문화관광'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진영 충남대 교수의 사회하에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대승종
제4기 승려 기본교육

1988년에 창종하여 24년간 대승불교의 근본취지를 추구해 온 본 종단에서는
입종 예정자를 위한 기본 교육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초보자, 전종 및 입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기 간 : 2011년 9월 23일(금) ~ 2011년 10월 2일(일) (금,토,일 / 2주간)
과 목 : 예불, 불공, 법기실수, 초발심자경문, 사찰경영 外 기본교육
장 소 : 북한산 도봉사 도봉선원 (천년고찰)
접 수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952-1074 / 010-727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42-271-3754 / 011-9704-3247)
※ 대승종 카페참조 및 총무원
마 감 : 2011년 9월 21일까지 소인 유효

※ 출가를 원하시는 불자 및 초심자 기초과정은 의식교육 수료 후 종헌종법에 따른 특별승려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불기 2555(2011)년 9월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http://cafe.daum.net/daeseungjong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B상가 303호

200만 부산불자 한마음 • 하나로 !

봉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 기념 행

제3차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세미나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재조명」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 기념 및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기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문화를 제대로 지키고
보존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제3차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세미나를 9월 23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장 이윤희 합장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9월 23일(금) 음(8.26) 14:00~16:20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교육관(구, 안국불교대학) 2층 세미나실
◐ 기조강연 : 응현스님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학술원장 / 부산 성암사 주지)
왜 불교문화가 한국의 전통문화인가 ?
◐ 주제발표1 : 이희정(문화재청 부산부두 문화재감정위원)
한국 불교문화재의 현황과 가치
◐ 주제발표2 : 최은령(문화재청 김해공항 문화재감정위원)
한국의 불교전래와 불상의 조성
◐ 좌 장 : 하만경(부경대학교 명예교수 /전,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주 최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주 관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 502호) www.baob.kr
전화번호 051)861-8801 팩스 051)861-8802

보라, '부처님' '불교' 말 않고도 佛法 전하는 비법을

부산 제일 자비기도도량 진여원

조계종 진여원(원장 남순덕, 법명 보타월)은 추석을 이틀 앞둔 9월 9일 오후 4시 경내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내 홀로어르신 100세대에 쌀 340kg을 전달했다. 이어 10일과 15일에는 부산김해교도소 자매결연을 맺은 27명을 포함한 300여 재소자 및 육군 53사단 125연대 6대대 군장병에게 각각 명절음식과 함께 따뜻한 한가위의 정을 나눴다.

부산시 구포2동 구포대교 동단에 자리한 진여원은 수행정진과 자비행을 실천하는 자비기도도량이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등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170여 지역 홀로어르신에게 점심 공양을 무료로 대접하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어르신 15명에게는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한다. 그리고 매월 셋째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김해교도소에서 각각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또, 매년 6월 둘째주 금요일 '호국영령추모제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하며,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다. 이처럼 진여원의 모든 신행활동의 주제가 봉사가 된 데에는 남보타월 원장의 아버지의 유훈 영향이 컸다.

"어릴 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께서 매년 설과 추석에 동네의 거지들에게 명절음식과 용돈을 나눠 주셨어요. 훗날 가세가 기울어 제가 고향을 떠날 때까지도 아버지의 나눔은 이어졌지요. 당시 아버지께서는 '부처님 전에 내 이웃에 밥 굶고 사는 이가 없이 두루 잘살기를 기도하라' 고 가르쳐주셨고, 이는 제 평생의 서원이 됐습니다."

진여원 인근의 구포다리는 1932년 만들어진 아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부산과 경남을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세손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이다. 20여년 전 출퇴근길에 구포다리를 오가던 남 원장은 둑방의 오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발원을 세웠다.

"굳이 부처님법을 구하려 찾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배고픈 이는 공양을 하고, 휴식이 필요한 이는 마음을 쉬었다 가십시오. 배고픔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님도량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게 되니까요. 어려운 환경의 대중에게 행동으로 다가가서 닫힌 마음을 열고, 그 속에서 불성의 씨앗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1996년 2월 27일 진여원을 개원했다. 진여원의 포교 전략은 '윗층 기도정진, 아랫층 공양보시' 다. 4층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정진하고, 아래층 무료급식소에서는 대중공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층에 자리한 무료급식소에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염불소리는 이들의 발길을 4층 법당으로 이끈다. 식사를 대접하며 '부처님', '불교'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베푸는 따뜻한 점심 한그릇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남보타월 원장과 100여 명의 열정적인 포교는 부산 김해교도소의 무기수들까지도 감화시켰다. 현재 부산 김해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 김남식 씨도 남 원장과 진여봉사회를 통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 태어났다.

김 씨는 9일 오전 남보타월 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원장님은 감옥 안 우리에게는 주지스님이고 생활 속 부처님이나 다름없다"며 "하루 속히 진여원 도반들을 뵙고 싶지만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일도 인욕이라고 했으니, 다시 만날 때까지 이곳에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식 씨가 진여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 전. 남 원장이 부산김해교도소의 교정교화위원 자격으로 법회를 주관하면서 부터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을 못다 이룬 이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매일 〈관세음보살보문품〉 사경과 108참회기도를 시작했고, 매년 12통의 편지와 함께 사경을 해서 진여원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교도소 생활 중에도 부지런히 수행정진에 임한 덕분에 복역 중 전문대학 과정을 수료하고, 조계종포교사 자격증을 득하는 등 모범재소자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6년 전부터 '진여원 도량 건립불사 3000일 관음기도'에 동참해, 2014년 7월 회향에 맞춰 출소할 것을 발원하고 있다.

남 원장은 "사회와 단절된 이들의 마음의 벽을 뚫고 불성의 씨앗을 싹틔우기란 어려워, 처음에는 간식을 먹고 바람 쐬며 놀기 삼아 다녀가라고 법회로 이끈다"며 "고통받는 마음을 알아주며 이곳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길 권유하다보면 어느새 부처님 가르침에 젖어든다"고 말했다.

또, "출소 후에도 재범하려는 악의 종자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교소도 내 포교 뿐 아니라 직장과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불교의 사회복지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여원은 남보타월 원장이 주축이 되어 신도 전원이 봉사회에 소속돼 기도정진의 공덕을 자비나눔으로 사회에 환원하며, 구포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부처님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접한 구포시장 상인들도 매일 생물을 살생하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 법당에 들러 참배하고, 장사를 하는 중에도 관세음보살 정근을 놓지 않는다.


남순덕 원장이 군장병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며 따뜻한 한가위를 즐기는 모습.

매주 170여 어르신 무료 점심 공양
20년 전, 구포다리 둑방에서의 발원
진여원 개원으로 공양보시 하게 해

진여원 신도라면 누구나 진여봉사회에 가입돼 있다. 매일 오전 법당에서 사시예불 및 개인 기도를 마치고, 아래층 무료급식소로 내려와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체계적인 급식소의 운영을 위해 조를 정해 담당 조원이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 및 뒷정리까지 책임지고 있다. 십수년을 함께 밥을 짓고, 육신보시를 행해온 만큼 봉사회원 중 누구와 조를 이루든지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이옥심(50. 법명 연화심) 씨는 개원부터 지금까지 진여원을 지켜온 창립 멤버다. 그녀는 남보타월 원장님이 큰 솥을 절 마당 한가운데에 놓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시락국을 무차만발공양 올리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던 그 순간의 두근거림을 잊지 못한다.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법 공부하러 여기저기 다녀서 알음알이만 늘어날 뿐,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차에 진여원과 시절인연이 닿아 함께 기도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부족한 반찬에도 맛있게 잘 먹고 간다는 어르신들의 미소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그분들을 위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진여봉사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점순(49. 법명 연하안) 씨는 진여원에서 못다한 효도를 실천하고 있다. 홍 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 직장 생활에 쫓겨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있었다"며 "열심히 부처님법 공부하고 기도한 후 무료급식에 동참하는 동안 환희심은 2~3배로 늘어남을 느낀다"고 말했다.

13년간 이어온 진여봉사회의 활동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우바이로 구성된 봉사회에 거사림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남편과 자녀에게 법회에 참석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지만 함께 봉사하자고 하면 흔쾌히 동참하는 것이다. 무료급식소에서 우바새들의 역할은 배식과 설거지다. 특히, 매년 겨울 구포시장과 자갈치시장에서 동지팥죽 대중공양 때 이들의 힘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를 몰아 진여원과 남보타월 원장은 법무부장관상으로부터 '감사패', 대구교정창장의 '표창장', 부산시장상, 조계종포교원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못다한 효도 봉사로 회한 풀어
남편과 자녀들도 흔쾌히 동참
2014년, 불교회관 완공이 목표

남 원장은 "상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럼에도 그간 도반들의 노고가 인정받고, 격려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셨던 만큼 상을 받을 때마다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게 된다"고 말했다.

잇따른 수상경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년 전만해도 출가수행자가 아닌 재가자가 연 사찰은 상업적이라는 편견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간혹 사회복지단체로 오인해 봉사활동 후 인증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혹자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감투를 쓰고 정부 보조금을 얻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가장 섭섭했던 점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살림이 넉넉하고, 남은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진여원의 행보가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서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데요. 진여원의 불교회관 건립불사라는 큰 원을 세우고 나니 법인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정 역시 투명하게 대중에게 전달될 테니까요."

남보타월 원장은 개원 18주년을 맞는 2014년 3000일 기도 회향에 맞춰 진여원 불교회관 건립불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부산시 북구청과 협력해 200평 지상 4층 규모의 호국 진여원을 건립해 진여원에 모셔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235위의 위패를 봉안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 불교문화센터를 열어 불교교리강좌 및 다양한 신행활동 프로그램 신설, 지역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열어 신도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불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남원장은 "나는 심부름꾼이다. 베풀려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력이 닿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곳이 바로 진여원이다"고 말했다. (051) 338-1008

박지원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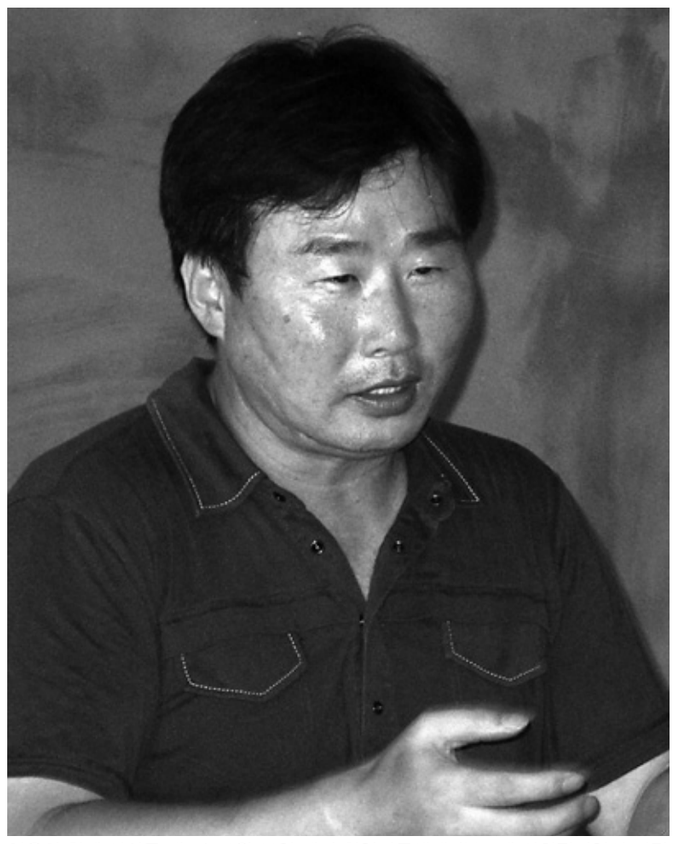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사회적기업 창업에 도전하세요, 지금이 적기!

연우와함께 이상근 대표이사

날마다 좋은날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은 8월 30일 안성 활인선원에서 제2차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 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안세회계법인 이사 김준영 회계사가 '비영리 회계법인의 세무 회계 방법'을, 사회적기업진흥원 윤종태 팀장이 '정부의 지원자금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아래는 불교계 대표 사회적 기업인 연우와함께 이상근 대표이사가 자신의 창업 경험담과 함께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한 내용이다. 정리=천진영 기자



연우와 함께 이상근 대표는 8월 30일 예비 창업자들에게 '불교계 사회적기업이 나갈 길'을 강연했다.

불교가 선두에 설수 있는 찬스

반갑다연우야 의료봉사단이 한번 봉사 활동을 나가면 약 500만원씩 사용됩니다. 사회적 기업 '연우와 함께'는 이 의료봉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87명이 1억5000만원을 모아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채까지 포함해서 10억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일정한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정화를 찾게 되면 '연우와함께' 같은 기업 20개를 더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변화에 앞에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아닌 '복지'가 이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발전 할 것입니다. 제 1영역은 정부, 2영역은 기업입니다. 제 3영역은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모니터하는 NGO이고 제 4영역이 바로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정부 주도하에 예산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절반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테니 지속적인 발전을 해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라' 하고 제시한 모델이 바로 사회적기업인 것입니다.

불교가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구축해야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구축한다면 불교계 인물이 지식경제부 장관도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미래 복지와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소 변경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명을 정비하자는 정책을 시행할 때 실무진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 중 불자가 한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불자였다면 우리의 고유 문화유산인 불교문화지명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정부 정책에 항상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외부인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한 산업 인력을 만드는데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온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5년 동안 직원 1명당 100만원 지원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간단히 말하면 '최대 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줄 테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명의 직원 당 약 100만원의 임금을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원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대학교 졸업 후 2년간 취직을 못한 사람, 가정주부로 5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 6개월 이상 실업자상태인 모든 연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계에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은 임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자연히 우리에게는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계가 사회적기업만 잘하면 선두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 심사를 1년에 3~4차례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시로 심사해서 필요조건만 충족하면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분이 계시다면 사회적기업을 적극 권합니다. 정부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은 생명체입니다. 성장 과정에 온갖 희로애락이 있고 고난과 역경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거의 실패담으로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하게 수익이 나는 괴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실패담만 들어도 1~2억은 아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 수출 경쟁력 높아

사회적기업은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 사회적기업은 특히 안전한 먹을거리에 강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재배되는 식품들을 확보가 쉽기 때문입니다. 식품 자체로도 수출 이 가능하고 가공해 사찰 음식으로도 수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우와 함께는 일본 먹을거리를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투브에 일본 관광객이 한국의 한 마트에서 카트3개를 동시에 끌고 다니면서 먹을거리를 '폭풍쇼핑'하는 장면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 이후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우야함께는 일본에 안전한 먹을거리 수출에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곧 일본 생협 바이어와 일본의 세븐일레븐 사장님이 방문하기로 약속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찰의 나물, 약초를 직접 판매 할 수 도 있고 조리해서 사찰음식으로 판매 할 수 도 있습니다. 무공해 · 천연 · 자연 식품들을 우리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 경쟁력입니다.

MRO로 연 8억 매출 도전

MRO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누구든지 필요한 복사용지, 볼펜, 둥굴레차 같은 소모성 제품들이 매달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각 총무과에서 알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해 이것을 외부 업체에서 하도록 한 것이 MRO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대 대기업은 자본을 출자해 직접 MRO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이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20% 구매하도록 법으로 지정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서울시의 MRO를 계약에 입찰신청하러 갑니다. 서울시만 해도 MRO에 해당하는 소모품에 연간 40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10월에서 공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연매출 200억 원이 되는 기업만 입찰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10억으로 낮추었습니다. 매출액 10억이 안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20%를 우선 적으로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20%면 8억입니다. 매출액 8억을 올리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많다, 팔 물건이 없다

우리는 아직 소비자가 사고 싶은 상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에는 지난해 14만 명, 올해 17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불교 제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 하면서 입었던 옷이나 발우를 그 자리에 바로바로 구매 가능하게 연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1만원씩만 소비해도 17억 원입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없다고 하지만 제 발로 찾아오는 소비자를 놓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불교플러스센터건립추진

내년에는 종 만드는 사람, 탑 만드는 사람 등 불교 관련 모든 사업을 한군데 다 모아 불교플러스센터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처럼 한데 모아서 소비자가 찾기 쉽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이 잘 성장 할 수 있는 터전이 돼 불교계가 지속가능한 복지의 선두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날마다 좋은날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단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목표: 사회 목적(공익) 추구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 수단: 영업활동 수행 — 수익 창출

날마다 좋은날 사회적기업 전문특화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은 불교계사회적 기업 1호인 '연우와함께'를 창업하고 육성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예비 창업자를 인큐베이팅하기 위해 조직됐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회적기업이 받을 수 있는 해택과 필요한 인증 절차를 안내 한다. (02)733-7277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7가지〉

1. 조직형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 인증불가: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출자 단체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1인이상의 유급 근로자
3. 사회목적 실현
   5가지 사회적 목적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 돼야함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언형, 혼합형, 기타형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의 중요 회의는 임원이나 잇 외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해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담당자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를 가져야 함.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하기전 6개월 동안의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되어야함. (보조금과 후원금은 총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6. 정관 · 규약
   목적, 사업내용등 10가지 법정 기재사항
7. 이윤의 사회목적 재투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함.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대한 지원제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재정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연간 300만원, 3년간 총 500만 원
   사회적기업: 연간 1~2억 원, 3년 간 총 2~3억 원
2. 공공기관 우선구매권고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20%이상 우선 구매해야한다.
3. 세제지원
   법인세 · 소득세 4년간 50% 감면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7만4000원)
4. 사업개발비지원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향상을 위한사업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최고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최고 7000만 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개 명 공 고

대한불교 표암 승가회

제방에서 구도와 보살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경주 이씨
종친 승가단의 명칭을 「**알평 승가회**」에서
「**표암 승가회**」로 개칭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그간 알평 승가회 사무총장 능인 명의의
모임 통보는 본 표암 승가회와 무관함을
공지 합니다.

불기 2555년 9월 16일

표암 승가회 회장 홍산 현불

보물이던 완주 화암사 극락전 국보 승격

국내 유일 목조 하앙 양식

국내 유일 하앙 양식의 목조 건축물인 완주 화암사 극락전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9월 8일 보물 663호인 화암사 극락전(1605년 중건)을 국보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예고했다.

화암사 극락전(오른쪽 아래 사진)은 화암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에 맞배지붕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하앙식(下昻式) 건축물로 그 가치가 높다.

하앙은 처마 무게를 받치는 부재를 바깥쪽에 하나 더 설치해 일반 건물보다 처마를 더 길게 내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포식(多包式) 건축 양식 중 도리 바로 밑에 있는 살미라는 건축 부재를 서까래와 같은 기울기 지렛대 형식으로 떠받치는 건축 양식으로 이 같은 하양을 사용한 건축물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흔히 사용됐으나 현재 우리나라에 남은 실물은 화암사 극락전이 유일하다. 화암사 극락전 전면의 하앙은 용머리 모양이 투각되어 있다.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백제시대 청동제 소탑 조각과 간송미술관 소장 금동불감에서 하앙 구조를 볼 수 있으며, 백제 장인들에 만들었다는 일본 호류지(法隆寺)의 금당과 5중탑(五重塔)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라보다는 백제에서 성행한 건축 양식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1981년 해체 수리 때 발견된 기록에 따르면 극락전은 정유재란 당시 피해를 당한 이후 1605년 중건됐다. 국보 지정은 한 달의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노덕현 기자



완주 화암사 극락전 닫집





극락전 전경(위), 극락전 배면 귀포(아래)

80년대 발행됐던 '무등' 지 합본호로 다시 출간

80년대 치열했던 광주의 모습을 담은 책자가 다시 선보인다. 광주의 80년대는 암울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올바른 불교적 지성과 사회적 저항을 하며, 한편의 글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광주지역의 유일한 불교사회지인 '무등'지가 합본호로 다시 만들어진다.

전두환 정권이 한창이던 80년대에 광주에서 당시 문빈정사 주지였던 지선 스님과 광주지역의 불교활동가에 의해 발행됐던 불교소식지인 '무등'지 33권을 합본호로 만들어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문빈정사에서 봉헌식을 갖는다.

행사는 1부 법요식과 당시 발행인이었던 지선 스님의 법문 2부에는 기념촬영 및 환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무등지 봉헌식은 그동안 잊혀졌던 80대의 아픔과 당시 치열했던 상황에서도 굳건히 광주의 아픔을 담아내고, 또한 부처님의 지혜로 바른 길을 열고자 했던 유일한 불교소식지였던 '무등'지의 의미를 오늘날에 되새겨 보고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도 무일학원 장학제도 대폭 확대

경북 청도 '참 좋은 이서 중 · 고등학교'가 2012년부터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등 파격적인 장학제도를 시행한다.

학교법인 무일학원 이사장 우학 스님(한국불교대학 회주)은 9월 8일 2012년부터 중학교 재학생 전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학 스님은 이서 중고교 재학생 74명에게 2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무일학원은 2012년 2월까지 기숙사를 신축해 고교생 전원과 원거리를 통학 중학생을 입소시킬 계획이다.

스님은 "고교 재학생에게는 매년 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며 "매년 11명의 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장학제도를 대폭 확대해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 선화여고, '동곡학원 장학금 수여식'

학교법인 동곡학원(이사장 돈관)은 9월 9일 경북 영천 선화여고(교장 이대웅) 대강당에서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곡학원은 재학생 200명에게 6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선화여고 출신 동국대 재학생 3명에게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돈관 스님은 "내년에도 전 · 후반기에 각각 6000만원 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급식시설 현대화와 학교 기숙사 신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나무숲, 1박 2일 문화체험행사 실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1박 2일간 전국의 명찰과 문화공간을 찾아 그 지역의 문화재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무등)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2일부터 1박 2일간 '제1회 자따마따' 행사를 실시한다.

자따마따란 자연따라 마음따라를 줄인말로 이번 제1회 자따마따에서는 부산 하연연꽃절, 쇠미산, 태종대, 광안리, 해운데, 부산아쿠아리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도교사와 자원활동가 8명이 동행을 하며, 과자나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대신해 과일과 고구마 등이 간식으로 제공된다. (062)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남은 한가위 나눔도 풍성

한가위를 맞아 전남지역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를 펼쳤다.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대표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가 운영하는 여수시노인복지관(관장 신미경)은 9월 16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2011 풍성한 추석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

여수지역 400여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양장열 남도정가진흥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 7명이 가야금 병창, 무용, 판소리 등 공연을 선보였고, 여천NCC 지원으로 효도급식과 송편빚기 프로그램, 명정선물 증정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 후 여수시노인복지관은 지역 독거어르신을 찾아 노인돌모미활동가 48명이 빚은 송편과 사랑의 김치를 전달하고 여수산업단지 한화물류팀, LG화학 PVC공장팀 등의 후원으로 조손가정에 목욕서비스와 제수음식을 전달했다.

추석을 맞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병석(78) 씨는 "집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외롭고 우울한 생각만 들었는데 합동차례를 지내고 멋진 공연을 보게돼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연꽃어린이집 차례지내기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차례상 예절을 배우고 있다.

신미경 관장은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지역내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수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장 진옥)도 한가위를 맞아 9월 7일 '우리의 행복도 한가위만 같아라'를 주제로 지역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국악과 민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겼다.

여수의 대표적인 불교어린이집인 연꽃어린이집(원장 이경임)도 차례지내기 수업을 통해 전통상 차리는 법과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수업에는 6세반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직접 올리고 전통 예법에 맞춰 차례를 올리며 전통문화를 익혔다.

여수 소나무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현공)도 9월 7~8일 '사랑하고 더 사랑하라'는 주제로 추석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7일 행사에서는 송편만들기 요리교실, 추석차례지내기, 추석음식 나눠 함께 즐기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8일에는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윷놀이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소년소녀 가장돕기 산사음악회

화순 도원사(주지 진철)은 사찰 개원 5주년을 기념하고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기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도원사 내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가수 김용님, 정현, 정주호, 진주아 씨를 비롯한 연애인들이 출연한다.

진철 스님은 "지역의 어린 학생들에게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며 "많은 이들이 이들에게 큰 힘을 주어 장차 이 나라의 큰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108 순례, 이주여성들과 인연맺기

서울 도선사 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 순례단' 1600여 명이 9월 15일 경북 영천 은해사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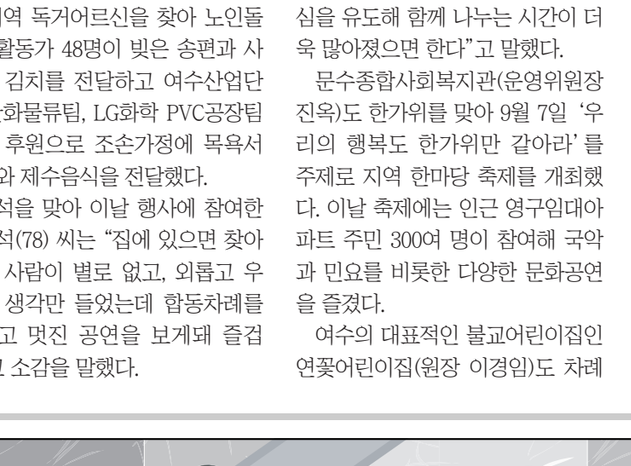
추석을 맞아 은해사를 찾은 108산사 순례단은 108기도법회와 함께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정 인연맺기, 장학금 전달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16, 17일에도 추가로 3200여 명이 은해사를 순례했다. 도선사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1996년 9월부터 매달 전국사찰을 돌며 농촌사랑운동을 벌이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108산사 순례단 참가자들이 이주여성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야식은 쓰레기 먹는 것 해 뜬 동안만 식사하세요

(사)지혜로운여성(원장 김애주)이 사찰음식에 담긴 생명존중과 불교사상을 확립하고자 젊은 세대를 위한 채식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에 선재 사찰음식 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은 9월 3~4일 목동 국제선센터, 9월 6일 마포 다보빌딩 등에서 '사찰음식문화에 나타난 생명존중사상'을 주제로 젊은이들의 올바른 채식문화 확산을 돕기 위한 강연을 했다. 선재 스님은 강연을 통해 이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며,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할지, 또한 앞으로 미래의 식문화가 어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선재 스님은 9월 3~4일 목동 국제 선센터에서 영 108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해 강연했다. (사진제공=영 108)

음식에는 우주의 생명 담겨

〈유마경〉에서는 "국토로부터 보시 받은 음식을 헛되이 먹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식재료를 제공해준 국토의 은혜에 보답하고 공양을 올린 시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보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춰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존중이란 매우 광의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의 존재를 유정과 무정으로 나눕니다. 유정은 사람, 동물, 어패류 같은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이고, 무정은 바람 공기 흙 물 식물 같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유정과 무정을 합한 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은 곧 자연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연과 중생을 하나로 봅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사람은 병이 듭니다. 오염된 땅에서 자란 식물은 그대로 오염이 되며, 이 식물을 먹은 인간 역시 병이 듭니다. 이처럼 유정중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정물을 포함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연기적으로 작용됩니다. 모든 자연계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유정과 무정의 모든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식재료를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현대인들로부터 사찰음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를 절 음식, 사찰음식, 선식 등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다 같은 음식은 아닙니다.

절에서 먹으면 절 음식이고, 사찰에서 먹으면 사찰 음식입니다. 하지만 선식은 다소 다릅니다. 선식은 스님들이 특별히 수행을 할 때 먹는 음식을 선식이라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아침에는 죽을 먹고, 낮에는 밥을 먹으며, 밥에는 과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부처님은 당시에 점심에 한 끼의 식사만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무문관에서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은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선방에서는 2끼를 드십니다. 먹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반인들은 3끼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에서는 오신채라고 해 파

중생은 자연, 음식은 우주
땅과 물이 아프면 나도 아파
기계로 풀 베면 독소 배출
이 독소가 사람에 피부병 유발

마늘 부추 달래 흥거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뜨거운 기운을 북돋아 주는 음식 재료이므로,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이라는 것을 단지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식에는 우주의 생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은 십재일을 지켜야

불교에서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때문에 최소의 절식과 육식을 금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패류와 식육을 금하고 있지만, 몸이 아프면 약으로써 이를 허용했습니다. 사실 '정육'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육은 '깨끗한 고기'라는 뜻입니다. 현대는 이런 깨끗한 정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나 돼지를 비대하게 살찌우기 위해 과도한 사료를 먹이고, 면역력이 떨어지자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이런 고기를 다시 사람들이 과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명절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 외에는 그다지 고기를 많이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대왕은 동물의 존엄성을 고려해 가능하면 식육 문화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 도살을 금하고 불을 때서 음식을 하는 것도 금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쇼카 대왕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채식을 권장했고 그러한 전통이 오늘날 사찰음식에 남아 있습니다.

불교에는 십재일이 있습니다. 십재일에는 짐승에게 자비를 베푸는 날로 살생을 금합니다. 태어나서 육식을 먹지 않으면 암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육류를 밥보다 많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육식을 할 때에는 육식보다 2~3배 많은 야채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십재일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이 '사찰 음식 문화에 나타난 생명존중사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식사량이 늘어나 예전보다 장수도 하고 체격도 커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너무 많이 먹게 돼 생긴 질병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먹어야 할 양은 일정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유기농 재료를 쓴다고는 하는데 첨가제 재료로 맛을 냅니다. 첨가제 재료를 쓰게 되면 음식안의 좋은 기운들이 다 죽게 됩니다. 생명의 기를 받아 성불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도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집과 학교마다 장독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나마 제대로 된 장이라도 먹으면 우리 몸의 독소들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이 암환자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우리가 다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음식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된 음식보다 안 좋은 음식이 많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오후 불식이라고 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 과다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사람은 해가 뜰 때 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쌓여 독소를 만들어 냅니다. 야식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침은 씹을 수 있는 것으로 맑은 것을 먹으며, 점심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든든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은 되도록 6시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

불가에서는 단순히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느끼는 동물을 섭취하지 말라고는 했으나, 식물도 감정은 있습니다. 식물이라고 해도 도에 넘치게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명을 가진 유정중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해줘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사찰음식을 조리하고 먹어야 합니다.

유마 거사는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연기법에 의해 너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과 물이 아프면 바로 내가 아프게 됩니다. 낫으로 잡초를 베면 잡초가 독소를 내뿜지 않지만, 기계로 잡초를 베면 식물이 기계 소리에 놀라 독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독소가 사람에게 뿜어져 피부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벌이 꽃에서 꿀을 따오듯, 자연계를 다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제철 아닌 음식들, 첨가제가 들어가 음식들, 농약과 비료를 잔뜩 넣어 기른 식물들, 풀을 먹지 않고 사료를 먹여 키운 동물들까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 합니다.

최근 많은 아동들이 조숙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나쁜 음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장호르몬을 과도하게 투여 받은 소가 생산한 우유를 어린이들이 먹으면 생각지 못했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오염물질이 식재료에 녹아 있으면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전통 사찰음식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찰음식은 청정한 식재료를 여법하게 조리해 지혜롭게 섭생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육식을 삼가고 식육을 할 경우에도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식탐을 배격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고 배려하며 모든 생명체가 공업중생이라는 사상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제공해 줍니다. 인간의 감정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호르몬도 결국은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등과 같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무기질은 음식에서만 있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음식은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으로 운영되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연기적 작용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몸과 마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혜롭게 청정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과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무지하게 먹고 마신다면 무지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모든 생명은 인드라망처럼 얽혀 있으며 연기적으로 작용합니다.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은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 몸처럼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마지막〉

“마음공부 배우니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

본지는 한마음과학원과 공동기획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마음공부’를 6주간 진행했다. 기획기사를 통해 본지는 한마음과학원에서 2005년부터 연구 · 개발해 오고 있는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 刊) 내용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이번 마지막 회에서는 교육현장과 불교계 어린이 · 학생회에서의 ‘마음공부’를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살펴봤다. 이나은 기자



간디학교 필리핀 캠프 인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간디학교 손형우 팀장(왼쪽)과 유미 교사

금산 간디학교 여름 필리핀 캠프 교육 후기

“공격적인 학생이 수용적인 태도로 바뀌었어요”

“지옥 같던 생각을 마음공부를 통해 긍정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공부를 했다. 정말 보람차고 나로선 훌륭한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돌보기 시간으로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 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금산 간디학교(교장 양희규)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인 숲속마을 작은학교가 개최한 ‘간디 여름 필리핀 캠프’를 다녀온 학생들의 후기이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사람들과 소통을 일절 하지 않던 학생이 친구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주의가 산만하던 어린이들이 수업에 집중 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숲속마을 작은학교는 7월 24일~8월 15일 3주간 필리핀 네그로스 주 발렌시아 소재 간디학교 국제캠퍼스에서 ‘2011 간디 여름 필리핀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는 초등부 12명, 중등부 15명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 ▷필리핀 감성교과 및 체험학습 ▷인성교육 등을 실시했다.

캠프를 진행한 손형우 해외캠프팀장과 유미 간디학교 생태교육 교사는 한마음과학원에서 개발한 청소년 인성개발 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를 참고자료로 매일 취침 전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은 용광로를 연상하는 트레이닝을 했다. 짜증 번뇌 욕망 두려움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내면의 용광로 속에 넣는 작업을 했다. 이후에는 본지에 소개된 ▷마음법칙을 찾아서 ▷내 마음 다스리기 등의 내용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했다.

손형우 팀장과 유미 교사는 한마음공생실천과정 17기 졸업생이다. 이들은 공생실천과정에서 배운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캠프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초등학교 6학년 중에 공격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싫어요! 아 왜요? 몰라요!’라며 반항만 하던 학생이었는데 수업태도가 바뀌었어요. 수용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더라구요.”

유미 교사는 “필리핀 캠프에서 밤 시간대에 진행할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유 시간을 줘도 되는데 요새 아이들의 특징은 게임기, 만화책 등 매체가 없으면 놀지 못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손형우 팀장은 “〈꽃을 피우는 나무〉 초 · 중등 콘텐츠를 모두 활용했다. 캠프 후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꼽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산만하고 공격적인 아이들이 단기간에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 간디학교는 대학교 강의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2학기 수업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수업을 시작했다. 금산 간디학교 (041)753-2586

본지 기획기사에 참여한 김민선 교사 후기

“학교가 수행의 현장이 됩니다”



본지 제848~853호에 연재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마음공부’ 기사는 한나무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 개발진으로 참여한 바 있는 김민선 교사(경남 밀양 초동초등학교)가 함께했다.

김민선 교사(사진)는 2010년 경남도교육청에서 시상하는 ‘경남 사도 실천상 수상’을 수상했다. 김 교사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학교에 초빙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습부진 학생을 담임해 인성교육을 통해 문제아를 지도했다.

김민선 교사는 특별보충과정 운영으로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모두를 구제했다. 김 교사가 이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덕분이다. 김민선 교사는 “마음공부를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로만 활용해 왔다. 하지만 한나무 인성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부터 학교가 수행의 장이 되기 시작했다”며 “그 덕분에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과 직장 상사와의 갈등조차 좋은 화두가 됐다”고 말했다.

김민선 교사는 학생 · 학교와 갈등을 빚는 교사들에게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했다.

그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내 자신이 교사로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때가 많다”며 “아이들 혹은 학교라는 상황과의 갖은 마찰로 교단을 떠나고 싶다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함께 맛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어린이수련회 사례

아이들이 마음의 힘을 이해해요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은 7월 16~17일 어린이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마음의 계발’이라는 주제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 6명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까지 학년별로 담임을 맡아 진행했다.

담임교사들은 한마음과학원 인성교육 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를 활용해 ▷내 마음의 이름 짓기 ▷내 마음의 용광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마음의 힘을 기르도록 지도했다.

지도 법사 혜눌 스님은 평소 어린이법회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다양한 놀이와 체험학습을 병행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가르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이번 수련회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교재를 활용해 법회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혜눌 스님은 “아이들에게 마음 속 용광로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며 “아이들이 마음의 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포항지원 여름수련회에 참가한 어린이들

또 혜눌 스님은 “평소 주인공에게 관(觀)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와 닿지 않아해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앞으로 〈꽃을 피우는 나무〉교재로 실질적인 마음공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극락세계는 참말로 있지예?”

매일 아침 병원 법당 문에 들어설 때마다 다시 한 번 되 뇌여 본다. 살아 숨쉬는 행복을 얼마만큼 온전히 느끼고 있는지.

며칠 전 한 병실을 방문했다.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아! 부처님! 저 환자에게 아픔의 고통을 가져가시며 편안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소서” 라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다.

환자는 몇 년 전 발병한 위암을 잘 이겨냈던 이였다. 그는 그동안 병원에서 같은 병명을 가진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통증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을 줘왔다. 발병 이후 4년이란 세월을 마치 40년이라 생각하고 아주 즐겁게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인물이다.

발병 5년째가 되던 해 위암은 결국 골수와 폐에 전이가 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폐에 물이 생겨 물을 제거하고 나면 또 차고 해서 이젠 산소호흡기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게 돼 버렸다. 주치의는 1주일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봐라! 많이 아프제.”

“예, 스님! 너무 아픕니더. 인자 가고 싶어예.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로예. 스님, 극락세계는 참말로 있지예?”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미타경〉에 보면 저 10만 억 국토를 지난 곳에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있다. 그건 새삼 와 묻노?”

“인자 그만 아프고 고마 갈랍니다. 시님!”

“왜 자꾸 갈라카노.”

“시님! 남들은 수술하고 1년 더 산다고 하던데 저는 4년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지예. 아들 의과대학 보내고 1년만 더 있으면 하얀 의사 가운 입는 것 볼 텐데 그때까지는 못 있겠습니더. 스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래. 보살님은 남들 40년 동안 좋은 일 할 것을 지난 4년 동안 다했다. 그 4년 세월을 40년 세월이라 생각하소. 부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왔다고 고맙다하실 것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른 환자들을 보살핀다고 얼마나 애썼노. 부디 다음 생에는 튼튼한 몸을 받아 이생에서 못다 한 일 다음 생에 다 하소. 다음 생에는 무엇하고 싶노.”

환자가 힘들게 대답한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안 태어날랍니더. 그냥 극락세계에 계속 있을랍니더.”

“그래.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소. 이생의 일이랑 다 잊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하소. 아미타부처님께서 그대를 연꽃봉우리에 태우고 저 극락으로 가실게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잔다 생각하소. 편안하다 생각하고, 그윽한 향내를 생각하고, 부처님세계를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

“예! 스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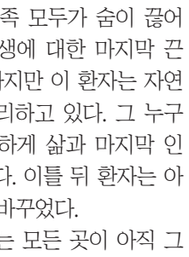
환자는 정말 이번 생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놓아버린 것 같았다. 가끔 임종환자들을 보면 이생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본인과 가족 모두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생에 대한 마지막 끈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이 환자는 자연스럽게 생애를 정리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아주 편안하게 삶과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이틀 뒤 환자는 아주 조용하게 몸을 바꾸었다.

‘그대가 움직이는 모든 곳이 아직 그대로인데 그대는 마치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듯 다른 세상에 있구려. 잘 가소. 그대가 점심시간마다 가끔 공양해주던 커피, “시님!”하며 부산사투리 그대로 나를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과 같은데. 나무아미타불.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아프지 마소.’

마지막으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했다. 인생은 참으로 길지가 않다. 나는 생각한다. 한평생 산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은 살아 숨 쉬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마주하고자 하는 삶, 나와 남이 행복하고 즐거우면서도 품위 있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인내심과 내가 만난 모든 인연의 소중함,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인생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 분주함이 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작은 병원 법당 안에서 비록 분주하지만 부처님 법 만난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많은 인연들을 자꾸 되돌아보게 된다.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칠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1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컵밀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New



디자인특허 출원번호 제 30-2011-0034559

• 원기둥초 (7.5Ø×29cm)

PC바람막이

용도 : 허공기도,
천신기도시 바람막이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新 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신제품 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구성되어 있어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신개념 제품입니다. 특히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 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인 특허 : 제 30-2011-0010353 / 제 30-2011-0010355

•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액
제조 삼환양초



• 도자기 인등
小 가로 13Cm 세로 17Cm
大 가로 15Cm 세로 19Cm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제품문의 :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는 까닭은?

해리포터 능가하는 인물이야기

1. 우리 민족의 수트라

〈삼국유사〉(1281)는 우리 민족의 '수트라' 이자 '바이블' 이다. 이 서책이 우리 민족의 수트라라면 종교성이 강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 '삼국유사 법회' 와 '삼국유사 미사' 및 '삼국유사 예배' 라도 열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사람들이 〈삼국유사〉를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널리 읽히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삼국유사〉를 각기 '불교문화사' (한국문학사) 혹은 '불교설화집' (한국불교사) 또는 '일반역사서' (한국일반사) 로만 분절해 알고 있다. 〈삼국유사〉는 이들 세 가지의 개별적 성격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견 혹은 경직된 정보망으로 인해 이 서지를 만날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

〈삼국유사〉는 한국고대의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다. 이것은 한국문명사를 집대성하고 있으며, 한국정신사를 거의 혼자 담당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에 한국 고문서 20여 만종을 모아 불태운 적이 있다. 때문에 고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료가 적은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 문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삼국유사〉 원문은 고사하고 번역본조차도 크게 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보와 인식틀 확립이라는 점에서 이 서지만큼 주요한 역사서도 없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자.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시원에 대한 것에서부터 각종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과학사의 날줄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학사, 사학사, 철학사, 종교사, 예술사의 씨줄적 측면과 함께 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인문학의 고전 중의 고전이다. 인간학이 인간의 본래성에 대한 연찬이라면, 고전학은 보편적 인간상에 대한 논구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은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거리의 최소화를 지향한다. 동시에 살아있는 것들의 생물학적 조건의 통일성을 탐구한다. 해서 인문학은 인간의 향기와 가치와 무늬가 스며있는 인간 본래의 바탕을 그려내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인간학과 고전학을 통섭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연찬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본디 '오래된 책' 인 고전(古典)은 무수한 시공 속에서 비판의 칼날을 견디고 살아남은 서물이다. 아울러 고전은 동시대 사람들의 보편적 의식인 동시대성을 담지한 '새로운 책' 이다. 때문에 〈삼국유사〉는 '고전' 이자 '현대' 이며 '현대적 고전' 이자 '고전적 현대' 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는 까닭은 단순히 어제를 읽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래된 미래' 를 읽기 위해 고전을 보는 것이다. 이 연재의 제목을 인문학 '유행' (遊行)이라고 붙인 것은 붓다의 마지막 유언에서 "자 비구들이여, 전도를 떠나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라고 역설한 것처럼 우리 고전의 전도 유행을 떠나기 위함이다. 모든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전도 유행을 위해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볍고 편리한 것만이 널리 떠도는 시대에 고전학자들은 인간의 향기와 가치와 무늬를 지니고 있는 인문학 서물을 들고 전도의 유행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문학 '유행' 은 '유행' (流行)이 아니라 '유행' (遊行)이다. 때문에 우리의 인문학 '유행' (遊行)은 또렷한 사명과 목적을 지니고 있다.

2. 일연의 초발심지

지난해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필자는 미국 하버드대학 아시아센터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한국을 떠나기 전 필자는 인각일연(麟角一然; 1206~1286) 선사의 〈삼국유사〉와 이를 모티프로 쓴 나의 시집 〈바람과 달빛 아래 흘러간 시: 시로 쓰는 삼국유사〉 그리고 〈원효전서〉와 〈퇴계전서〉를 가장 주요한 서지로 챙겨서 갔다. 필자는 연구년 내내 세계 동양학연구의 본산인 옌칭도서관과 한국학연구소 및 학부와 대학원 강의실을 오가며 〈삼국유사〉를 숙독하면서 몇 편의 논문들을 구상하고 다수의 시편들을 지을 수 있었다.

보스톤 웨이크필드 시의 문수사를 오가면서 〈삼국유사〉의 찬술자인 일연 선사가 출가한 진전사는 늘 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진전사는 필자가 출국 직전까지 BBS불교방송 IPTV 파워특강 〈고영섭의 한국불교사〉 강의를 하면서 201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신라승 무상' 의 나레이터가 돼 무상 선사의 일대기를 녹화한 곳이기도 했다. 일연의 은사이자 법사인 대웅(大雄) 장로가 머물고 있었던 그곳은 그의 초발심이 이루어진(1219) 곳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곳이었다. 지금은 비록 삼층석탑과 빈 터 밖에 남지 않았지만 말이다.

근래 몇 차례에 걸쳐 중국 사천성의 대자사에서 무상 선사 국제학술대회와 무상 선사비 제막식에 참석한 이래 선종의 기린아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이 젊은 시절 신라 출신의 정중무상(淨衆無相; 684~762) 선사 밑에서 출가 수행한 제자였음이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불교학계에 공인되어 가고 있다. 한국 불교학계 역시 이 사실을 대중화시켜가는 즈음 중국의



일연 선사 영정

한국고대민족문화 백과사전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삼국유사〉
"고전은 무한한 시공 속에서
비판 견디고 살아남은 선물"

500나한 속에 무상 선사(455위)가 자리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그리고 정중무상에게서 공부했던 마조도일의 고족이었던 서당지장 · 남전보원 · 마곡보철 · 염관제안 · 장경회휘 등에게서 신라 칠산 선문의 개조 및 개산조들이 선법을 전해왔다.

해서 이곳 진전사에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며 한국 남종선의 요체를 전한 원적도의(元寂道義; ?~825) 국사의 맥이 스승인 서당지장 → 마조도일을 거슬러 올라가 무상 선사와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계종단이 공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봉암사의 '지증국사비문' 이 전하는 것처럼 훗날(875) 신라승 행적(行寂)과 현휘(玄暉)가 사천지역을 찾아가 무상과의 접점을 확인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더 주목받고 있다. 진전사는 도의 국사가 연 가지산문의 사찰로서 일연이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이다.

3. 나를 찾아가는 유행

〈삼국유사〉는 한국인들의 꿈과 이상, 슬픔과 희망이 담긴 보물창고다. 나아가 우리의 민족문화를 온전히 담고 있는 '한국고대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다. 국사(國師, 國尊) 일연이 짓고 그의 입적 뒤 제자 무극 혼구(無極混丘; 1250~1322)가 간행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까지 '유사' (遺事)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는 한국인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책이다. 그리하여 육당 최남선의 표현처럼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인의 모든 것을 '혼자 담당' 하고 있다.



진전사는 〈삼국유사〉의 찬술자인 일연 선사가 출가한 곳이다.

이처럼 〈삼국유사〉는 자아와 세계 및 인간과 자연과의 접점과 사이에서 절묘하게 꽃을 피워 내고 있다. 이 꽃은 여타의 역사서들이 피워 올린 꽃들과는 사뭇 다르다. 온갖 꽃들로 장엄하고 수식한 〈화엄경〉처럼 이 책은 드라마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소설이 지닌 이야기 구조처럼 〈삼국유사〉의 설화들은 서사의 재미를 지니고 있다. 이 재미는 무궁무진한 상상력에 의해 그 외연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상상력은 다름 아닌 불교적 상상력이다. 하여 〈삼국유사〉는 우리시대의 화두인 문화콘텐츠의 보배창고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우리들 한겨레의 업경대(業鏡臺)로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삼국유사〉의 찬술자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행히 20세기에 들어와 제5권의 권차에서 비로소 찬술자 일연의 이름이 밝혀지면서 비로소 이 저술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삼국유사〉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인식틀을 가장 넓게 드리우고 있는 텍스트로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의 보고로 확인되면서 부활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켄터베리 이야기' 와 '로마인 이야기' 그리고 '해리포터 이야기' 를 능가하는 '인물이야기' (스토리텔링)가 있다고 자위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좋다고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가 보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겨우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종래의 우리 것은 뭔가 왜소하고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해 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이 높아지면서 점차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새롭게 하는 듯해서 가슴이 뿌듯해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문화의 정형 혹은 원형을 만들어내는 '씽크 탱크' 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전은 힘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는 고전 중의 고전이며 보고(寶庫) 중의 보고이다. 우리 모두 '나를 찾아가는 유행' 인 〈삼국유사〉의 세계에 들어가 보자.

그대의 얼굴을 생각만 해도/ 나 그대와 나란히 꿈속에 있고/ 그대의 이름을 불러만 봐도/ 나 그대와 더불어 자리해 있네// 나는 그대 앞에서 숨을 멈추고/ 너는 그대 옆에서 몸을 기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맘을 졸이고/ 그들은 그 뒤에서 쉬었다 가네// 환웅에서 고려까지 삼천 칠백년/ 단군에서 대한까지 사천 사백년/ 아, 그대는 우리의 길라잡이고/ 아, 그대는 우리의 대안 사서代案史書니// 우리의 고대사를 혼자 받치고/ 우리의 정신사를 홀로 지키며/ 넓은 가슴 큰 마음 되비쳐주는/ 우리들 한겨레의 업경대業鏡臺이네.//(고영섭, 〈삼국유사〉 전문)



고영섭 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사 찰 등 록 안 내

귀의 삼보하옵시고!

불철주야 불국토의 건설을 위하여 기도정진 하시는
전국의 스님 및 법사님들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면서 아직 사찰 등록을
미루고 계시는 분은 본 재단에서 사찰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암등록 시**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교부함.

■ **신청자격**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 및 법사, 또는 단체.

■ **참고사항**
현재 각 종단에 사단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단법인 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사찰 등록증을 발행하는 단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인 여부를 확인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 상호검색을 하시면 바로 법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신중히 선택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에 사찰등록을 하시면 은행에서 사찰명의로 된 법인기부금통장과 은행에서 법인카드를 발급해 드리며,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은행에서 신도님들이 사찰법인 통장에 입금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우)110-816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175-1번지 부원빌딩 310호 전화 : 02)3217-3217입니다. / 이메일 : wbstf@yahoo.co.kr

소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로 이름 지어진 절

해남 미황사

소가 쓰러진 곳에 절을 세우다

해남 땅끝마을 앞바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멀리서 배 한척이 다가 오는데 천상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가만 보니 배는 돌로 만들어진 것인데 포구로 왔다가는 사람들이 다가가면 다시 바다 쪽으로 멀어지길 반복했다.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은 의조(義照) 화상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화상은 장운(張雲)과 장선(張善)이라는 두 사미승과 마을 사람 100명을 선발했다. 목욕재계하고 기도를 올렸더니 배가 육지에 닿았다. 배 안에는 금으로 만든 사람(金人)이 노를 잡고 서 있었다. 〈화엄경〉 80권, 〈법화경〉 7권, 비로자나불 등 40성중, 16나한상, 탱화 등이 금 상자 안에 들어 있었고 검은 돌도 있었다. 검은 돌을 깨뜨렸더니 안에서 검은 소가 나와 저절로 커졌다. 그날 밤, 의조 화상의 꿈에 배에 있던 금인이 나타나 당부했다.

"나는 우전국(優塡國 인도)의 왕인데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며 불경과 불상을 모실 자리를 찾다가 금강산까지 가게 되었으나 거긴 이미 많은 절이 있어 돌아가다가 이곳에서 산을 보니 1만 불(佛)이 나타났다. 소에 경전을 싣고 가다가 소가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곳에 이 경과 상을 모시기 바란다."

다음날 소에 경과 상을 싣고 가는데 달마산 중턱에서 한 번 넘어지더니 일어났다. 다시 산골짜기에 이르러 "미~"하고 크게 울며 눕더니 일어서지 못했다. 의조 화상은 소가 처음 넘어졌던 곳에 절을 짓고 통교사(通敎寺)라 하고 두 번째 넘어진 곳에 절을 지어 미황사라고 했다. 미황사라는 이름은 소의 울음소리가 "미~"하고 아름답게 났고 금인의 누런 금빛을 상징하여 지은 이름이다. 신라 경덕왕 8년(749) 8월의 일이다.

이 이야기는 조선 숙종 때 세워진 '미황사사적기' 비석에 기록되어 있다. 사적기를 쓸 때까지만 해도 미황사에 〈화엄경〉과 〈법화경〉 등 경전과 탱화 등이 그대로 있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미황사는 인도의 왕이 가지고 온 신령스런 물건들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고 제법 번창하다가 빛을 갚지 못해 피폐했다는 것이다.

부부는 미황사로 향했다. 푸르게 자라는 벼들이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아름다운 남도의 산자락들이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게 했다. 남도라고 하지만 너른 들판이 있는 지역은 아니었다. 지혜장은 "바쁜 일도 없는데 지방도에서 과속하는 것은 좀 무식한 짓"이라며 풍경을 감상했다. 그러다가 미황사 창건설화를 꺼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설화가 상징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루트가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통해 고구려로 들어 왔다는 것(고구려 소수림왕 2년 372년)이지. 그러나 그보다 300년 쯤 더 빠른 시기에 인도에서 직접 남쪽바다를 통해 가야국에 들어 왔다는 불교남방전래설도 있거든. 이 설화는 인도의 왕이 직접 경전과 불상 등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니까 남방전래설에 대한 이 지역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되는 셈이지."

"그래, 중요한 것은 절에서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든 깊은 뜻이 있고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는 거야."

세월의 바람결에 육탈한 법의 집

"와, 산 능선이 정말 멋지다. 사진에서 보던 미황사 뒷산이 바로 저거구만."

"응, 달마산이지. 산 이름부터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잖아, 달마산."

높이는 해발 489m, 백두대간의 정기를 한라산으로 연결하는 산맥이다. 이름에 대한 유래는 특별히 전하는 것이 없지만, 설화의 내용에 비춰 본다면 인도에서 경전과 불상이 직접 온 곳이니 진리를 뜻하는 달마(다르마 Dharma)가 머무는 곳이란 뜻으로 지어진 이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천불은 천명의 중생을 제도
만불은 만명의 중생 제도해

근래의 불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진행 됐는지 막돌을 정교하게 쌓은 석축과 누각의 단청, 멋들어진 글씨를 담은 현판 등이 잘 말해주고 있었다. 앞에는 '자하루(紫霞樓)' 뒤에는 '만세루(萬歲樓)'라는 현판이 달린 누각은 아래층은 숙소로 위층은 강당으로 사용되는 듯 했다. 그 옆의 범종루에는 새로 조성한 범종이 덩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뎅~ 하고 종을 치면 그 소리가 저 멀리 바다까지 갈 것 같았다.

"아~ 마치 완벽하게 육탈된 형해(形骸) 같다."

"저렇게 거룩한 법당을 그렇게 비유하다니, 여보님의 안목이 초월적인걸."

미황사 대웅보전(보물 제947호)은 단청의 흔적이라곤 한 점도 찾을 수 없을 만치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말끔한 마당을 앞에 두고 짙푸른 녹음 뒤 삐죽삐죽한 기암괴석을 병풍처럼 두르고 선 대웅보전은 그 외관(外觀)만으로도 세월의 무상함을 충분히 설법하고 있었다. 정면 3칸의 팔작지붕은 겹겹이 쌓아올린 공포를 드러내고 있는데, 기둥과 공포가 백골을 연상시킬 정도로 완전하게 탈색되어 있었다.

법당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중앙 불단에는 잎이 삐죽삐죽한 연화좌대 위에 삼세불이 모셔져 있고 그 위의 닫집은 단순하지만 찬연했다. 천정 우물반자의 '옴마니반메훔'이란 주문을 도형화한 문양은 빛을 바랬어도 그 기운을 역력하게 살려내고 있다. 기둥과 보에 칠해진 단청과 포벽의 달마도 등의 옅은 색감이 새삼스럽게 무상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천정벽과 들보의 여백을 가득채운 부처님들은 인간세상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려는 듯 진지했다.

"저렇게 무더기로 부처님을 그려 놓은 법당은 처음보네."

미황사에 머물던 고승 가운데 연담유일 스님이 있었다. 그는 저서 〈임하록〉에 미황사는 1천불이 출현할 곳이라고 썼다. 그리고 1천불의 출현을 염원하며 벽화에 1천불을 그렸다고 한다. 법당이란 법의 집, 가르침이 표현되고 형상화 되는 절대적인 공간이다. 보다 많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자 하는 염원이 보다 많은 부처님을 그려 모시게 했을 것이다. 천불은 천명의 중생을 제도하고 만불은 만 명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순박한 염원 말이다.

삼배를 올리고 밖으로 나와 배흘림기둥을 어루만져보니 거기서 바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1754년에 중수된 기록이 전하니까 적어도 250년이 넘은 건물을 스치고 지나간 바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뭇결에 채워 주었을까? 주춧돌에 새겨진 거북과 꽃게의 문양은 육지도 언젠가는 바다였고 또 언젠가 다시 비다가 될 것이란 법문을 들려주는 것 아닐까?

"왜 단청을 안 하지? 나무가 너무 많이 갈라져서 못하는 건가?"

지혜장도 궁금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새롭게 불사를 하여 정갈하기 그지없는 절의 중심법당이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무량한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 이대로가 살아 있는 법문인 걸."

"그래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궁금하잖아."


산 가득 녹음이 어우러져 더욱 멋드러진 해남 미황사 전경

해남 미황사 뒷산 달마산은
초조달마가 머문 곳이란 뜻

지혜장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

전화를 끊은 지혜장은 환희심이 솟구치는 표정으로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다.

"내가 아는 동생인데, 최문정이라고. 단청기능보유자이면서 불화작가야. 기술적으로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대로 복원할 수 없을 땐 그대로 놔두는 것이 현행법이래. 이 대웅보전 단청은 그 원형을 알 수 없어서 복원할 수 없다는 얘기지."

"거 봐, 무슨 사정이 있다니깐…. 화재로 사라져버린 낙산사 종과 숭례문도 정밀조사를 통한 실측 자료가 있어서 복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

먼 바다풍경 속 삶의 번뇌여!

부부는 응진당(보물 1183호)으로 향했다. 대웅보전 왼쪽 석축위에 아담하게 따로 담을 두르고 있었다.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모셔져 있었다.

"미황사 홈피에는 좌우에 아난과 가섭 존자가 모셔져 있고 16나한상과 인왕상 등이 모셔져 있다고 나왔던데… 수리 중이신가? 아무튼 여기 벽화 보여? 선으로 그려진 그림들 말이야. 원래는 수묵화였는데 선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야."

응진당 앞에 서니 멀리 바다가 한 눈에 들어왔다. 눈이 시원했다. 저 아래로 펼쳐진 들과 바다 풍경을 보는 지금의 행복감은 얼마나 오래 가슴에 남을 수 있을까? 이 감정이 남아 있는 동안은 행복하겠지만 뭔가 다른 상황이 닥쳐오면 그 행복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쁜 것들과 그 기억, 희망과 좌절 그 모든 것이 잠시 바라보는 저 바다풍경과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았다.

미황사 응진당 앞에서 보는 일몰이 일품이라고 한다. 지혜장은 멀리 진도와 점점이 떠 있는 섬들이 일몰에 잠기는 풍광을 그려보았다.

대웅보전의 오른쪽에 있는 명부전과 삼성각을 차례로 들렀다. 지장보살님 한 분이 지키고 있는 명부전의 외벽 벽화 가운데 죄인을 펄펄 끓는 솥에 삶는 장면과 톱으로 썰고 있는 지옥의 장면이 소름 돋게 했다.

요사로 쓰이는 세심당과 일심관을 지나 등산로에서 '부도전 가는 길'이란 팻말이 가리키는 쪽으로 갔다. 부부는 아무 말 없이 20분 쯤 걸었다. 누런 소가 처음 누웠다가 일어섰다는 곳, 옛 통교사터에 부도암과 남부도밭이 있고 길 아래쪽 숲에 서부도밭이 있었다. 부도암 마당에는 우물처럼 움푹 파인 구덩이에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미황사비명'이란 전서(篆書)가 뚜렷하게 보였다.

부도밭은 고요했다. 멀리 바다와 섬들이 굽어보이는 양지바른 이 공간은 적멸의 즐거움이 가득한 또 하나의 법당이다. 서산대사에 의해 대흥사가 사세를 확장하는 세월은 그 법손들이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세월이었다. 그들의 높은 덕행은 민초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지식인들에게는 삶의 바른 길을 깨우쳤을 것이다. 미황사가 그 대표적인 도량이었음을 남부도밭에 모셔진 21기의 부도와 서부도밭의 부도 6기가 짐작하게 한다.




해남 미황사 법당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 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욱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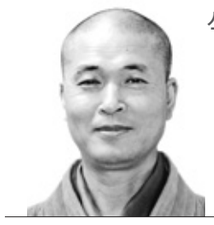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가짜는 없다. 스스로 모를 뿐

학승이 물었다.
"여러 장님이 코끼리의 몸을 만지고 각각 서로 다른 면을 말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코끼리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짜는 없어.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야."

問 衆盲摸象各說異端 如何是眞象 師云 無假 自是不知

준마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고, 가섭은 석가모니불이 연꽃을 들자 바로 미소로 답했다. 또한 옛날 어떤 신하는 왕이 '선다바' 를 외치면 소금, 그릇, 물, 말 이 네 가지 중에서 왕이 필요한 것을 즉시 알고 갖다 바쳤다 한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장님처럼 다르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각각 다르지만 사실 다 맞는 말이다. 다만 장님은 코끼리의 참된 모습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선사들도 도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다르게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어떤 것이 거짓인가?

거짓은 없다. 선사들의 가리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르게 지시(指示)한 것일 지라도 알고 보면 다 통하는 말이다. 선사의 지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의미의 조각들도 모두 진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힌트이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제 1구란 무엇입니까?"
스님이 기침을 했다.
학승이 말했다.
"그것이군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기침도 못하겠군."

問 如何是第一句 師 咳嗽 云 莫便是否 師云 老僧咳嗽也不得

도의 세계에서는 무언가 알아도 절대 '알았다' 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알았다는 상(象)이 세워지면 그것은 절대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주 스님이 다만 기침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알음알이나 단정이 들어가면 그것은 조주의 일구를 모른 것이다.

그런데 제1구를 묻는데, 조주 스님은 왜 기침을 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를 알면 전체를 관통하게 된다. 하늘의 과일인 천과(天果)를 의상 스님이 먹어보았다고 하지만 그 맛에 대한 설명은 없다. 먹어보아야 천과의 실체를 안다. 조주 스님의 기침에 대해서 본 납자가 평한다면, "조주의 기침에는 맹독이 있어서 듣는 자는 다 죽고 만다"라고 말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대해(大海)는 많은 강물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해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

학승이 물었다.
"어찌하여 모르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대해는 마침내 '나는 많은 강을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

問 大海還納衆流也無 師云 大海道不知 云 因什?不知 師云 終不道我納衆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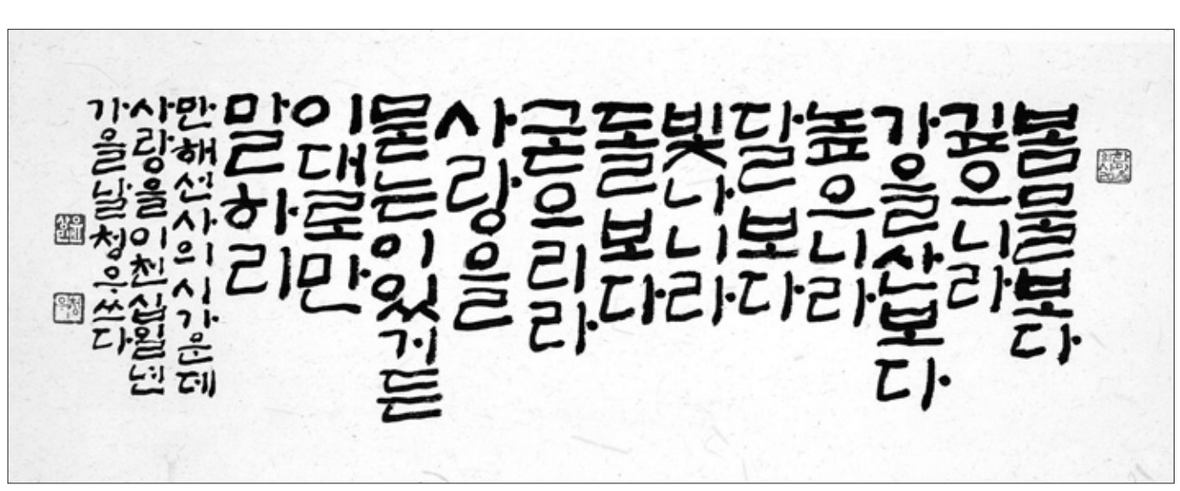
사람들은 자기가 알면 남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르면 남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큰 오산이다. 대해가 어찌 많은 강물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는가? 그렇다면 대해 자신이 모르고 있다고 해서 많은 강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것 인식론의 범주이고 철학의 한 장르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또한 자기의 인식이 절대 진리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조주 선사는 한 마디로 '대해는 모른다' 고 잘라 말했다. 대해가 모른다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수용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의미이다. 대해는 수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해는 그냥 물과 물이 섞여있을 뿐이다. 많다 적다는 의미도 없다. 지구가 대해로 넘쳐나도, 지구에 물이 고갈되어도, 대해는 근심 없이 고요할 뿐이다.

만물은 그 자체가 우주이고 우주의 근원이다. 우주의 근원은 무엇이 되던, 무엇을 하든 무심한 채 고요하다. 사람의 본심(本心)도 원래 고요하다.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한용운 詩



사랑

봄 물보다 깊으니라 가을 산 보다 높으리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굳으리라. 사랑을 묻는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아비달마 수도론 근거해 쓰인 禪經

선경(禪經)은 선수행 및 선사상을 담고 있는 일체의 경전군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의 역사, 선사상, 선수행 내지 선문화에 대한 기록으로서 선관경전(禪觀經典)이라 부르기도 한다. 선관경전이란 계 · 정 · 혜의 무루삼학 가운데 특히 정학과 혜학을 수습하고 그 경지를 추구한 경전으로서 선정 · 지관 · 삼매 등의 사상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선관경전은 단순히 선경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달리 선경류, 관경류, 삼매경류를 총칭한 말이다.

선경은 주로 아비달마의 수도론을 기저로 형성돼 있다. 그 수행론의 범주는 범부위와 성인위에 두루 걸쳐 있다. 특히 범부위의 수도 내용인 삼현(三賢)과 사선근(四善根)의 설법이 중시된다. 따라서 관상(觀想)의 대상과 수행법의 수순과 단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설해져 있다.

관경은 주로 대승의 불보살과 그 국토에 대한 관상을 경전의 종지로 삼은 것이 많다. 가령 여섯 관경

선경과 관경은 지관쌍운 본질 삼아
선경과 관경은 한역만 현재 전해져
삼매경전은 갖가지 삼매 경지 설명
대승불교 경전을 주로 선정을 중심 기술

을 대표로 하는 경전군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관념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관(觀)에 해당하는 범어의 용어가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관의 개념은 〈관불삼매해경〉에 보이는 단좌정수(端坐正受), 심상명리(心想明利), 계념일처(繫念一處), 심불산란(心不散亂), 정관(正觀) 및 〈관무량수경〉에 있는 정좌서향(正坐西向), 일심계념(一心繫念), 영심견주(令心堅住), 심불산란(心不散亂) 등 관심의 방법에 대한 항목의 합의로부터 도출돼 있다.

곧 관상의 대상에 대한 집중을 의미하는 계념일처는 바로 사마타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 성립한 관상은 위빠사나에 대응하는 것으로 위의 두 경전이 목적으로 하는 관불삼매는 지관쌍운(止觀雙運)을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관경에서 관의 개념은 지관의 관과 그 쌍운으로서의 삼매를 의미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매경전은 〈좌선삼매경〉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승공관을 기저로 한 개개의 경전이 보살행의 원리가 되는 갖가지 삼매의 경지를 설명한 것이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수행법의 규정과 형식이 자세하지는 않다. 가령 삼매의 경지에 있어서 타력불의 견불을 목적으로 하는 〈반주삼매경〉에 있어서도 삼매의 방법에 특별한 배려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선관경전가운데 삼매경전류의 대부분이 인도에서 성립되었다고 간주되는 것에 비하여 선경과 관경은 그 거의가 한역 밖에 전하고 있지 않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관경은 중국, 중앙아시아, 서북인도 등에서 성립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기타 대승경전군 가운데 선경과 밀접한 경전이 대단히 많다. 초기대승경전 가운데 〈대반야경〉을 비롯한 반야경전의 계통에서는 제법개공(諸法皆空)을 설한다. 제법개공이란 모든 존재의 고정적인 실체관념과 거기에 고집하는 태도를 타파하는 것으로 반야의 불가득공을 설하여 무집착 및 부분별의 가르침은 이후에 선문과 깊은 관계를 지니게 됐다.

〈유마경〉은 소승의 자리의 독선을 타파하고 이타를 기본으로 하는 불법의 생활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묵묵히 문자언어라는 것도 없다고 하여 직심(直心)이 곧 도량임을 말하고, 불이법문(不二法門)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은 중국의 초기선종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화엄경〉은 불타의 자내증에 기초해 광대한 묘유의 세계관을 전개해 일즉다 다즉일 주반구족 중중무진의 연기관계를 보여준다. 이로써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는 일상의 절대현실에 철저하고, 어느 것 하나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전일한 불법생활을 역설한 경전이다. 그리고 청정한 일심을 드높이고 전일한 생활을 강조하여 보리심과 그 실천으로 승화시킨 점은 이후 조사선법의 사상적인 뒷받침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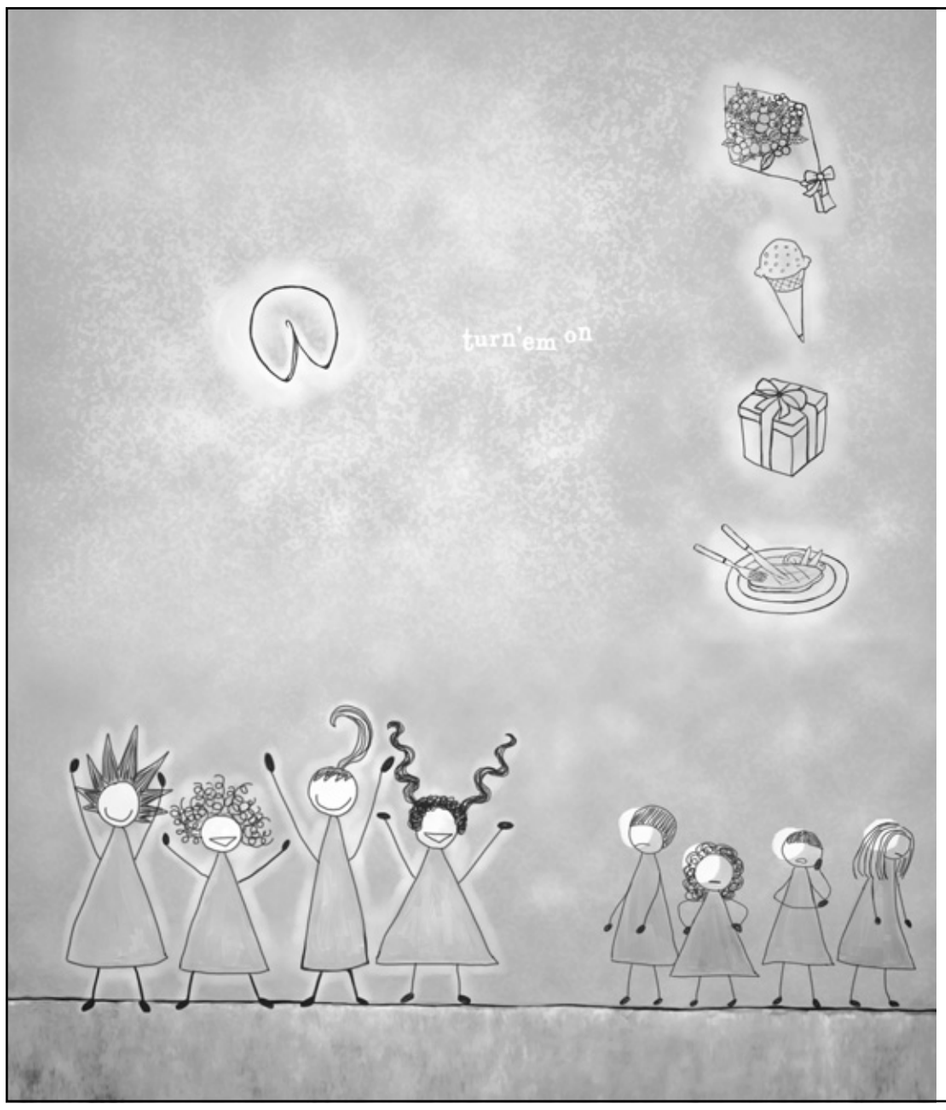
중기 대승경전 가운데 〈열반경〉에서는 법신은 영원하여 변역되지 않고, 일체의 중생에게 성불의 선천적 근거로서 불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며, 단선근(斷善根)의 일천제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경전이다. 그 실유불성의 가르침은 선문의 즉심시불 내지 견성성불의 사상적 근거가 됐다. 그것은 여래장을 설하고 있는 〈승만경〉 〈여래장경〉 〈무상의경〉 〈부증불감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후기 대승경전 가운데 〈능가경〉은 대승의 제교설을 여러 가지로 모아서 잡록한 것이지만 아뢰야식과 여래장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한 경전이다. 그 불심과 여래장을 설하여 네 가지의 선을 말한다. 특히 여래선을 설명하여 여래의 불설일자(不說一字) 혹은 불설즉불설(不說即佛說)의 이치를 설명하고, 불립문자를 강조하며, 사돈사점(四頓四漸)을 설명하고 있는 점은 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근거이다. 중국 초기선종사에서 달마는 〈능가경〉을 혜가에게 주고 그것을 심요로 삼을 것을 부탁했다는 것으로부터 주목된다.

대승불교 경전은 주로 삼매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선정에 대한 내용이 많다. 곧 〈반야경〉 계통의 공삼매, 〈법화경〉의 무량의처삼매, 〈화엄경〉의 해인삼매, 〈열반경〉의 부동삼매, 〈금강삼매경〉의 금강삼매 등이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의 선관으로는 관불삼매, 일행삼매, 제법실상관 등 대단히 성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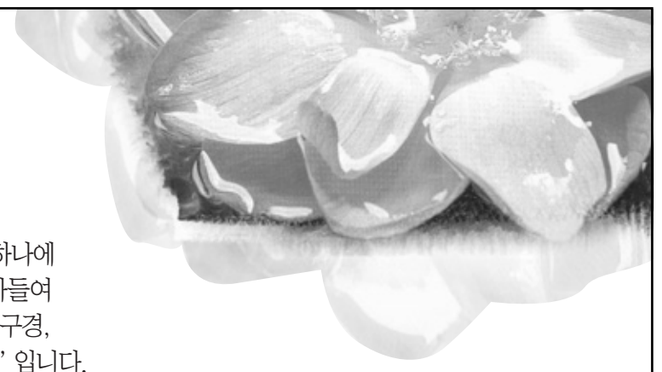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대구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진제 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출생해 1954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석우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 수지 후 제방 수선안거했다. 1967년 향곡 선사로부터 법을 인가받아 석가여래부촉법 제79법손으로 정법맥을 이었다. 1971년 부산 해운정사를 창건한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대종사에 추서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해운정사 금모선원 ·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이다. 법어집으로는 〈옛 못에서 달을 건진다〉〈돌사람 크게 웃네〉〈선 백문백답〉〈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등이 있다.

미국 뉴욕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 법문

대구 동화사 ·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은 9월 15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봉행된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에서 법문했다.

행사가 열린 뉴욕 리버사이드교회는 정치적 토론 장소로 유명하다. 마틴 루터킹 목사와 넬슨 만델라, 피델 카스트로 등 주요 정치인들이 연설했던 곳으로 달라이라마 법문이 열리기도 했다. 진제 스님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의 법문은 한국 스님으로는 최초이다.

특히, 법문에 앞서 이 교회 목사는 직접 한복을 입고 육법공양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간화선이 '참나'를 깨치기 위한 수행방편이라는 점과 참선수행의 효과, 간화선 수행법을 위한 마음가짐 등을 법문해 현지인들의 큰 반향을 끌어냈다. 스님의 법문에는 뉴욕 현지의 이웃종교인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이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기범 기자

[상당하시어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고]

마음, 마음, 마음이여! 가히 찾기가 어려움이로다.
찾으려 한즉은 그대가 가히 보지 못함이로다.
무심(無心)히 앉아있으니
마음도 무심히 앉아 있음이로다.

[주장자를 바로 들어 보이시면서]

대중은 보고, 보십시오.

이곳 리버사이드 교회에 가득 자리한 선남선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 종교지도자 여러분들과, 산승이 자유의 땅 미국에서 진리의 법을 전할 수 있도록 이처럼 훌륭한 법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과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승은 세계 평화를 위해 동양정신문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온 인류에게 공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세계는 종교와 사상을 넘어서 서로가 마음을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 내면 세계의 정화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협력하는 우애로운 형제가 되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산승이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동양정신문화의 골수인 간화선은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하여 '참나'를 깨달아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참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산승의 법문을 듣고 있는 주인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모든 곳에서 주인공이 되어, 무애자재(無碍自在)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치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모든 종교와 정치제도, 문화적 제약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인이 되는 것이니, 인류의 희망이 '참나'를 깨닫는 데 있고, 미래가 여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나를 깨달아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다 같이 영원토록 대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우선, 먼저 참나를 깨달은 눈밝은 '참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광대무변하고 심오한 마음의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 밝은 스승을 만나 대오견성의 발원을 확고히 하여 모든 분들이 각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일러 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선으로 일념(一念)이 지속되는 과정을 이루어야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어 일월(日月)과 같은 밝은 지혜가 열리는 동시에 큰 자비와 사랑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온 인류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 되고, 온 세계, 유정무정(有情無情)이 모두 나와 더불어 한 집이 되어 대평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옛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으니, 온 인류가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처럼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밝은 지혜의 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좌선을 익히도록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좌복 위에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 허리를 곧게 하고 가슴을 편 다음 두 손은 모아서 배꼽 밑에다 붙입니다. 눈은 2m 아래에다 화두생각을 두고 응시하되, 혼침과 망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눈을 뜨고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르익어지고 나면, 일상생활 속에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나 산책을 하나 잠을 자나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의심에 몰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천번 만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의심을 쭉 밀고 또 밀고 또 밀것 같으면 모든 산란심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촌에 방아 찧는 기계는 시동이 안 걸리면 방아를 못 찧는데, 한 번 시동이 걸리면 종일 방아를 찧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천번 만번 의심을 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천번 만번 의심하여 단련이 되면 문득 참의심이 시동 걸리게 되어 화두의심 한 생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과정이 오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한 생각이 흐르고 흐르게 되는데,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를 모르게 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화두일념에 푹 빠져서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천번이고 만번 화두 들어야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인가?"
한번 제대로 시동걸리면 종일 화두 가능

자연히 밝은 지혜의 눈이 열리어 억만년이 다하도록 항상 밝아 있게 되므로, 만인의 진리의 지도자,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의 사표(師表)가 되어 자유자재하게 활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멋진 자유와 행복과 세계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 참나 속에 변치 않는 정의가 있으며, 참나 속에 영원한 행복이 있으며, 참나 속에 걸림 없는 대자유가 있으며, 참나 속에 모두가 평등한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와 행복과 대자유와 평등은,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지위와 명성이 높고 성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나'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생에 화두 일념삼매가 지속되는 과정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 인류가 생활 속에 꾸준히 참선수행을 닦아 행한다면 마음에 모든 분별과 시비, 갈등이 사라져 자연히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 죽음에 다다라서도 맑은 마음 밝은 정신으로 이 몸뚱이를 옷을 갈아입듯 벗게 되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대오견성(大悟見性)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선수행을 등한시 한다면, 온갖 분별과 시비, 갈등에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생을 헛되게 보내게 될 것이니, 결과는 고통뿐이고 갈등뿐이라서 죽음에 다다라 후회한들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이 간화선이라는 훌륭한 수행법을 꾸준히 닦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울면 자장가를 하는 가운데 화두를 챙기시고, 남편이 꾸짖을 적에도 화두를 챙기시고, 마누라가 시비를 걸 때는 처사가 화두를 들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 화목한 집안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화목한 사회와 나라를 이루며, 마침내 세계평화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드리고자, 산승이 참선수행에 입문하고 수행하여 깨달은 기연을 소개합니다.

산승이 20세가 되던 정월 초에 해관암을 찾아가 석우 선사를 친견했습니다. 선사가 산승을 보고는 "이보게 청년,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이번 생은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중놀이를 해 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놀이를 하면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하고 여쭸습니다.

"범부가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범부 중생이 위대한 부처가 된다"는 이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쭸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허락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스님들 생활을 두루 살펴보니, 세상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살지만 판이하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손수 빨래하고, 밥 짓고, 나무하고, 그 가운데 참선수행을 하고 있는데 세상 밖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인지 산승의 눈에는 수도하는 청정한 삶이 아주 아름답게 비춰졌습니다. "범부가 위대한 부처된다"는 선사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허락을 얻어 출가하게 됐습니다.

승려가 되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화두를 받아 열심히 정진하던 중 견처(見處)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선지식으로 가장 이름이 높았던 묘관음사의 향곡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 향곡 선사가 대뜸 묻기를,

"바른 답을 해도 30방(棒)을 맞고, 바른 답을 못해도 30방(棒)을 맞을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산승은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다시 몇 가지를 물어도 답을 못하니, 향곡 선사는 "아니다. 공부를 다시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제방을 다니면서 수행하다가, 다시금 큰 분심을 내어 향곡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화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화두를 타파하기 전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02)2004-8215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BCP공간살균기
NO! 이제부터 신종플루 · 새집증후군 · 세균걱정 끝!!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
- 물을 전기분해하여 사용하므로 환경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 중성에 가깝고, 무색 · 무취로서 장기보존이 가능합니다.

● 안전성
- 식물첨가물로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 트리할로메탄 생성과 잔류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 저비용 고효율
- 소모품 비용이 저렴합니다.
- 모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강한 살균력을 갖습니다.

모델 : BCP
• 자연대류식 • 항균필터 • 이온세균시스템 • 물탱크용량 4L
• 소비전력 43W • 분무량 500cc • 물량표시 / 물없음 알림
• 잠금장치 • 현재습도표시

BCP공간살균기
본 제품은 염소가스의 국제환경 허용농도보다 100배 낮은 수준으로 하여 공간시설물에 점착되어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유기물과 공중부유균, 낙하균 등을 안전하게 분해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치아염소산 전용 공간살균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살균력과 안정성이 입증된 치아염소산을 3-5마이크론의 초미립자 분무하여, 실내공간의 대류에도 30분이상 부유하게 함으로서,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에서는 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보균자(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으며, 실내공간 시설물의 점착균 제거도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간살균시스템 50만원(월 살균제 5만원)
현불샵 02)2004-8215







① 진제 스님의 미국 뉴욕 리베사이드 교회에서의 법문은 미국 햄프셔대 교수 혜민 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이 동시 통역했다.
② 간화선 세계평화 대법회가 열린 리버사이드 교회
③ 진제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대중, 법회 후 대중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에는 바랑을 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팔풍(八風; 이익, 손해, 비방, 찬탄, 꾸지람, 칭찬, 괴로움, 즐거움)이 불어 닥친다 해도 거기에 동요가 안 된다는 말이니,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약조가 아닙니다."

향곡 선사가 산승에게 물었습니다.

"이 어려운 진리의 관문을 네가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생명을 떼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두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리니, 산승의 참학의지(參學意旨)를 간파하시고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 라는 화두를 내려줬습니다. '향엄상수화' 는 중국 당나라 때 위산 도인의 제자인 향엄 선사의 법문입니다.

어떤 스님이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거나 발로 밟지도 않고 오직 입으로만 물고 매달려 있는데, 때마침 나무 밑을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습니다.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답을 하려니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몸이 박살이 날 것이고, 가만히 있으려니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고, 이러한 때를 당해서 어찌해야 되겠는가?"

산승은 이 화두를 받아서 2년 5개월 동안 결제와 해제를 잊고 산문을 나가지 않은 채 일구월심 화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예불을 하러가는데, 도량이 어두워서 돌부리에 받혀 넘어졌다 일어나는 순간 홀연히 화두가 타파됐습니다. 그리하여 그 깨달은 경지를 글로 써서 향곡 선사께 올렸습니다.

글을 적어서 향곡 선사께 갖다 바치니 용의 조화를 들어서 물었습니다. 용의 조화는 산을 떠오기도 하고 산을 없애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문득 용 잡아먹는 금시조를 만나서는 어떻게 하려는고?"

산승은 즉시 "전신을 굽히고 움츠려가지고 당황하여 몸을 세 걸음 물러갑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향곡선사는 "옳고, 옳다. 모든 성인의 진리의 가풍이 이 게송 중에 다 있구나. 장차 너로 인해 참선법이 크게 흥하리라"라고 말하며 만 사람을 지도할 안목을 갖췄다는 법을 전하는 인증서를 내렸습니다.

이 때가 산승의 나이 33세였습니다. 이렇게 참선공부를 해서 진리를 깨달아 먼저 깨달은 스승에게 인증을 받는 가풍이, 석가여래로부터 25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여러분도,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라는 이 화두를 타파해 점검을 받아 바른 눈을 갖춘다면 만 사람의 눈을 멀지 않게 하고 진리의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 잘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때 전국의 발심한 스님네 30~40명이 양주 망월사에서 모여, 대오견성(大悟見性)을 위해 산문출입을 금한 뒤 생사(生死)를 떼어놓고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용성(龍城) 선사를 조실로,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石友) 선사를 선덕으로, 운봉(雲峰) 선사를 입승으로 모시고 여법히 참선정진에 임한 지 반 살림이 도래하게 됐습니다. 반살림 법회날 조실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하기를,

"나의 참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인들도 보지 못함이요 역대의 도인들도 보지 못하나니, 여기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승의 참모습을 보려는고?"하고 멋진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운봉 선사가 일어나서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하고 명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용성 조실스님은 아무런 점검도 하시지 않고 즉시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러한 법석이 있고 30~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향곡 선사가 산승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만약 당시에 용성 선사였다면,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고 한 답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 점검하고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향곡 선사에게 바로 보는 눈이 있어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용성 선사가 아무 말 없이 내려간 그것도 물론 잘한 것이지만, 향곡 선사는 달리 보는 바가 있어 산승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승이 "'눈 밝은 도인이 아주 멋진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답하니, 향곡 선사가 크게 칭찬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 여러분, "나의 참모습은 과거 모든 성인도 보지 못하고 모든 도인도 보지 못하나니 어느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고?"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할 자가 있으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양구(良久)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음에 이르시기를]

답하는 이가 없으니 산승이 대신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자야! 빗장을 잠그거라."

아시겠습니까?

필경(畢竟)에 진리의 한 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하니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이라.

산봉우리에 구름이 걷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 있음이로다.

왓 이스 유어 츠루 셀프?(What is your true self; 무엇이 참나인고?)

[주장자로 법상을 한 번 치시고 하좌하시다]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뗏목의 비유



동국대 선학과 교수

산을 오르다 보면 온갖 시름이 떨구어 진다. 마치 조락(凋落)의 나뭇잎과 흡사하다. 발 아래 낙엽은 절로 나고 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뚝 솟은 저 바위는 원자들로 구성돼 있다. 그리스어로 원자는 '분할 할 수 없는 것' 을 의미한다. 그 작은 입자가 에너지인 것이다. 바위에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삶을 영위하는 것도 에너지인 원자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쪽의 원자가 저쪽으로 이동하는 찰나를 틈타 뿌리는 삶을 지탱하는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다. 서울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뉴스에 나올 정도이다. 그 무지개는 비구름 위로 떨어지는 태양 광선의 작용으로 형성되는데 우리가 만질 수는 없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모자라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은 사라지게 된다. 하나는 완성이요, 모두를 있게 하는 기본이다.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별은 영원한 떠남이 아니다. 이별의 속성은 만남이요 재회이다. 다만 그 형태와 모양을 달리하여 다시 만나는 것이다. 생각해 보자. 나뭇잎의 이별이 없이 새봄의 새싹의 재회가 있을 수는 없다. 이별의 슬픔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붙들고만 있다면 나무는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동사(凍死) 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작은 잎새의 이별은 재회를 언약하며 떠난다.

〈남전대장경〉 가운데 '사유경(蛇喩經)' 에는 유명한 비유가 나온다. 석존이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가르침이다.

제자 가운데 독수리 잡기를 좋아하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나쁜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아니타였다. 대중들이 그의 그릇된 소견을 고쳐 주려고 타일렀지만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이 말은 전해들은 석존은 조용히 아나타를 불러 타이른 후 대중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너희들에게 집착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뗏목의 비유를 들어 말해주겠다. 어떤 나그네가 긴 여행 끝에 강가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바다 건너 저 쪽은 평화로운 땅이다. 그러나 배가 없으니 어떻게 갈까. 갈대나 나무로 뗏목을 엮어 건너가야겠군' 하고 뗏목을 만들어 무사히 건너가 평화로운 땅에 이르렀다.

나그네는 다시 생각하였다.

'이 뗏목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강을 건너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뗏목은 내게 큰 은혜가 있으니 메고 가야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그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마운 뗏목에 대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석존의 질문에 제자들은 하나 같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스승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나그네가 어떻게 해야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되겠느냐. 그는 강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뗏목으로 인해 나는 강을 무사히 건너왔다. 다른 사람들도 이 뗏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에 띄어 놓고 이제 내 갈 길을 가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 뗏목에 대해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뗏목의 비유로써 교법(敎法)을 배워 그 뜻을 안 후에는 버려야 할 것이지, 결코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말한 교법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 말 할 것 있겠느냐."

그렇다. 강을 건너게 해준 은혜가 뗏목에 있다 하여 그 뗏목을 메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뗏목을 메고 가면 무거운 뗏목의 무게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리듯
뜻을 알았으면 집착을 말아야

애써 평화로운 땅에 도달 했지만 마침내 힘이 들어 몇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집착을 범어로 'arati' 라고 한다. 집착은 '화' 이고 '번뇌' 이다. 집착을 놓아버리면 화 날 일도 없을 것이고 번뇌에 속박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연은 우리를 아이로 만든다. 자연은 우리 귓전에 속삭인다. 왜 그런 일로 집착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 일로 고민 하느냐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의 실체를 모르면 두려움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래(tathāgata)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다.

나뭇잎은 일찍이 집착을 터득한 모양이다. 누군가가 아쉬워한다 해도 미련 없이 이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은 비련의 선언이 아니라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위대한 선언이다. 산새도 이별을 습득하였다는 듯이 가납사니 마냥 지저귀는 석양이다.



미얀마 관광청 승인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단 2회, 출발일 : 11월 8일, 11월 29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40,000 추가 경비 없음

관광청 승인 이벤트
겨울 성수기 미얀마 조기 예약 할인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 가이드+기사 팁

※ 미얀마에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 지원합니다.

■ 지장/관음 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7일 1,290,000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항공일정 티벳 6일 1,5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가이드+기사 팁



♔인도 골드트라이 앵글 완벽 8대성지 13일 초특급 259만원
♔인도 베스트 상품 완벽 8대 성지 9일 초특급 239만원
♔부탄 왕국 시킴 다르질링 11일 요금문의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장사 / 장가계 + 천문산 5일 요금문의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 1일 ~ 9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9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캡,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Daum NAVER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대각국사 의천
(大覺國師 義天; 1055~1101)

경·율·론 삼장 외에 교장 집성

"복건의 교활한 상인들이 독단으로 고려와 교통하여 이익을 취합니다. 서전(徐戩)과 같은 자는 심한 바가 많사옵니다. 듣자니 서전은 미리 고려로부터 전물(錢物)을 받아 항주에서 〈협주화엄경(夾注華嚴經)〉을 조조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경판을 인출하여 완성한 후에 공공연히 해박(海舶)에서 싣고 가서 바치고는 오히려 본국의 후한 상을 받았습니다. 관사(官私)에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신이 아뢰오니,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오면 그 폐단에 길들여져서 적국의 간세가 어디라도 이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고려의 승려를 불러들였는데, 필히 이것도 서전이 본래 도모했을 것입니다."

〈소동파전집〉 가운데 '논고려진봉장(論高麗進奉狀)'에 나오는 내용이다. 복건의 상인인 서전이 고려와 교통해 미리 대금을 받고서 〈화엄경〉을 인쇄해 바쳤는데, 고려와 교역을 하여 이익을 보는 한편 더하여 송 조정의 후한 상금을 받아 2중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소동파는 이 상소 외에도 고려와의 무역 및 불교를 포함한 문물교류를 금지하자는 상소를 여러 편 송나라 조정에 올렸다.

이러한 상소문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필자는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를 고려불교와 고려문화의 융성에서 찾고 싶다. 그 고려불교와 고려문화의 최전성기에 활약한 인물이 바로 훗날 대각국사 의천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고려의 11대 국왕인 문종(文宗; 1046~1083년 재위)의 넷째 왕자이자 혜덕왕사 소현(慧德王師 韶顯; 1038~1095)의 조카인 왕자 후(煦)는 1055년에 출생했다. 그는 1065년 5월, 11살의 나이로 당대의 고승이었던 경덕국사 난원(景德國師 爛圓; 999~1066)의 제자가 되어 영통사(靈通寺)로 출가했다.

의천의 출가는 조부인 정종(定宗)이 제정한 아들이 넷 이상이면 한 명 이상을 출가시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도록 한 제도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고려사에 의하면 의천이 스스로 출가를 원했다고 한다. 의천은 바로 그 해에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다시 13살 때인 1067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우세(祐世)라는 별호와 함께 승통(僧統)의 승직(僧職)을 받게 됐다. 불과 13살의 나이로 고려의 화엄종 전체를 관장하는 중책을 맡았던 것이다. 너무 어린 나이여서 형식적인 직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의천의 승통직 수행은 상당히 실질적인 것이었다. 1071년에 이미, 그의 평생 과업이 되었던 교장(教藏)의 집성을 서원하고 있는 데서도 그것이 확인된다.


대각국사의천

13세에 화엄종 관장하는 중책 맡아
송 · 일본 등 동아시아 주석서 간행

사실 의천 외에도 고려 왕실에서는 왕족이 출가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승직에 오른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의천만큼 그 공적을 인정받거나 문화사상의 위치를 점한 왕실 출신의 승려는 달리 등장하지 않았다. 그만큼 고려불교사에서 의천이 점하는 위치가 탁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의천은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증보되고 있던 대장경의 간행에 만족하지 않고, 거란[遼]과 송(宋), 일본에서 삼장(三藏)에 대한 동아시아 승려들의 주석서를 수집해 교장(教藏)을 간행했다. 의천의 생애는 이 교장의 간행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자연 그가 이루고자 원했던 많은 일들 역시 이 교장 간행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천은 교장의 간행을 위해서 불교전적을 구하려 노력했는데, 특히 송의 불교전적을 구하기 위해서 구법행을 나섰던 것은 유명하다. 1085년 4월 초파일 밤에 고려를 출발해 1086년 6월 18일에 귀국했으니[宋 체류기간은 1085년 5월 2일~1086년 5월 12일], 그의 입송구법(入宋求法)은 불과 1년을 조금 넘는 기간에 불과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끝〉

하루에 9시간 일, 6시간 잠, 5시간 놀이, 4시간 자기수양을

스님이 머무시던 통도사 극락암 삼소굴에는 언제나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참선하는 스님들, 수행하는 신도들, 세파에 시달려 좋은 말씀을 청하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다.

가장 즐겨하시던 말씀은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극 한바탕 멋들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었다.

"사바세계에 와서 우리가 맡은 배역대로 연극을 잘 하려면 우선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사람에 대한 애착을 비워야 한다. 물질 아니면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우리가 사바세계에 나올 때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빈 몸 빈손으로 옷까지 훨훨 벗고 나왔는데, 공연한 탐욕과 쓸데없는 망상으로 모두 근심 걱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를 해칠 생각이 있나 무슨 근심 걱정이 있었겠나. 그러한 천진난만한 동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같이 경봉 스님은 사람 아니면 물질, 물질 아니면 사람 이두 가지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잘 써야 하는지도 말씀했다. 이른바 '9654'의 가르침이다. 9시간 일하고, 6시간 잠자고, 5시간 놀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4시간은 정신을 통일하고 집중해서 이 알 수 없는 '나'를 참구하는데 써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 마음을 치료하는 약, 육미탕(六味湯) 법문이 있다.

첫째, 신심(信心)이 석냥중(三兩重) 들어야 한다. 믿는 마음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화엄경〉에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모체(母體)가 되어서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낸다 하였다. 신라의 화랑오계에도 친구를 사귀되 믿음으로써 사귀라 하였다.

둘째, 무언무설(無言無設)이 한냥중 들어가야 한다. 말이 없어야 하는데 입을 열 때 열어야지 밥 먹을 때에도 시끄럽고 공연히 남의 장단점이나 쓸데없이 들추어내면 못쓰니 꼭 필요한 말만 하도록 습관을 길러야겠다.


경봉 선사

셋째, 모든 일에 애착을 두지 않는 것도 한냥중 필요한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부모 태중에서 나올 때 빈 몸, 빈 손으로 나왔다.

넷째, 담담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한냥중 들어가야 한다.

다섯째, 안한(安閑)하여 일이 없는 것을 한냥중 넣어야 한다. 동분서주(東奔西走)하여 몸과 마음이 바쁘더라도 항상 마음은 여유를 억지로라도 지니고 편안히 하여 밝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인내와 용기는 닷냥중 들어야 한다. 이 약은 달이는 방법이 있으니 젖지 않는 물로 달이는데 어떤 불로 달이느냐 하면 조금도 뜨겁지 않은 불에 달여서 밑 없는 그릇으로 매일 한 잔씩 먹으면 모든 마음의 병이 치료된다.

이상으로 경봉 스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한다. 올 봄과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도 많이 왔다. 하지만 큰스님의 향기와 함께 하다보니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어느새 시원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독자 제위께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감사드린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중세 계율 부흥의 주창자
해탈상인(解脫上人) 죠케이(貞慶)(上)

법난, 승가가 자초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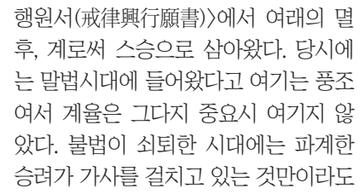
정토종의 호넨(法然)과 제자들이 법난을 당한 결정적인 계기는 나라(奈良)를 중심을 한 구불교의 핵심 사찰 중 하나인 코후쿠지(興福寺)에서 올린 상소문이었다. 1205년에 작성된 이 상소문을 기초한 것은 해탈 상인 죠케이(1155~1213)였다. 이는 호넨의 염불 집단을 비난함과 동시에 전수염불의 정지를 요구한 것으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정통한 근거나 조정의 칙허도 없이 신종을 세운 것, ②전수염불만으로 구제된다고 하며 신상(新像)을 세워 그릇된 길로 인도한 것, ③아미타여래만을 모시며 불교의 근원인 석가모니를 가볍게 본 것, ④칭명염불만을 중시하여 조불조탑 등의 작선을 방해한 것, ⑤하치만신(八幡神)이나 카스가신(春日神) 등 고래로부터 일본을 지켜 온 신들을 등진 것, ⑥극락정토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르침이 있음에도 편향된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 ⑦여러 염불 가운데에도 오직 칭명염불에만 편향된 것. ⑧왕생이 결정되었다고 하며 악행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염불인들이 많은 것. ⑨국가를 수호하는 입장을 저버린 불법의 바른 형태를 어지럽힌 것.

염불문 확장에 발생했던 법난
지계가 무너진 염불이 탄압 불러

당시 호넨의 정토문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갔는지를 상소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9개조의 과실은 당시 전통적인 8종(법상종 · 구사종 · 삼론종 · 성실종 · 화엄종 · 율종 · 천태종 · 진언종) 체제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말법에 대한 위기의식에 기반해 태동한 신종파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죠케이는 8종 중 당시 법상종의 중심 사찰이었던 코후쿠지 출신 승려였다. 11살에 출가하여 법상 · 구사 · 율을 배워 학승으로서 기대되었지만 당시 승려들의 타락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교단불교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운둔으로 일생을 보냈다. 지금의 쿄토부에 속해 있는 카사기데라(笠置寺)와 카이쥬센지(海住山寺)에서 법상교학과 계율 부흥을 위해 일생을 노력했다. 그의 나이 25세 때인 1180년 정변에 의해 나라를 중심으로 한 대사찰들이 불타는 광경을 목격한 것은 충격이었다. 당시 남도(南都, 당시의 奈良)의 대사찰들은 궁중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 진호국가의 이념을 고수한 사원들이자 승병을 둘 정도로 사사세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천황가의 권력을 넘어 최초의 무가정권으로 등장한 헤이씨(平氏) 권력에 반발함으로써 차례차례로 대사찰이 소멸되어 갔던 것이다. 죠케이는 이러한 근본 원인이 승려들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코후쿠지 전경

불교의 재건을 위해 먼저 계율 부흥이 우선됨을 역설하였다. 그는 〈계율흥행원서(戒律興行願書)〉에서 여래의 멸후, 계로써 스승으로 삼아왔다. 당시에는 말법시대에 들어왔다고 여기는 풍조여서 계율은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불법이 쇠퇴한 시대에는 파계한 승려가 가사를 걸치고 있는 것만이라도 불법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므로 길에서라도 절을 올려야 된다고 할 정도였다.

이는 반대로 승려들의 파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앞에서 호넨에 대한 비판 가운데에 8번째에 염불행으로 사후 왕생이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악행을 행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한다. 실제로 염불인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가는 별도의 문제로 놓더라도 호넨이 전수염불만이 극락왕생의 결정적 조건이라고 설한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역학 무료특강
과목 : 사주. 기문둔갑. 육효. 현공풍수
끊임없이 변천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가는 참이며 바른 것이 바로 "易"이며 또한 인생의 변화가 자연의 섭리이기에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이 역학이다.
일 시 – 9월 21. 22. 23 (수. 목. 금) 14시 ~ 17시
– 9월 26. 27 (월. 화) 19시 ~ 21시
* 편한 시간에 하루 선택하셔서 오세요
왕초보반, 이론반, 실전반, 취업반 등 실력 맞춤학습가능, 즉시 역학상담가능하신 분과 상담으로 취업하실 분 내방하여 개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개강좌기간에 내방 하시는분 상담희망자 상담해드립니다.
소원역학학원 02)847-7889
장 소 : 영등포구 대림동 692-2
2호선 대림역 6번출구 직진200미터
수협은행 옆 건물 5층 (소원역학검색)

인비록(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목 차)
1부. 신도神道를 닦다
2부. 죽어서 가는 길
3부. 전생과 현생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5부. 기도·수도 체험기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 정가 15,000원
도서출판 대도대한 /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베스트셀러
"이제는 신을 바로 알고 자신의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신은 비물질인 기로 이루어진 생명체이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사람은 자신을 뒤덮은 업과 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 사람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사후세계에 1,000년을 살아간다!
• 사람이 죽으면 조상신으로 후손의 몸과 주변에서 살아간다!
• 조상의 병과 업이 후손에게 연결되어 그 고통을 받는다!
•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유전병은 유신병이다!
• 유산된 태아신은 엄마의 뱃속에서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 병의 원인이 되는 신을 해결해야 병을 고칠 수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 가위눌림, 귀신들림 등도 악신들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 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인술치유와 신술치유를 같이 해야 한다!
(도서판매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부산)영광도서, 부산)세기서림, 부산)고려불교원, 인천)대한서림, 대구)세원출판 대전)보문불교, 대전)계룡문고, 대전)중앙출판, 대전)KG북+, 광주)충장서림 광주)초원문고, 수원)율전문고, 안양)중앙문고, 안양)대동문고, 안산)대동서적 군포)자유문고, 구리)동원서적, 부평)부평문고, 부천)경인문고, 원주)동아서관 춘천)광장서적, 제천)제일서적, 강릉)영동서적, 공주)백제불교, 청주)일선문고 청주)홍문당, 충주)문학사, 구미)춘양당, 포항)포항문고, 김해)가야서점 창원)창원서적, 진주)진주문고, 남해)해양당, 전주)홍지서림, 익산)대한서림 군산)군일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점, 목포)국제서림, 제주)탐라도서 등

大관음사 행자모집
1.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도심사찰 납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출가자를 위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
(스님이 바뀔때 한국 불교가 바뀝니다)
와서 보라!!!
수행 잘하고픈 스님!
포교 잘하고픈 스님!!
행복해 지고 싶은 스님!!
일 시 : 9월 28일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12주 15명 내외
12월 2박3일 집중수행
장 소 : 동국대 평생교육원
문 의 : 070-4159-2456
※ 1~6기 스님들은 재교육 미리 신청하세요
cafe.daum.net/jurira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마가 두손모음

얼마나 지극하고 애틋했길래 이렇게 한 몸이 됐을까





■ 연리지(連理枝) 이야기

중국 후한(後漢)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채옹(蔡邕, 자는 백개; 132~192)은 효성이 지극했다.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삼 년 동안 옷을 벗지 않고 간호했다. 병세가 악화되자 백 일 동안 잠자리에 들지 않고 보살폈다. 마침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무덤 곁에 초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했다. 그 후 채옹의 방 앞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자라더니 서로 맞붙어 성장하고 나중에는 나무의 결이 이어져 한 그루처럼 되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채옹의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 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당(唐)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 자는 낙천, 호는 향산거사; 772~846)는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뜨거운 사랑을 기려 '장한가(長恨歌)'를 지었다. 장구한 구절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다.

七月七日長生殿 夜半無人私語時
(칠월칠일장생전 야반무인사어설)
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連理枝
(재천원작비익조 재지원위연리지)
天長地久有時盡 此恨綿綿無絶期
(청장지구유시진 차한면면무절기)

칠월칠석날 깊은 밤, 장생전에서 남 몰래 한 약속
하늘에선 비익조 되고 땅에선 연리지 되자고
하늘과 땅은 끝이 있건만 이들의 사랑은 가이 없구나.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애틋한 사랑
하늘에는 비익조, 땅에선 연리지 되자
하늘 끝은 있어도 사랑은 가이 없다…
두 나무 만나는 연리지는 상생 아이콘

비익조는 날개와 눈이 한 쪽뿐인 상상의 새다. 그러므로 각각의 한 쪽 날개와 한 쪽 눈이 합쳐져야 온전한 한 마리의 새가 될 수 있다. 연리지(連理枝)는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다. 채옹전(蔡邕傳)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함을 나타내고, 장한가(長恨歌)에서는 남녀 사이 진한 사랑을 비유한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을 연리(連理)라고 한다. 뿌리가 이어지면 연리근(連理根), 줄기가 이어지면 연리목(連理木), 가지가 이어지면 연리지(連理枝)다.

나무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 둘 다 잘 자라기 어렵다. 생존경쟁으로 둘 다 죽거나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다. 그러나 연리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서로의 특성이 유지되며 양분을 공유해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다. 이 현상은 명칭만큼이나 아름답다. 좁은 땅에서 아웅다웅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 돕고 사는 삶이 상생하는 길임을 알려준다.

산양(山羊)은 다른 야생동물이 살기를 포기한 척박한 기암절벽을 주서식지로 한다. 한마디로 훌륭한 등반가다. 만약 산양이 세계 주요 고봉(高峰) 등반에 나선다면 누구도 기록은 갱신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등반가다.

털이 북실하고 소과에 속하는 산양은 그 모습에서 태고의 신비한 풍모를 풍기고 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절대 접근하지 못하는 절벽 사이를 뛰어다니며 산다. 암벽 주변을 주서식지로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생김새에서 풍기듯 우직함과 끈질긴 근성으로 특수하게 진화해온 결과다. 천적이 범접치 못하는 암벽생활에 적응해온 산양의 생태계는 신비로움 그 자체다.

어떤 험준한 바위도 산양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한 번 마음먹은 바위는 단숨에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산양의 야성이다. 때로는 살며시, 때로는 매우 힘차고 거칠게 암벽을 탄다.

그러나, 산양은 철저히 혼자다. UN 가입을 거부하는 외로운 독립국가다. 영하 40도 의 추위에도 혼자서 버틴다. 다른 산양이 다가오지 못한다. 다가가지도 않는다. 비록 암벽 사이일망정 부등켜안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 겨울나기에 좋을 텐데. 극단적인 배타성을 산양체질, 산양근성이라고 한다.

냉난방 시설이 없는 감옥생활은 여름이 좋을까요? 겨울이 좋을까요? 더운 여름에는 함께 수감생활을 하는 타인 자체가 증오스럽다고 합니요. 존재 자체가 열기를 뿜는 물체에 불과하니까. 겨울엔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등켜 안고 온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추상적인 사랑이고 어쩌고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그저 상대의 온기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당신은 연리지가 되고 싶은가요? 산양을 닮고 싶은가요?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주얼드림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다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NAVER 주얼드림 검색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아미타후불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윤남진 Review

안철수가 있을 줄은 몰랐던 책

대권의 향방을 캐다. 2012년 마침표인가, 시작점인가



〈고성국의 정치in〉
고성국 지음 | 미지애드컴 | 2011. 06

집 앞에서 8시경 시내버스를 타고나서부터 이 책을 집어 들었고 사무실에서도 점심을 미루고 오후 2시경에 221쪽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최근 읽은 책 중 가장 빠르게 집중해서 읽은 책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속독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저자의 단언적 간결문의 미덕이겠지만, 그 문장과 문체가 가능하게 하는 시절인연에 대한 통찰력과 더불어 그의 선량한 눈매가 보여주듯 그의 깊은 애민심이 책 읽는 사람과 공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의 부제는 〈2012 대선전망〉이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치평론 논객인 저자가 결론적으로 2012년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결론부터 보여주면 이렇다.

'박근혜 대세론은 이회창 대세론과 다르며 그는 표의 충성도와 확장성을 모두 가진 강자다.'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분명한 경쟁력 있는 후보, 국민감동의 야권연합 과정을 연출하지 못하는 한 야권후보단일화는 박근혜 대세론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은 1997년, 2002년과 유사한 30~60만표 차의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동안 국민의 이념지형이 보수 강세에서 진보 강세 스팩트럼으로 판세가 변화됐고 정권교체지수도 높기 때문이다.'

다소 시시한 결론인가?

현명하게도 저자는 글의 서두를 2012년의 한국정치 지형을 보는 역사적 프레임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2012년은 25년간 계속되어 온 87년 체제의 절충적 성격, 과도적 특성을 정리하고 국가발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며, '구시대 구질서를 먼저 ' 질서있게 ' ' 안정적으로 ' 마감하는 역사적 분기점' 으로 상정한다.

저자는 2012년 선거가 왜 새 시대, 새 질서를 여는 선거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해 이슈대립구도와 인물로 평가하면서, 새 시대 새 질서를 연 선거로 1970년 김영삼, 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을 예로 든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비전' 이 있었으며 YS와 DJ는 그것을 해낸 인물이라며, 2012년에는 그런 이슈로 질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주자들의 면면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필자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

저자가 박근혜 대세론의 강점을 먼저 분석하면서 표의 충성도와 확장성을 겸비한 야권후보가 없이 대세론이 살아있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진다면 200 만 표 정도 차이가 났던 87년, 92년과 같은 선거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가능성도 여기서 나온다.

'마감하는 분기점' 이라는 특성에서 그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저자는 그러므로 야권은 '신(新) 40대 기수론' 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판 자체를 흔들지 않으면 박근혜 대세론의 판세를 바꾸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더불어 여야 모두 지도체제를 대폭 개편하여 2012년 총선에서 486(40대)을 수도권 전면에 내세워서 중원싸움에서 정면승부를 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박근혜 대세론과 그것을 누가 어떻게 깰 수 있을까 하는 구도 안에 들어오는 현실적, 잠재적 예비 주자들을 거의 모두 다루고 있다. 박근혜, 손학규, 김문수, 정동영, 오세훈, 유시민, 이재오, 문재인, 그 밖의 후보들로 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이정희, 노회찬 까지.

그렇지만 그 애정은 만해가 '님의 침묵' 에서 노래한 '날카로운 첫 키스' 라는 표현처럼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찰과 하심' (정몽준), '비움과 진정한 기다림' (정세균)을 아프게 주문하기도하고, 강소국 연방제 브랜드를 평가하면서 마지막 고별무대에서 가치를 위해 완주하기를 희망하는 처절함이 있고(이회창), 대통령에 출마하여 생산적 정책논쟁의 뉴스 메이커로서 야권연합의 폭발력을 배가하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기도 하며(이정희), 지난 6 · 2 지방선거에서 '두고두고 고통을 몰고 올 심각한 내상을 입은' 주자(노회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선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그 소통의 철학과 주된 내용(정책)과 폭과 방식을 결정하는 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당선자에게 마음껏 하도록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큰 오산은 없다. 모든 대권주자들은 현 정부처럼 주관적이고 일방적 소통방식으로 인해 촛불에 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일이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

출가한 밥값, 이 책에 담았다

정운 스님, 19종 경전의 핵심만 추려 '경전숲길' 펴내



경전숲길 | 정운 편역 | 조계종출판사 | 2만4000원

경전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그곳에는 불교의 지혜가 있다. 그러나 8만 4000 법문이라 불리는 경전 가운데 내게 꼭 맞는 경전, 내가 찾는 경전을 만나기란 쉬운 일만은 아니다.

문득 부처님 말씀이 궁금해서, 혹은 답답한 마음에 삶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위안을 찾으려 경전을 구하다가 그 마음을 그치고 마는 이유는 왜일까?

조계종 아사리(종단의 교육 · 연구 담당)이자 동국대 외래강사인 정운 스님(사진)은 최근 불교의 핵심경전 19권을 추려 뽑아 한권으로 엮어냈다.

신간 〈경전숲길〉은 〈붓다의 가르침〉 〈맨발의 붓다〉 〈붓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등 다수의 저서로 대중에 친숙한 저자의 책이다. 특히, 동국대 등에서 다년간 강의하면서 한 두 번 이상은 강의시간에 혹은 논문으로 학술행사장에서 발표했던 경전들이기에 책의 깊이는 넓고도 깊다. 한마디로 정운 스님의 이번 책 역시 쉽고도 유익하고 알차다.

이 같은 평가가 가능한 것은 저자가 이 책을 두고 "이제야 출가한 밥값을 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공과 시간을 들인 역작이기 때문이다.

"19종 경전 가운데 〈승만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문으로 한번 이상 다뤘던 경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권의 책을 세상에 소개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길은 정말 길고 먼 길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책에는 저자가 출가한 후 팔만대장경의 숲길을 걸으며 만난 초기불교 경전 5권, 대승불교경전 9권, 중국에서 편찬된 4권의 경전 등 19종의 주옥같은 경전들의 핵심이 포도송이처럼 알음알음 담겨 있다.

▷부처님의 체취가 담긴 〈숫타니파타〉 ▷행복과 해탈의 길이 있는 〈법구경〉 ▷초기불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아함경〉 ▷부처님의 마지막 유행을 담은 〈열반경〉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가르침이 있는 〈육방예경〉 ▷서양 그리스인과 동양 비구의 문답을 기록한 〈밀린다왕문경〉 ▷지혜의 언덕에 이르는 길인 〈마하반야바라밀다경〉 ▷견고한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로 번뇌를 깨뜨리는 〈금강경〉 ▷재가불자의 청정한 삶의 모델을 제시한 〈유마경〉 ▷대승불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화엄경〉 ▷불자의 아름다운 행원 〈보현행원품〉 ▷법장 비구의 48대원을 그린 〈무량수경〉 ▷중생이 곧 부처라 강조한 〈법화경〉 ▷불성사상의 정수를 담은 〈열반경〉 ▷여인 성불의 가르침을 담은 〈승만경〉 ▷원융한 본성과 차별적인 수행의 조화로움을 기록한 〈원각경〉 ▷북방불교 최초 경전인 〈사십이장경〉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록한 〈불유교경〉 ▷이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인 부모에 관한 〈부모은중경〉.

저자는 19종의 경전마다 한문장의 요약을 더했다. 그리고 말했다.

"삶과 죽음의 초월을 통한 평온의 경지를 설했기에 부처님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요, 가르침은 참된 삶의 나침반이다."

저자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경전이 무엇인가를 신중히 고민했다"며 "이 책을 만드는 동안 승려로서의 길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 맛보는 충만한 기쁨을 알았다"고 회고했다.

〈아함경〉에서는 목전에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부처님 열반에 아난 존자가 눈물 흘릴 때는 함께 슬퍼했다. 법장 비구의 48대원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선재 동자의 구도 행각에서는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나기도 했다.



"길고 긴 머-언 길이었다."

자비의 실천과 진리 탐구를 위해 혼신을 다해 정진 중인 저자가 책의 서문을 연 이 구절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 돕기도 한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을 사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염두하고

저 광야에 외로이 걷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책의 본문 24쪽 〈숫타니파타〉 中

조동섭 기자

보았다고 하면 바로 눈이 먼다



간저즉할(看著則瞎). 보았다고 하면 바로 눈이 먼다는 뜻이다. 이는 '이렇다' 고 특정 짓거나 한정지었을 때 그것은 이미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선(禪)에서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이라 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눈길이 머물러선 안됐다고 했고, 말의 길이 끊긴 곳에 도(道)가 있다고 했다. 유교에서도 칠분도설이라 해 어떤 개념의 7할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라 인식했다.

인간의 의사표현의 대부분이 언어에 의지하는 까닭에 도는 말과 글의 언저리에서 우리를 엿보고 있다.

〈선어사전〉은 도와 깨침이 기웃거리는 말을 풀어낸 책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저자 혜원 스님은 "선문헌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용어에 대한 명료한 이해 없이는 선사상과 선종사를 가늠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선문답에는 일반 언어부터 속어 은어 방언 등이 두루 섞여 있다. 당시의 트렌드가 녹아든 은유적 용어도 있다.

선어록 연구에 일찍부터 천착해 온 저자는 일본 선학자 아키즈키 료민의 저서를 번역한 〈선종어록 읽는 방법〉을 통해 독자들에게 언어를 통한 선열(禪悅)을 선사하기도 했다.

책은 학문을 위한 주요 도구로서의 사전이기보다 선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선 입문서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가나다 순으로 정열된 옴니버스 형식의 선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책은 단행본 읽듯이 앞에서부터 편하게 읽어 나가도 되고, 필요에 따라 혹은 마음 가는대로 책장을 펼쳐 군데군데 읽어도 좋다.

책은 단어를 설명함에 있어 사족을 줄이고 선어가 갖는 문자적 의미와 배경, 본질적 의미 등을 간결하게 전달해 놓았다.

부록으로는 선 관련 등사 · 어록과 한중일 선사상 관련 연표와 동북아 선 관련 지도, 선종 법계도 등도 담아 선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저자가 모아 놓은 선어를 읽다보면 어느새 당신은 적정(寂靜)의 경애(境涯), 격을 초월한 참된 자유로움, 명리를 초월한 탈속의 경계, 선사들의 맑고 푸른 깨달음의 향기, 청풍명월의 여유로움 등을 만끽하게 된다.

선어사전 | 혜원 편저 | 운주사 | 2만3000원

조동섭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7~13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4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5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6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경전숲길 (한 권으로 읽는 경전)	정운	조계종출판사
8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9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10	불교 상제례 안내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 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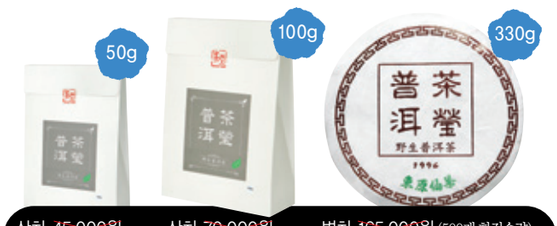
20년 오랜솜씨 탱화불상예술원 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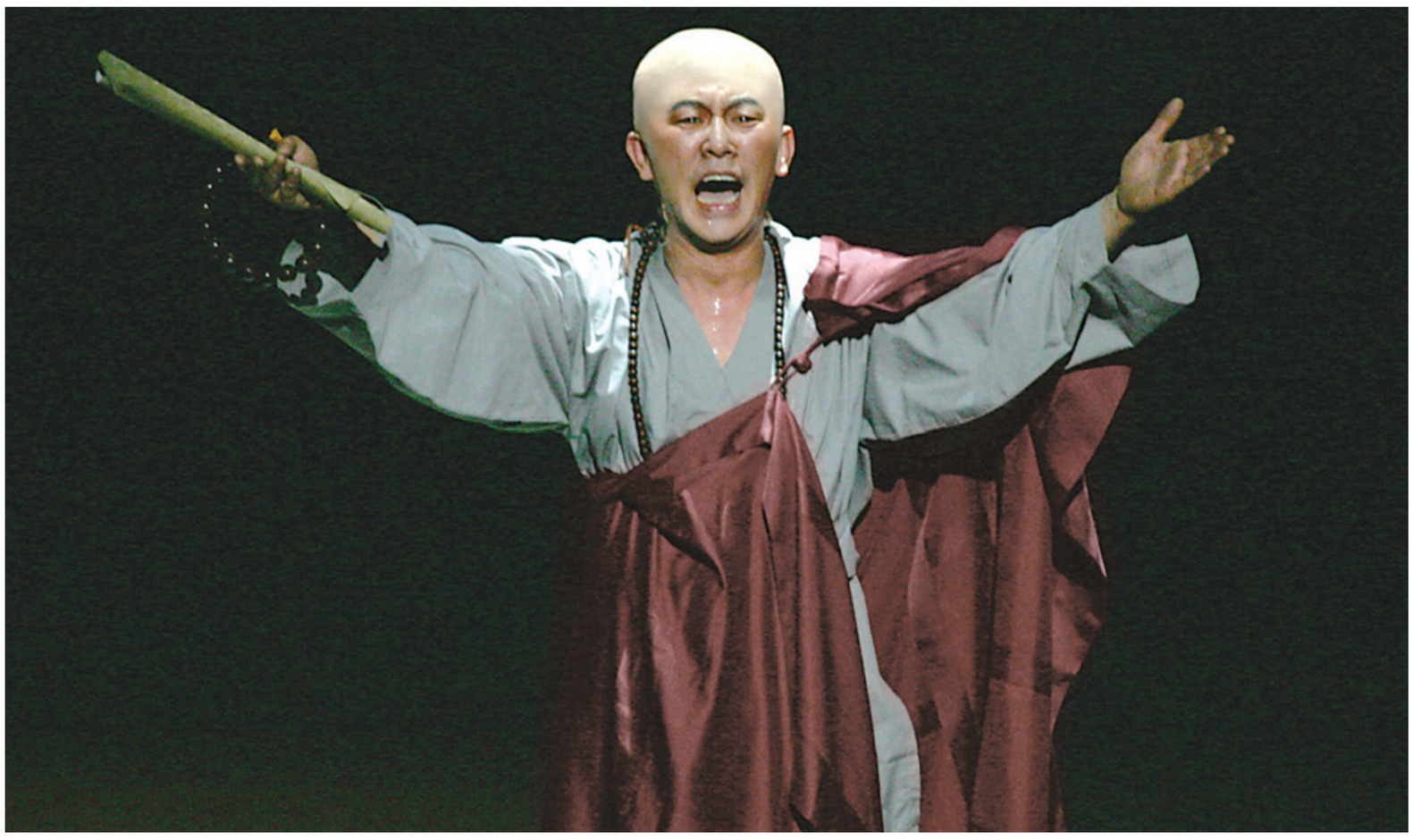
8각좌대 칠보 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칠보 소불도매
있는 곳 : 경북 경주시 성건동 한밭길 28번 14호
손말리미 : 010-5595-8533
알하는곳 : 054) 773-8533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EASY GOLD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영일상사 홈페이지 참조 www.yiss.co.kr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순수 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50g 100g 330g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www.다영보이.kr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물질만능주의에 편승된 사회병리를 고발한 '이 뭣꼬' 는 10월 5~21일 한국불교역하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공연된다.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연극 '이 뭣꼬!', 10월 5일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우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한 순간 존재하다 한조각 구름처럼 사라져 간다. 어느 누구도 다가오는 미래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끝은 육체의 죽음일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미래를 경험할 수 없기에 미래에 대한 환상만이 남아 있으며 그 환상을 좇아 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연극 '이 뭣꼬' 의 주인공 정선우의 삶도 그러했다.

보육원에서 성장한 정선우는 원장의 도움으로 법대에 진학하게 된다. 그는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꿈에 그려오던 판사에 임용이 된다. 그 후 판사 임용을 기념하기 위해 떠난 가족 여행길에서 정선우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어버리게 된다.

갑작스레 닥친 상실의 슬픔에 좌절하며 허망하고 불공평한 인생살이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정선우는 법대 선배인 변호사 박일규의 설득을 뿌리치고 천신만고 끝에 성취한 판사직을 버리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바닷가에서 자살을 시도한다.

이후 정선우는 바닷가 암자의 대오 스님에 의해 발견된 후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나에게 묻고 있는 이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잠재돼 있는 무의식도 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수행승이 된 무명 스님(정선우)은 생사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용맹정진하며 깨달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과거의 기억과 집착으로 연결된 번뇌 망상으로 인해 그의 광기는 더욱 깊어만 간다.

불교를 소재로 많은 극작품을 무대에 올린 극작가 정광진 대표(J&C코리아뮤지컬컴퍼니)가 10월 5~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연극 '이 뭣꼬!' 를 공연한다.

'이 뭣꼬!' 는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채 경쟁심리와 물질만능주의에 편승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에 신음하는 사회병리를 고발한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불효자는 웁니다' '삼류배우'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에 출연한 탤런트 강태기(60)가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자살 하는 주인공 정선우와 용맹정진 하는 무명 스님역을 열연한다.

연극은 바닷가 길섶에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있고 이때 무명 스님이 등장해 묘비를 어루만지며 옛날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연극은 11장으로 구성돼 공원과 묘지 마애불 요사체 법당 등으로 무대가 전환되며 극적효과를 더했다.

연극에서는 대오 스님 역에 드라마 '대조영' '연개소문' 등에서 활약했던 탤런트 박경득 씨가 열연했으며, 무불 스님 역에는 '끽다거' '사랑이 온다' '가을소나타' 등에 출연한 박경근 씨가 연기한다.

화부역에는 임홍식 분(영화 '영웅연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 등 출연), 변호사역에 나재균 분(드라마 '영웅시대' '신돈' 등), 여인역에는 조주경 분('뮤지컬 팔만대장경' '뮤지컬 지하철 1호' 등)과 배성은 분('맥베드' '불효자는 웁니다' 등), 노시인역에는 이정주 분('환생' '갓바위' 등) 이 등장해 연기를 보여준다.

작품을 연출한 정광진 극작가는 '바람아! 구름아!' '오! 부처님' '고향으로 가는 길' '한국의 사계절' '소리찾아 팔도유람' '연극 갓바위' '태평성대' 등 불교를 주제로 한 극작품을 선보여 왔다. 또한 '가야의 혼 우륵' '산따라 물따라' '뮤지컬 갓바위' '월광태자' '무애가' '일연선사' '한바탕 꿈인것을' 등 다양한 불교 전문 창작극을 만들어왔다.

삶과 사람을 되돌아보는 연극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극작가 정광진은 불교예술의 구현을 향한 열정 하나로 단원들과 한창 예행연습 중에 있다.

그는 "이 작품은 외롭고 힘든 환경에서 이 시대를 살아온 엘리트 지식인의 성공과 좌절, 불공평한 운명을 그렸다"며 "삶의 허무 속에서 생과 사의 귀로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정선우의 눈과 마음을 비추어 비이성적인 현실과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반추해 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전석 3만원이며 평일 오후 7시 30분(월요일 휴무),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린다. (02)764-5073

이나은 기자



노서동 집터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당시의 금관 모습.



현재의 금관 모습(국보 제87호)

국립부여·경주博, 고대 직물·금관 전시

신라문화를 대표하는 화려한 금관과 초기철기시대서부터 통일일신라시대까지 유물 속에 숨어있는 직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김정완)은 10월 16일까지 '고대 직물-유물 속에 숨은 유물' 을 전시한다.

직물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한 우리 생활 중 가장 밀접하고 친근한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드물다. 대부분 유물의 표면에 붙은 상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전시에는 ▷초기철기시대의 신창동 출토 직물 ▷부여 능산리 사지 출토 면직물 ▷석가탑 출토 직물 ▷천마총 출토 직물 등 100여 점의 유물들이 선보인다.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직물은 우리나라 최고(最古) 면직물은 백제만의 독창적 수법으로 직조됐으며 고구려, 신라, 중국 등에서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어 사료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국보 제126호인 석가탑을 해체하다가 사리공에서 출토된 '금동제 사리 외함 보자기' 는 고대 직물의 정수로 여겨진다.

전시장에서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조기와 직조모형을 전시하고 실체현미경으로 직물 조직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석가탑 출토 직물을 재현해 당시 뛰어난 직조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041)830-8442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10월 30일까지 금관총을 재조명하는 '금관 최초 발견 90년 - 금관총'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금까지 공개된 화려한 금공품을 비롯한 200여 점의 유물을 출토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했다.

1921년 9월 노서동 주막의 집터공사 현장에서 우연히 발견됐던 금관은 신라의 발견이자 역사의 발견이었다. 이후 금관총 유물은 조선총독부로 옮겨져 정리작업이 진행됐으며 1923년 대외적으로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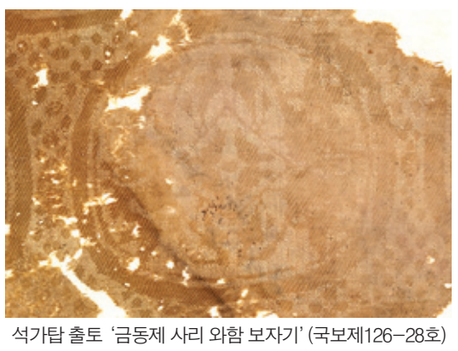
신라인들의 유물은 1924·1927년 일본 학자에 의해 보고서로 발간돼 국제적인 관심을 일으켰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금관이 발견 된지 90년이 지났지만 금관총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전시는 금관 발견 90년의 금관총을 이해하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4)740-7539

이나은 기자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면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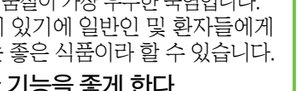


석가탑 출토 '금동제 사리 와함 보자기' (국보제126-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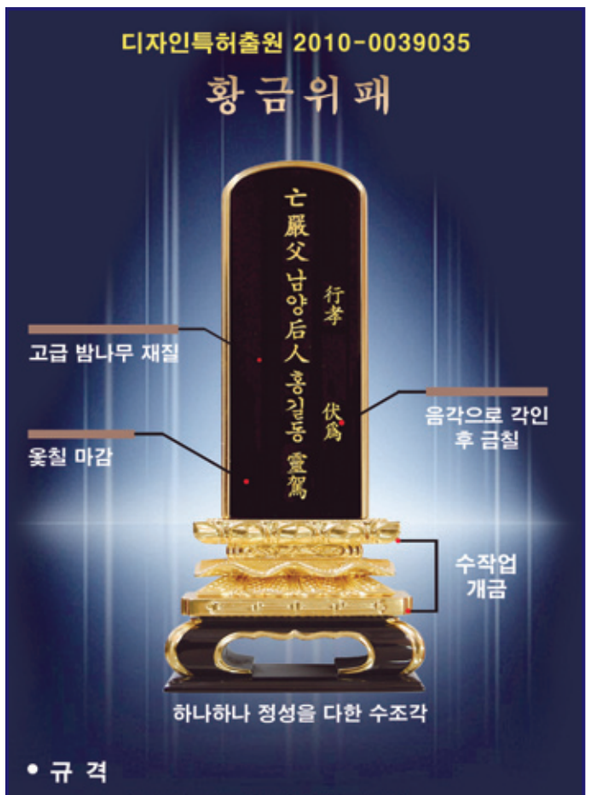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디자인특허출원 2010-0039035
황금위패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옥위패
• 흑단위패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1층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스님, 불자 연금보험 변액, VUL, 종신 보험
1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평생동안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2 건강이상시(사고, 재해시) 무상치료 받고 보상 받는다면!
3 여유자금 00원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 인플레이션 방지
4 비과세 초스피드 00원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1)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2) 공인 Risk컨설팅 전문가
(3) 토지 분석 전문가(건국대학원 수료)
(4)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무료상담 환영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강의 요청시
언제라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

王씨 위해 李씨가 세웠지만 결국 李씨를 위함이었네


조선 건국기에 민심 수습을 위해 설행된 수륙재는 진관사에서 매년 왕실 의례로 봉행됐다.

고려와 조선 두 왕조를 위로한 진관사

서울에 절의 이름을 따서 생겨난 마을이 더러 있지만 진관사와 진관내동과 진관외동처럼 사찰과 마을이 현존하는 곳은 흔치않다. 절의 이름으로 마을이 생길 정도로 영향력을 준 진관사는 고려 제8대 현종의 기구한 생애와 관련이 있는 창건설화가 있을 정도로 연원이 깊다.

그런 진관사는 조선 시대 창건된 사찰이 아니면서 조선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사후세계를 위로한 사찰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고려왕조를 위한 것은 희생된 왕족과 신하들을 위무하는 수륙재였고, 조선 왕조를 위한 것은 왕과 왕후의 천도와 기신재의 대표적인 장소였다.

왕조와 왕조의 교체에는 불가피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역시 고려의 왕족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위화도 회군으로 잠시 왕위에 오른 공양왕은 제대로 된 임금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불안한 자신의 위치 때문에 오히려 불사에 치우친 생활을 했다. 조선이 세워지자 유배가고, 급기야는 도망해서 삼척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불행한 생애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능은 삼척과 고양 두 곳에 있다. 죽어서도 자신의 자리가 나누어지는 불행한 임금이었다.

다음으로 피해를 본 것은 왕(王)씨 성을 가진 왕족이었다. 한두 명이 아닌 탓으로 감시하기 어려웠던지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지 3일 만에 사헌부의 주청으로 왕씨 일족을 강화도와 거제도 두 섬으로 내몰고 살해했다. 이때 화를 면한 왕씨들은 전(全)씨나 전(田)씨로 성을 바꿔 목숨을 이어갔다.

다음은 전 왕조에서 벼슬을 하던 관리들의 희생이 많았다. 고려와 조선처럼 전제군주시대는 충효가 강조된 탓인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신념이 강했다. 그런 까닭에 새 왕조의 건국에 동참할 것을 권유해도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새 왕조의 건국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개성 광덕산에 있는 두문동에 들어간 72명을 회유하기 위해 불을 질렀지만 끝내 나오지 않고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일이다. 그런 고려 때의 신하 가운데는 조선왕조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태조 3년(1394) 모반하는 무리들이 있어 신하들의 주청에 의해 그들을 처벌한 것을 보면 건국초기 어수선한 현실이 눈에 떠오른다.

이런 분위를 지켜본 민심은 어떠했을까? 왕조 교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고려 왕족과 신하의 처벌은 잔혹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힘을 가진 조선왕조에 저항할 수는 없어도 희생되는 고려의 왕족과 관리에게 연민의 정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슴 저 밑으로 조선왕조의 폭정을 담아뒀을 것이다.

이런 민심을 달래는 것이 조선왕조의 숙제였다. 무엇으로 달래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고려왕조처럼 불교를 숭상하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조선을 건국한 새로운 지배계층은 유교를 치국이념으로 삼았다. 불교계를 압박하기 위해 사원의 구재행위를 금지했으며, 새로운 도읍 건설과 종묘의 조영에 승려들을 강제로 투입했다. 승려들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농민투입에 따른 농사의 어려움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렇게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을 썼던 조선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불교를 내세울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유교의 내세관으로 죽은 망자를 위로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결국 불교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설행된 수륙재는 고려 왕족과 신하들을 천도하는 의미와 함께 민심 수습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었다. 물과 뭍에서 희생된 무주고혼을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새 왕조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 한 것이다.

조선시대 수륙재가 처음 설행된 때는 태조 4년(1395)이었다. 그해 2월 천마산 관음굴(觀音窟)과 삼척에 있는 삼화사(三和寺) 그리고 거제에 있는 견암사(見巖寺)에서 수륙재를 베풀었다. 이후 봄과 가을 이곳에서 수륙재를 베푸는 것을 법식으로 삼았다. 이곳에서 수륙재가 먼저 설행된 것은 왕족의 희생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은 도성과 먼 곳이어서 민심을 달래기는 부족했다. 전 왕조의 희생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새로운 조선왕조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면 두 왕족의 핵심인 한양과 개경 주변에서 열려야 했다. 그런 목적에서 보면 한양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진관사가 제격이었을 것이다. 고려왕조와 관련이 있으면서 신왕조의 수도와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도로 태조 7년(1398) 진관사에 수륙사(水陸社)를 조성하고 전 왕조를 위해 수륙재 설하면서 이곳은 왕실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민심 지지 얻으려 수륙재 거행 시작
유교를 앞세웠어도 불교 등지지 못해

이후 수륙재는 조선의 중요한 불교의례로 정착되었고, 왕실에서도 배불의 분위기와 달리 수륙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조선 초 배불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한 태종 역시 그런 신앙을 충실히 따랐다. 즉위 1년 봄과 가을에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개최한 후 즉위 14년(1413)에 이르면 지금까지 세 곳에서 거행되던 수륙재에다 오대산 상원사를 추가했다. 그리고 왕명으로 매년 2월 15일에 행하던 것을 금후로는 정월 15일에 개최하도록 했다.

태종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수륙재를 통해 극복하려 했다. 18년(1418) 넷째 아들 성년대군이 죽자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베풀고 흐느껴 울면서 명복을 빌었다. 강인한 군주였지만 자식문제에 있어서는 여느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진관사의 수륙재는 세종 31년(1449) 4월 영국사(寧國寺)로 옮기려고 심각하게 논의한 일이 했다. 그 이유는 진관사의 샘물이 불결하고 또 땅이 좁다는 이유였다. 수륙사를 포함하여 사찰 전체를 수리하려면 많은 재목과 기와를 운반하여야 하는데 도로가 좁고 험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영국사는 지세가 매우 시원하고 정결하며 물이 또한 맑고 깨끗하다는 이유였다.

이런 논의에서 예조판서 허후는 태조가 설치한 것이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 의견에 세종은 처음부터 조선왕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려왕조를 위한 것이므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불교계의 고승과 협의하라 했다. 5월에 다시 중신들과 논의하여 영국사로 옮기는 것보다 진관사를 수리하는 쪽으로 정했다. 뒤이어 즉위한 문종 1년(1451) 5월 비로소 진관사의 수륙사가 완성되었다. 그해 7월에는 의정부에서 예조에 아뢰어 한양으로부터 진관 수륙사까지 향을 받들고 경행(經行)하는 길에 혹 버려진 주검이 있으면 매우 불편하므로 한성부의 담당관이 자세히 살피도록 했다. 아울러 진관사 마을 입구 좌우에 사람을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길을 깨끗하게 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세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민중들의 생활에 자리한 불교신앙을 하루아침에 없애기 어려웠다. 건국을 이끈 태조와 태종 역시 고려시대 불교를 숭상하던 분위기에서 지내왔다. 이런 까닭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국가의 위난을 불교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잠재의식이 있었다.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유교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불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종묘를 지어 태조의 선대는 물론 이후 유명을 달리하는 왕과 왕후를 제사 지냈지만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은 불교를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해지는 기록을 보면 태종 정종 태종 세조와 그의 장남, 그리고 성종의 49재를 진관사에서 지냈다. 또한 조선 초 많은 왕비의 49재 역시 이곳에서 지냈고, 그들의 기신재 역시 이곳에서 지내졌다. 그 후 연산군 때까지 수륙재가 설행할 때 선대의 왕과 왕후를 위해 위계가 높은 조관을 보내 향축(香祝)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 동안 이곳은 조선 왕족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봄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Lumbini Digital Buddhist Sutra Player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통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한국구술인물사 / 최 연 불교사회연구원 원장 – 민중불교운동에 불을 지피다

버마 불탑 모델로 불교 야학 열어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말해지듯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5·18 광주사태 발발과 함께 데모대에 대한 검거령이 내리자 그는 문경 김룡사에 피신했다가 다시 상경한다. 그는 그제서야 대불련을 찾았다. 1970년대 중반 활발하게 움직였던 민중불교운동의 기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 제도권 내에 들기 위해 대불련 의장에 출마했다. 이희선은 회장에 출마했고 둘은 러닝메이트였다.

"자기의 주의·주장을 제대로 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선배와 지도교수와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통제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출마를 하게 되죠. 출마를 하는데 저는 의장에 당선 됐어요 다시. 회장을 했기 때문에 회장은 다시 못 나오고.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의장에 당선됐는데 이희선 분이 회장에 그 고대 다니는 최주선 군에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당선 되자마자 바로 (의장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최연은 민중불교운동 기조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이희선이 당선되지 못하자 사퇴하였다. 민중불교운동의 기치를 들지 못했지만 최연은 여익구 선생을 대불련 사무총장으로 영입한다. 그러나 영입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급진 인사인 여익구 선생을 대불련 사무총장의 영입에 대해 회원들의 반대가 많았다. 여익구는 대불련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 최연 자신의 후배인 중앙대생과 동국대생들이 반대했다. 설득에 설득이 이어졌고 어렵게 여익구 선생을 모셨다. 동시에 최연은 대불련을 지원하는 승려단체인 지도법사단이 출범하도록 여익구 선생을 도왔다. 이로써 8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새로운 기조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다른 불교운동에 눈을 돌렸다. 이른바 불교야학운동이다.

"지도법사단 그 때 만들고 하다가 그 거는 하다가 이거보다는 좀 더 진도 나가야겠다. (19)81년 82년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마 그래서 아 아니다 해서 좀 더 급진적인, 법우 스님하고 나하고 묘각사로 갑니다. 그래서 불교야학연합회를 만들어서 전국 조직하고 그 청계피복회 그 노동자 있잖아요. 노동야학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야학이 시작되면서 발간한 〈청년여래〉.

그 당시에 대불련 중에서 좀 우수한 인력들 1학년 애들을 교사로 다 데리고 가서 의식화 교육시켜서 걔들이 인제 노동야학의 교사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묘각사 하나 만들고 전국에 다섯 개 만들다가 세 개까지 만들다가 1년 6개월만에 그냥 조직사업으로 들어가 그게 불교야학 연합회 사건인데 사건명으로 '사원화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묘각사는 현재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사찰이며 대한불교관음종에 속해있다. 대불련 선배인 홍파 스님이 후원했고 최연과 법우 스님 등이 활동했다. 청계피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야학을 시작한 것이다. 그 운동의 이론적인 근거는 버마(미얀마)의 불탑이다. 불탑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소수자나 낮은 계급의 노동자들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모델을 가져온 것이다. 야학 선생의 모임인 정법대학생회가 결성되었고, 야학 이름은 '여래사(如來使)야학'으로 명명되었다. 여래사의 부름을 받았음을 뜻한다. 그러나 여래사야학을 졸업한 노동자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조사 과정에서 묘각사 야학운동 실체를 자백했다. 야학을 주도했던 최연과 법우 스님 등은 남영동 대공분실에 잡혀 들어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화를 참는 수행했던 제석천

얼마 지나지 않아 비마질다라 왕이 이끄는 아수라 군대는 제석천의 군대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아수라 군대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밀린 제석천의 군대는 결국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제석천의 군대가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본 비마질다라 왕은 드디어 자신이 도리천을 두고 계속되어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자비심이 전쟁의 승패를 바꾸다

제석천의 군대는 전속력으로 후퇴를 했다. 제석천이 타고 있는 수레는 추격을 피해 숲으로 돌진했다. 나무가 우거진 숲에는 넓은 길이 없었고 수레가 지나간 자리마다 커다란 나무들이 쓰러졌다. 수레의 뒤를 따라 엉망진창인 길을 정신없이 달려가는 제석천의 군대는 패색이 짙었다.

바로 그 때 제석천은 공중으로부터 아기 새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두 마리의 붉은 말을 멈추게 하고 나무들을 확인했다. 커다란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갓 태어난 금시조 두 마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이를 본 제석천은 아기 새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수라의 군대가 숲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제석천의 군대는 다시 숲 밖으로 나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아수라의 군대를 향해 정면으로 맞섰다. 두 마리 아기 새의 생명과 죽음을 맞바꾼 것이다.

재미있게도 싸움은 아수라와 제석천의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신나게 추격을 하던 아수라 군은 숲속에서 갑자기 제석천의 군대가 방향을 바꿔 마주 달려오는 형세를 취하자 당황하고 말았다. 전쟁에 능했던 그들은 제석천의 군대가 거짓으로 패한 척 하고 도망치는 시늉을 하며 자신들을 숲속까지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제석천의 군대가 방향을 바꾼 숲속에 뭔가 감춰둔 비장의 무기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반대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뭔가 엄청난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질려 도망을 치다보니 아수라의 군대는 졸지에 대열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비마질다라 왕은 군대가 돌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사기는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가 없었다. 제석천의 군사를 피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군대에 떠밀려 비마질다라 왕 또한 쫓기듯 달리다 그만 수미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전쟁 삽화=김영수

지혜로운 인욕 수행을 하다

도리천의 주인 자리를 놓고 수시로 다투던 제석천과 아수라의 대결은 이 전쟁으로 일단락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사천왕은 제석천의 명에 따라 비마질다라 왕을 절대 풀어지지 않는 다섯 가지 포승으로 꽁꽁 묶어서 천궁으로 데려왔다. 비마질다라 왕은 제석천의 얼굴을 보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는커녕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석천은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욕설을 들을 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제석천의 마부가 무엇이 두려워 비마질다라 왕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제석천은 두렵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마질다라 왕의 욕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지혜로운 인욕, 즉 화를 참는 수행을 실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아낼 줄 아는 이라고 말하였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천진영 기자의 문화산책 영화 '파퍼씨네 펭귄들'

펭귄이 찾아준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설득의 왕 파퍼씨(짐케리)는 성공한 사업가이지만 0점 자리 아빠다. 아이들 생일, 축구시합, 졸업식에도 참여하지 못하다가 결국 아내와는 이혼하고 아이들과는 격주로 주말에 만나는 신세가된다. 어느 날 남에서의 지리학을 연구하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배달된다는 연락을 받는다. 파퍼씨의 뉴욕 고급 아파트에 배달된 것은 다름 아닌 펭귄 6마리.

파퍼씨는 시끄럽고 집안을 어지럽히는 펭귄들에 시달리다가 아들 생일을 또 잊어버렸다. 주말에 문밖에서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펭귄을 선물로 오해하자 어쩔 수 없이 펭귄을 집에서 키우기로 약속한다.

영화는 파퍼씨와 아이들이 펭귄을 키우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코믹하게 그렸다. 파퍼씨는 자신이 애써 숨겨왔던 부인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아이들 또한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펭귄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의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이미 조금은 뻔한 결말이 예상된다. 펭귄은 분명히 일상생활을 어지럽히는 난제들이고 파퍼씨네 가족에게 갑자기 닥친 어려움이자 선물이다.

6마리 펭귄이 아니었다면 아빠는 계속 일에만 매달렸을 것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틈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또, 엄마는 이혼 후 만난 다정다감한 남자친구와 아프리카로 오랫동안 봉사 활동을 떠났을 것이다.

모두가 펭귄 덕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펭귄은 계기만 만들어줬을 뿐 본래 다 내재돼있던 것들이 표출된 것뿐이다. 화가 나면 싸워야 되고 싸우면 화해하면 된다. 화해를 결심하는 계기로 펭귄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다면, 어서 상대에게 달려가 진실된 마음을 보여야 한다. 우리의 삶에는 택배로 배달될 펭귄은 없으니.

선사들이 강조하듯 영화 '파퍼씨네 펭귄들'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강조 한다. 주인공 파퍼씨처럼 내일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내일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파퍼씨네로 배달된 펭귄은
현실 속에서는 고난·역경
갑자기 닥쳐온 불청객이라도
슬기롭게 맞이하면 행복이 된다

파퍼씨와 그의 아내는 연애시절 낡은 스케이트를 몰래 훔쳐 탔던 아이스링크장에서의 데이트를 추억하며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데이트가 소박했듯이 우리도 어머니가 해준 구수한 된장찌개를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한다.

당신의 최고의 데이트는 무엇인가? 여자 친구가 싸준 엉성한 옆구리 터진 김밥은 아니었는지. 너무 추워서 두 손을 꼭 잡고 걸어 다니던 그때는 아니었는지. 추억이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내가 그때 행복했기 때문에 추억하는 것이다. 행복은 성공을 거둔 먼 훗날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파퍼씨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6마리 펭귄과 댄스 연습을 하고 있다.

생생한 부처님 말씀을 읽자!
불교의 중요한 경전은
이 〈불교경전총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불자라면 〈불교경전총서〉 1질은 소장해야 합니다.
500질 한정판
불교경전총서 (전 22권) 완역
01. 화엄경 김지견 역/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9,500원
03. 묘법연화경 현해스님 역/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7,0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12,000원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10,000원
07. 정토삼부경 한보광 역/9,500원
08. 범망경·지장경 일지 역/8,0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혜원 역/10,000원
10. 백유경 현각 역/8,000원
11.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관음경 일지 역/7,0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8,500원
13. 아함경1 돈연 역/9,000원
14. 아함경2 돈연 역/9,000원
15. 법구경 석지현 역/9,0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10,000원
17. 밀린다왕문경1 동봉 역/12,000원
18. 밀린다왕문경2 이미령 역/12,000원
19. 본생경1 이미령 역/12,000원
20. 본생경2 이미령 역/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익·무관 역/7,000원
22. 해심밀경 묘주 역/10,000원
민족사 구입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전 22권 정가 214,000원 할인특가 185,000원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결혼이주여성의 추석명절지내기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소장

가장 좋은 날씨와 기온, 멋진 계절, 풍성한 음식이 돋보이는 추석. 낯익은 친인척들을 다시만나게 되는 약간은 긴장되는 날. 맛있는 우리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함께 하는 뜻 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음식 장만과 상차림, 차례지내기, 손님맞이하기 등 분주한 책임감이 내려 앉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성의 몫으로 되고 있다.

이런 역할을 고스란히 떠안고 그것도 낯선 곳에서 온 여성이 결혼이주여성이다. 이들은 이중·삼중고의 힘든 역할을 해내야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어쨌든 명절이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며느리 가정주부 엄마 부인 등 타이틀을 가진 여성들일 것이다. 한국여성에게는 명절이 점점 외면당하게 되고 명절 차례·제사를 지내지 않는 타종교로 전환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강하다. 그러나 명절은 분명 즐거운 날이고, 이것을 기점으로 계절이 바뀌고, 마음가짐도 다시 정리하게 되는 소중한 날이다. 친인척간 우애도 다지고, 얼굴도 보고, 핵가족시대에 모처럼 자식들에게도 집안의 서열을 알게 하고,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을 가져보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결혼해 들어와 사는 마당에 정말 생소하고 낯선 풍습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여성으로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미루어 추측해 본다. 때마침 사회 여러곳에서 이주민을 위한 도움의 행사를 열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지방의 명절은 전통을 고수하고 유지 보전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그러한 곳에서 과연 결혼이주여성이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싶다. 경북 영주 모집안의 12대 종가집 그것도 맏며느리로 베트남 출신으로 시집을 온 여성이 있다. 이 베트남 여인은 뭣도 모르고 결혼을 했을텐데, 하필이면 종가집 맏며느리로 왔을까. "안됐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도 같다. 그런데 대대로 보수적이고 전통을 우선시하는 지역에도 지금은 맏며느리로 외국인 며느리가 흔히 보이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도 혼기를 놓친 아들이 외국여성이라도 결혼을 하게 됐으니,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여기는 시부모들도 많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집안 분위기가 형성된 경우가 의외로 많아 참으로 아름답고 흐뭇해 보인다.



한국 전통문화를 제대로 알려 이주민 여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것만 최고이고 우리의 미풍양속이 아름답다는 우물 안 개구리식 내것만 고집하는 것을 벗어나 외국의 곳곳에서도 나름대로의 고유하고 의미 있는 풍습이 있다는 것에 눈을 돌릴 여유를 가져야 한다. 각 나라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나 표현방식. 부모님께 하는 예절 등이 우리만이 철저한 것이 아니다. 명절이후 이혼이 몇 배나 급증한다는 보도는 이제 흔한 뉴스다. 그러나 반대로 명절을 통해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서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을 쌓아가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명절이기 때문이다. 서로 여러가지 생활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제사음식. 차례음식에 대한 유래나 만드는 법 등을 자상하게 가르쳐서 우리식구로 품어 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구상 어디를 가도 사람마음만한 것이 없다. 따뜻하게 품어 안아줄 때 사람은 감동하는 것이고 마음을 붙이며 살게 된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체중 3kg 늘어나면 사망위험 4% 증가

근래 들어 몸이 찌뿌듯하게 무겁고 나른하면서 어깨나 등줄기, 허리가 결리고 아프며 기운이 없고 성기능도 이전만 같지 않다는 분들이 많다. 혹시나 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 보았지만 이상은 없다. 그렇다면 여름 동안 덥고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쉬면서 땀을 별로 흘리지 않은데다 밤마다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혹은 맥주와 안주를 먹다보니 체중이 불어난 탓으로 볼 수 있다.

체중이 늘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우선 '기(氣)'의 소통이 순조롭지 못하므로 몸이 천 근, 만 근 같이 무거우면서 붓는데, 습한 날씨에는 더욱 심해진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지고 쉽게 피로가 오며 자꾸만 눕고 싶어진다. 비만증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병 등 성인병에 훨씬 잘 걸리게 된다. 지방조직이 늘어난 만큼 심장의 부담이 늘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도 오기 쉽고 담석증도 생기기 쉽다. 무거워진 몸을 지탱하느라 관절과 골격이 과중한 부담을 받아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관절의 노화도 빨리 온다. 또, 남자는 정력이 감퇴되고 여자의 경우는 월경이 줄거나 없어지기도 하며 성감이 떨어지고 불임도 오기 쉽다. 뿐만 아니라 비만 자체가 사망의 주요 위험 인자로서 체중이 3kg 정도 늘어날 때마다 사망 위험이 4% 정도씩 증가한다고 보고됐다. 날씬한 사람, 적게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연구 보고도 많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선천적으로 비만체질을 타고났거나, 고량진미를 많이 먹어 몸속에 습(濕)과 담(痰)이 많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소통이 장애돼 노폐물이 쌓인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눕거나 앉기를 좋아하고 활동을 적게 하는 경우에 기(氣)가 허약해지고 맺혀 습과 담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 중에 식욕이 있으니 다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권태 지루함 우울 등이 있을 경우 오직 먹는데서 즐거움을 찾다보면 살이 찌게 된다.

비만에 나쁜 음식으로는 육류는 물론이고 쌀에 비해 지방 함유량이 훨씬 많은 밀가루 음식이 우선이다. 단 맛은 습기를 조장하고 담을 생기게 하며 몸을 붓게 하므로 설탕 꿀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의 단 음식도 피해야 한다. 과일도 단 맛이 많은 것은 주의해야 한다. 신 맛은 몸에서 무엇이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작용을 나타내어 땀이나 오줌 등이 빠져나가지 못해 몸이 잘 붓고 무거워지므로 식초 귤 레몬 매실 등 신 음식도 주의해야 한다.

비만 치료는 습기와 담을 없애주고 기를 잘 소통시키는 작용을 가진 약재를 써서 대소변과 땀이 잘 나오게 해야 한다. 또한 쓴 맛이나 매운 맛, 혹은 담담한 맛의 약과 음식이라야 몸속의 물질을 잘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밀 오이 양배추 미나리 미역 다시마 칡뿌리 등이 좋다. 소변이 적게 나오고 몸이 잘 붓는다면 율무 팥 옥수수수염이 좋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결명자가 좋다. 대소변이 모두 시원찮게 나온다면 다시마 나팔꽃씨 아욱씨(동규자)가 좋다. 만약 몸이 차가우면서 물살이 많다면 고추 마늘 생강 귤껍질 등을 먹어서 땀이 잘 나게 해야 한다. 특히 고추에는 지방을 연소시키는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 있는데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몸의 대사 기능을 높여 지방의 축적을 막고 또한 이미 축적된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비만인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도 많다. 흔히 먹는 음식 가운데 마늘 파 양파 보리 율무 옥수수 미나리 배추 감잎 등에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입증됐다. 또한 결명자 은행 다시마 연꽃잎 칡뿌리 뽕나무가지 누에 등을 비롯해 많은 한약재들이 효과가 있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1〉

당신은 남을 쫓아 덩달아 뛰고 있지 않은가

한국인들의 종교인 멘토에 관한 조사가 종종 발표되곤 한다. 얼마 전 발표한 종교인 가운데 1위인 사람이 2009년 선종(善終)한 김수환 추기경이다. 추기경이 선종하기 전 병원에서 몇 달 동안의 투병생활이 가끔 언론에 비춰졌는데, 그 당시 그분에 대한 인터뷰가 잊히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80을 넘은 한 생을 산 내가 새삼스럽게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러 남다른 삶을 살게 했는지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다."

노구의 성직자가 읊조렸던 "나는 누구인가?", 몇 년이 지났지만 나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 언구이다. 종교는 다르지만, 인간으로서의 추구하고자 했던 삶의 진정성은 같은가 보다. 간화선에서 화두 가운데 하나인 시심마(是甚麼), '이뭣고'가 곧 '나는 누구인가?'이다. 물론 우리는 그 '나'가 단순히 개개인의 프로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내가 누구인지?', '나'는 생명을 받기 이전의 근원적인 '나'를 의미한다.

인디언들은 이따금 뒤돌아 봐
너무 빨리 달려 영혼이 못올까
영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기가 달려왔던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한다. 자신이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봐,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 영혼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바쁘다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 허둥대는 그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바쁜 사람의 대명사일지도 모른다. 이런 그가 매년 두 번씩 전화나 인터넷, 인편으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두절하고, 1주일 동안 혼자 은둔한다고 한다. 이를 '싱크위크(Think-week)'라고 하는데, 바쁜 생활 속에서도 빌게이츠는 '일단정지'를 실행하고 있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이야기가 떠오른다. 고요한 밀림 숲속에 평화로움만이 가득하다. 토끼가 야자수 나무아래서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야자수 열매가 똑 떨어졌다. 머리에 떨어져 엉겁결에 놀란 토끼는 달아나면서 이렇게 외쳐댔다.

"세상이 무너진다."

이 광경을 본 여우 코끼리 사슴 양 원숭이 다람쥐 등 밀림의 동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디론가 일제히 뛰었다.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다람쥐를 붙잡고 물었다.

"왜 그렇게 모든 동물들이 뛰고 있습니까?"

"왜 뛰는지 나도 모릅니다. 남들이 뛰고 있으니까 나도 무작정 뛰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남들이 걷고 있으니 걸어가고, 타인들이 뛰고 있으니 뛰어간다. 남들이 대학을 들어가니까 목적의식 없이 대학에 입학하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인연의 소중함을 의식치 아니하고 결혼한다.

자신의 주관과 위치, 삶의 진정성을 잊어버리고 마냥 뛰어가고 있다. 자아를 상실한 채 그 잃어버린 상실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현대인들은 채우지 못한 욕망에 찌들려 있고, 삶속에 스트레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신경안정제 약물도, 도박도, 친구도 잠시 동안의 안정을 줄지언정 지속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영원한 행복과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명상이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서 평온을 찾는 것, 내[自我]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자신을 바라봄으로서 좀 더 나은 삶의 길을 찾는 일이다. 바쁜 현대인이 명상을 해야하는 첫째 이유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딱 두 마디였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명상을 하는 두 번째 목적이자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자신밖에 모른다. 아상(我相)으로 인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마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인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임으로서 타인과 하나됨을 시도하는 것이, 명상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이와 같이 명상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아를 살펴보는 것,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더불어 행복된 삶을 발견하는 자리이타의 길을 실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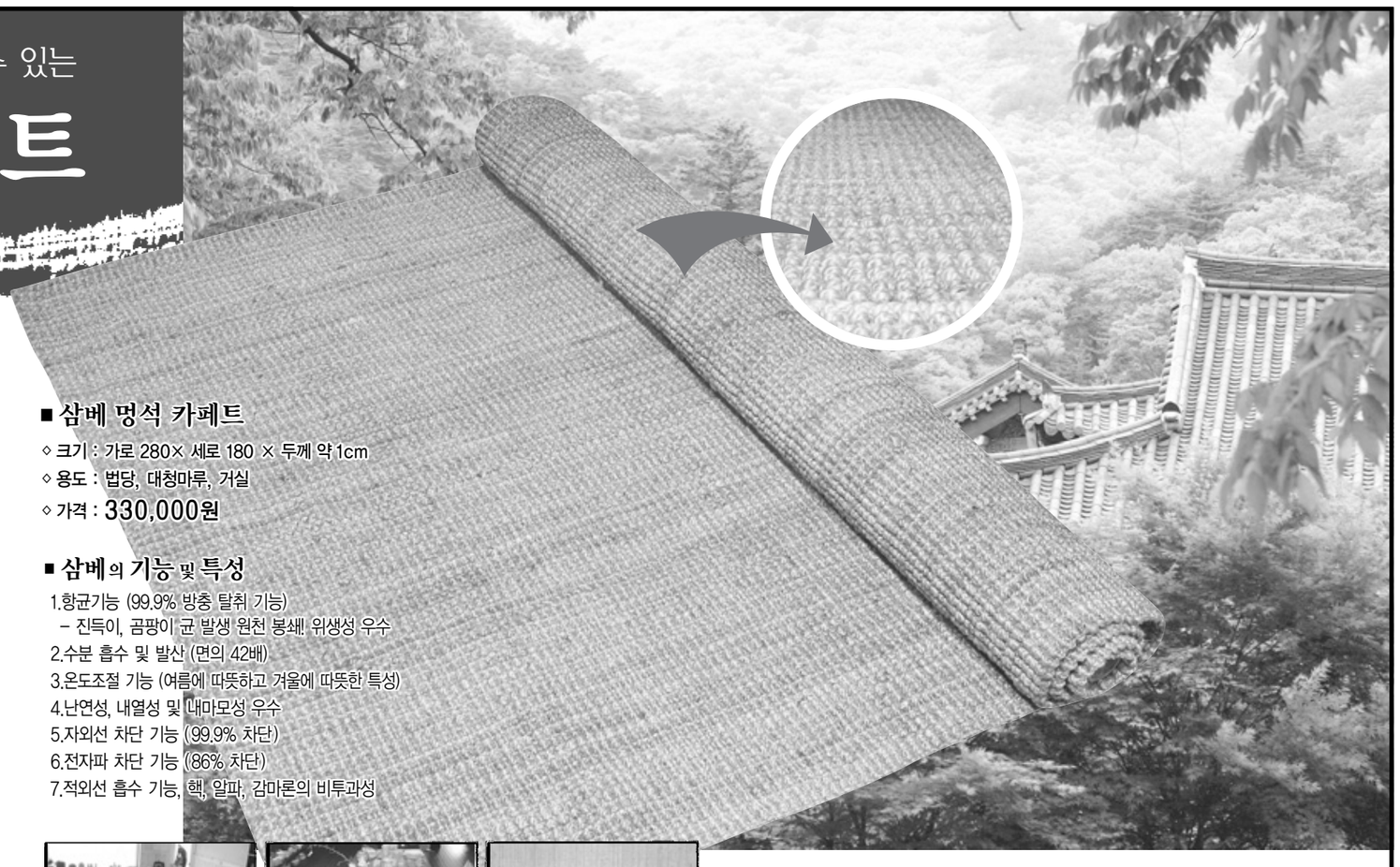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이사 택일, 궁합,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법륜 약명 선생

불자님으로서 병명도 없이
원인모를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내사 혹은 연락주시면 무보시 치료함.
1. 神으로 고통받는 분!
2. 우울증, 정신병, 전문치료
054)338-5353. 336-2828
011-814-6677 (법륜스님)

각종 천도재 집전해 드립니다

011-9370-4043
청산스님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뻔헷 치유요법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수년간 피공, 뻔헷 치유요법사 스님
- 병원에서 못고치는 불치병
- 병명없이 고통 받는분
불사에 도움 주시면
어디라도 출장 가능함
010-5509-7696
월정 토굴 스님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불교단체 양도
종단 양도
우리불교 법인
대승불교법인
011-412-8040
법 광

문화센터 역학강의

▶개 강 : 10 월 5일
(매주 수요일 1시~3시)
▶수강료 : 3개월 45,000원
▶교 제 : 사주첩경
▶장 소 : 양천구 목5동 문화센터
010-5110-1588

염불 • 역학

1달 속성완성
승려가
개인지도
011-716-3811

경북 청도 약초골 알프스

원룸식 신축건물
암 회복중, 당뇨, 혈압 있으신 분.
공기좋고 물좋은 곳에서
많은 체험 하고 감. 선착순
용호산 달마선원
010-5875-4788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신중탱화 불사안내

저는 불법포교에 대원력을
가지고 2년전에 도심속에
포교당을 개설하여 지극히 염불기
도로 정진하는 풀잎같은
소승입니다. 일백사위 신중탱화를
봉안하고자 애틋한 마음으로
신중탱화 불사인연을 기다립니다.
032)655-4133

사찰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강원도 삼척
010-9416-7743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이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오만한 마음,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보 왕 삼 매 론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 (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1-545-5060

아주 특수한 기도법

• 때를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서 잡아라
☎ 032)664-0048 / 011-741-0867

사찰 운영하실 분

사찰관리하시면서 노스님
시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60세 이상)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전북 김제
063)543-5551
010-4427-2256

오랫동안 있을곳 찾습니다.

사주명리, 명상치유,
빙의령치유, 기치유등
방편력 보유
▷52세, 비구
010-4876-10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5세 미만)
제주 서귀포 한라산
자비도량 정방사

행자 모집

▷부여 미암사
011-424-5555

사 찰 건 축 전 문

▶ 평생 단 한번의 중요한 일
▶ 불사(佛事)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실행한다면
사찰 內 도량(道場)은 빛날 것입니다.
人 安 고 건 축
031)637-8886 / 063)643-1373

양파엑기스 1박스(50개) 판매가 3만원, 2박스 5만원

효능 : 혈당낮춤, 고지혈증, 혈소판응집억제, 거담, 합심증, 이뇨작용, 피로회복, 혈액순환촉진작용, 알콜해독, 아토피살균작용, 소화촉진, 해열, 진해, 관상동맥확장작용, 항콜레스테롤(콜레스테롤 상승 억제작용), 방부작용, 항암작용, 고혈압, 불면증, 항혈전, 당뇨병, 만성폐병, 괴혈병, 피부질환, 백내장예방, 신경질환, 신체허약, 주름살, 탈모증, 기관지염, 코감기, 건위, 피부병, 궤양성 피부염, 발모촉진, 장무력증, 장염, 이뇨, 빈혈, 소화촉진, 두통완화, 감기, 후두염, 죽상경화증, 관상심장질환, 천식, 기침, 비타민결핍증, 창상, 궤양, 부인질병, 트리코모나스질염, 설사, 변비, 동맥경화, 기억력향상, 대장염에 효험

부처골 지장선원에서는 양파엑기스를 노란껍질속에 퀘르세진성분(고지방분해)
함유를 보존하기위해 껍질채 내렸습니다 (배살이 빠집니다)

보급처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지장선원 054)383-8553. 011-9585-4908
농협 703088-51-013554 지장선원 www.jijansw.com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천년고찰
011-527-0637

불공해 드립니다

스님의 계시지 않거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절에서
소승을 부르시면 낮은 자세로
어디든지 달려가
각종 천도 구병시식 및
법회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2)655-4133

빙의 · 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에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sw.com)


30년 빙의치료 대가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 원 역 리 학 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통 증 제 거 기 술 교 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불공해 드립니다

스님의 계시지 않거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절에서
소승을 부르시면 낮은 자세로
어디든지 달려가
각종 천도 구병시식 및
법회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2)655-4133

승복 · 전통복식 31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 · 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고 (古) 건 물 수 리 전 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알라딘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이상3종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500만원
- 효사육임강의CD100개 정가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80평
- 부지 : 3,000평
- 가액 : 16억
- 즉시법회가능함

- 위 치 : 경남
- 법 당 : 25평
- 요 사 : 70평
- 부 지 : 1,000평
- 가 액 : 8억

- 위 치 : 경기외곽
- 법 당 : 30평
- 요 사 : 100평
- 부 지 : 2,500평
- 가 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울산 근교 아름다운 사찰

- 총부지: 2,400평(100%평지)
- 법당 및 요사 50평
- 산세, 계곡물 최고,
  주차장 200평
- 총금액: 6억 8천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10평
- 법당 3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25평
- 부산의 주산 금정산 솔밭 자락
- 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 010-9006-5619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포교원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 1개 (친견실), 주방
- 평수 : 40평
- 전세금: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주세요)

010-7533-4488

임법당(토굴)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 대지 약 150평
- 건물 2동, 방 3개, 삼존불 모심
- 시설집기일체
- 총가액: 5500만원

010-9545-944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 대지 150평, 전 170평, 건물 18평
  (조립식 심야전기)
- 특징: 산세수려 산 아래 마을 끝 제일 높은 곳
- 바다보임, 교통편리, 마당 차량진입 가능
- 비구니 스님 수행처 적합
- 가액: 9000만원

054)787-2697

아담한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
- 총 약 200평, 실용가능 면적 약 400평
- 토굴內아파트식으로 올수리
  (방2개, 넓은거실겸 부엌, 욕실, 붙박이장)
- 창고, 토굴앞 텃밭, 비닐하우스2동, 주차장
  산자락끝에 위치하며 앞으로는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자리토굴비어 있어 즉시 입주 가능
- 가액: 6천 5백만원

054)457-4367
010-7163-08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 임야 2만 3천 6백평
- 도량터, 약 1천평
- 현재 임법당 사용중
- 건물 조립식판넬(약 30평)
- 물소리 졸졸 납니다
- 현재 불사중
- 가액: 2억 4천만원

010-2055-8506

암 자 안 내

- 위치 :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599번지
- 평수 : 300평
- 요사채 기와 20평
- 기와 법당 15평
- 가액: 6억 (가격절충)

011-846-1682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현풍면
- 건물 62평
- 법당 30평
- 공양간20평,방2,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053)611-2929
010-5040-2727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875-6305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논 400평
- 4800만원
- 법당20평, 요사40평,총12,000평
- 1년 5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1-9393-4965

포교원안내

- 위치: 부평 시장입구
- 4층 건물 3층, 10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200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관계는 상담 후 결정

032)519-110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100평, 삼존불, 방4, 창고
- 월세 5만원
- 몸만오시면 됨
- 시설비 : 4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1-7476-9002

포교원안내

- 위치 : 구미역에서 3분거리 시장옆
- 단독주택 60평중에서 건평 35평,
- 방3, 주방, 거실, 화장실2개,
  안방 화장실 별도
- 생활편리,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300만원(절충가)

010-4080-8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임법당
- 평수 120평
- 당일집전가능, 전망좋음,
  주차장 넓음
- 가액: 전세 3500만원

010-7270-3425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
- 평수 25평, 2층
- 모든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시설 A급, 몸만 들어오면 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70-4078-9042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시장
- 단층. 27평 . 살기 편함, 깨끗
- 비구니 스님, 보살님
- 방2, 법당 10평, 입구 일주문과 대문
- 2500만원 전세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NO

031)641-1159
017-253-6892

전원토굴(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연화산IC에서 3분거리
- 평수: 110평 텃밭 약간
- 건평 1~2층 65평 건평 3년
- 심야전기보일러, 멋진토굴
- 법사, 보살, 비구니스님 적격
- 도보 2분거리(시장, 면사무소, 농협)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융자 4500포함)
- 전세도 가능 (6500만원)

010-7490-505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혁신도시 시내근접
- 대지 180평, 전체사용면적 약 300평
- 삼존불, 지장, 관음, 약사, 108소불
- 수미단, 영단, 청전운각, 건물단청
- 법당, 종무소: 20명씩 2층건물 1동
- 요사채, 공양간 : 30명씩 2층건물 1동
- 마을내 산아래 조용하고 깨끗한 도량
- 가액: 2억 2천만원(융자 1억 포함)

010-7144-0066

사찰, 전원주택 터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 제천시에서 15분
- 전기, 수도, 조경 토목 완료
- 산세 경관 수려
- 대지, 임야 포함 4100평

010-5292-10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근교)
- 법당 35평, 방2, 주방 ,화장실
- 시설완비,(법회즉시가능)
- 삼존불,불보살8분모심
- 공양간은 법당과 분리되어 있음
- 실내 시설자재는 목재로 사용
- 보증금 500만원,월45만원
- 설비 1100만원

011-518-13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중구 동인동
- 5층건물 3층
- 사용총평수 53평
- 법당 20평,
- 석가삼존불,지장,칠성,신중
- 방2, 주방,거실
- 보증금1천만원,월50만원
- 시설비는 답사후 상담결정

010-2520-8263

명 당 절 터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대지 537평,
- 임야 568평
- 가액: 1억 3천 2백만원
- 지하수 수질 최고

016-849-385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 부지 : 3000평
- 법당 : 35평
- 전각다수
- 가액 : 35억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5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장호원시장
- 단층. 27평 . 살기 편함, 깨끗
- 비구니 스님, 보살님
- 방2, 법당 10평, 입구 일주문과 대문
- 2500만원 전세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NO

031)641-1159
017-253-68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토 굴 안 내

- 위치 :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비산비야 지대
- 부지: 대지 198평, 전답 2056평, 임야 2938평
- 건물: 현대식 30평 2채, 방8개, 큰주방 1개
- 방5개는 취사실, 화장실 병설 곳간 1개
- 환경: 춘양시장 2km반, 풍수학적으로 동향이고
  좌청룡 우백호 뚜렷, 주변 조용 인근무
- 가액: 2억 4천만원 예정 . 꼭 하실 분 전화요망

010-3875-71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지하철 출구 앞
- 4층에 3층, 법당 4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부처님 삼불 청동, 시설완비
- 즉시법회가능

010-8126-1525

새롭게 꾸며진 법당으로 포교에 원력을 갖고 개원하실 비구니스님, 보살님 환영합니다

- 위치 : 대구시 비산동 서문시장지구
- 2층건물중 2층 (약 40평)
- 법당 주방 다용도실 욕실
- CCTV 등 보안시설 갖춤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9378-5543

전원주택 및 토굴 안내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500만원(전세가능)

010-3337-9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직동
- 평수: 25평
- 전세 500만원 월 30만원
- 비품대: 상담후 절충가능

010-3866-5928

사찰명당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총평수 637평
- 전건축물목조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 4평
- 청돌암반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 CC카메라시설, 사찰경내지계곡물흐름 ,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고속도로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순수한 개인소유 사찰,
- 가액: 5억(조정가능)•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6375-01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방주 빌딩 2층
- 법당 :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 방3개, 주방, 해우소1개
- 평수 : 45평
- 보증금 1천3백만원,월100만원
  시설비 5천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62-33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에어컨 2대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2천만원중 조금만

010-4099-8458

서울근교사찰

- 위치 : 서울 30분거리 남양주
  오남 신도시 지역
- 30만 신도시 불교 불모지
- 호수가 언덕 아늑한 곳
- 토지 500평, 법당 30평, 요사채 70평
  서별당 20평(가건물)
- 종교법인등록 완비
- 비구니 스님에 한함, 무속스님 불허
- 양도 동창금 3천만원

010-6600-1377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908-1
- 관리지역 •논 400평
- 4800만원
- 법당20평, 요사40평,총12,000평
- 1년 500만원
- 연곡사와 화엄사 중간 문수골
- 정남향

011-9393-4965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 중간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 1017평, 남향
- 해인사 뒤편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1800만원

011-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
- 전답 805평, 건물 법당
  요사채 합쳐서 약50평,
- 산신각 약5평, 용왕당 약2평,
- 가액: 40만원

010-8034-8309
010-9707-8309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부평 시장입구
- 4층 건물 3층, 10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200만원,
  월 120만원
  시설비 관계는 상담 후 결정

032)519-1108

사 찰 적 합 주 택

- 위치 : 지리산 문수사 옆
- 대지 175평, 임야 225평, 집2채
-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찰로 아주 적합
- 경치 최고
- 가액: 3억

010-3615-6668

암자겸 주택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37번 국도변 삼거리
-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전망이
- 시원하게 펼쳐진 명당자리
- 대지 257평, 건물(별채까지)45평
- 텃밭, 마당 넓음
- 가액: 5억 전세 가능
- 같이 하실분 환영, 사주카페, 요양원가능

031)775-2631
010-4234-2536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100평, 건물52평
- 법당, 요사채, 방2,
  산신각, 주방, 마당,
  포장완료
- 가액 : 1억 2천만원

010-4531- 32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 2층 30평가량
- 최고위치, 최고시설
- 삼존불, 맞춤탱화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055)277-0146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양도가액 : 2억(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요양시설, 팬션, 식품공장 터

- 위치: 경남 합천군(대구에서 40분거리)
- 총평수:3500평(계획관리지역임)
- 합천호인접 계곡경관 수려한 지역
- 경내동굴있음(폭,넓이 180센치,
  길이 350미터),포장도로와 동력전기 설치
- 요양시설, 팬션,식품공장등..운영
  기타 건축허가가능 지역임
- 가액 2억 5천만원(조정가능)

011-848-2452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온갖것에 대해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훗날 마음이 편안하여 마침내 근심이 없어진다. - 화엄경 -

둘 중 하나가 끝을 봐야한다고 말한 건 너 였다

수리아의 검-Ⅳ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7)

나크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정령이었다. 아주 오래 전 인간이었을 때부터 '말'에 푹 빠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오로지 언어에만 몰두하다 결국 정령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우주의 언어까지 다 익혀서 하지 못하는 언어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바로 이 취미가 난다가 그를 불러낸 이유였던 것이다.

"그럼 저희를 도와주실 건가요?"

난다는 공손한 말투로 물었다. 나크는 난다의 말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다시 "흠"하는 소리를 내고는 귀를 만지작거렸다. 아마 버릇인 듯 했다.

"어찌되었든 기왕에 날 불러냈으니, 도와주기로 하지. 나도 차크라발라는 정말 오랜만이거든."

난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나크는 통역을 부탁받을 경우, 보통 몸을 완전히 투명하게 만든 다음 부탁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번에도 나크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무니와 난다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들이 어디에, 왜 갇혀 있는 지도 대신 물어봐 주었다. 대답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방 밖에 있어서인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꽤 길게 이어졌다.

"밖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 저 영감보다 더 많아?"

무니가 말했다. 난다도 그렇게 느꼈지만, 대화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간간이 들려오는 사람의 목소리는 꽤 친절한 거 같았다. 딱딱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천천히 사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도 한참이 지나서야 차크라발라 사람이 뒤돌아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점점 희미해져갔다. 나크는 무니와 난다를 흘깃 쳐다보더니, 또 다시 "흠"하는 소리와 함께 귀를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거, 참. 차크라발라에 그런 일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삽화 · 김흥인

무니가 참지 못하고 영감한테 대뜸 질문을 던졌다. 눈을 감고 있던 나크가 번뜩 눈을 뜨더니 무니를 노려봤다. 그러자 투명한 몸이 조금 일그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저, 저 버릇없는 녀석!"

난다가 무니의 등을 찰싹하고 내려치며 나크를 향해 겸연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좋을 게 없었다.

"죄송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니와 난다를 번갈아 쳐다보던 나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살인 사건이 있었다지 뭐냐! 살인 사건이 말이야."

무니와 난다는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칸타카 역시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꼬리를 불안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한편, 흔돈의 대양 위에서는 거대한 뱀 아난타의 머리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로로 길게 모여 있던 천 쌍의 눈동자들은 뭔가를 경계하듯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보다 날카롭게 번뜩였다. 크리슈나의 머리맡에 있던 금색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춘 상태였고, 가루다는 언제나처럼 멀찍이서 하늘을 배회하고 있었다. 아난타를 움직이게 한 건 크리슈나의 변화였다. 그의 속눈썹이 가볍게 떨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무슨 말이라도 나올 것처럼 입술도 달싹거렸다. 아난타는 자신의 주인이 수면기에서 깨어나는 순간임을 직감했다. 그들을 감싸듯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역시 그가 눈을 뜨려나보구나. 아무래도 뭔가 변화가 느껴졌겠지."

눈의 산에서 내려온 노인이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아샹티는 귀를 쫑긋했다.

"그나저나 우선 비 피할 곳을 찾아야할 텐데"

노인은 걱정스럽다는 듯 아샹티를 쳐다보다 자신이 걷던 거리를 둘러봤다. 이곳은 캄포가 다스리는 잠부의 중심지로,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왕이라니.' 그가 예전에 이곳에 머무를 당시엔 그런 단어가 있지도 않았었다. 이때, 그의 옆으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발을 맞춰 걸으며 지나쳐갔다. 복장까지 모두 똑같은 걸로 맞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도대체 칼키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군대들이 아직도 저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이상한 소문이 떠도니 겁을 주려는 게지." "하긴 죽었다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니, 인간에겐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 "듣자하니 캄포왕이 루드라의 신탁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도 칼키 때문이라더군." "그럼 그 소문이 진짜였던 말인가?"노인은 그들의 대화가 재미있다는 듯 점점 그들에게 다가가다 그만 그 중 한 명의 발을 밟고 말았다.

"어이쿠. 미안하게 됐네."

"아닙니다. 어르신."

화를 내려던 남자가 노인의 얼굴을 보고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런데 칼키라는 아이가 바로 얼음의 성에서 살아나온 그 아이를 말하는 겐가?"

"얼음의 성이요?"

남자는 되물었다.

"아. 아닐세, 아니야. 아무튼 그 아이가 행방불명이라도 된 모양이로구먼."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캄포왕이 루드라의 신탁을 더 듣지 못한다는 소문은 이미 많이 퍼진 상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르신."

노인은 "그렇구만. 잘 알겠네"라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가던 길로 뒤돌아 걸어갔다. 노인과 그 남자의 대화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남자가 말했다.

"자네 저 영감하고 아는 사이라도 되는가?"

"아니."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뭘 그리 공손하게 구는 거지? 발을 밟히지 않았나?"

"글쎄, 저절로 그렇게 되던걸. 워낙에 키가 크고 근엄해 보이는 얼굴이지 않았나. 아마도 귀족네 노인일 지도 모르고 말이야."

"자네,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야?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저렇게 작고 볼품없는 노인네를 보고, 귀족 같다고?"

그 말에 남자는 '응?' 하며 다시 노인이 걸어간 방향 쪽을 쳐다봤다. 그러나 역시 그는 크고 위엄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친구를 쳐다보고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순간, 빗방울이 그의 얼굴 위로 똑하고 떨어졌다.

비는 금방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리는 순식간에 한산해졌고 주위는 저녁시간이라도 된 듯 어둑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번쩍하더니 백색 섬광이 하늘을 가르며 번쩍했다. 그러나 뒤이어 들려야 할 천둥소리는 한참이 있어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천둥소리에 대비해 막고 있던 귀에서 손을 떼며 창밖을 바라봤다. 천둥소리 대신 또다시 번개가 번쩍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란 듯 다시 귀를 막았다.

지상이 비와 번개로 정신없는 그 순간 하늘의 가장 높은 부분, 정확히 비데하의 중심지 위에 위치한 크리슈나의 신전에선 결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테드모와 크리슈나 신전을 지키고 있던 반두의 대결이었다. 테드모의 검과 반두의 창이 부딪힐 때마다 크고 작은 섬광이 그들 사이를 갈랐다. 지상에서 마치 번개처럼 보이던 바로 그것이었다. 비 대신 안개로 가득한 신전에는 두 사람의 무기가 쏟아내는 빛만이 번쩍번쩍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실력은 막상막하였다. 공격은 힘차고 신속하게 이어졌고, 그에 따른 방어도 마찬가지였다.

"싸우러 온 게 아니다."

테드모가 아까부터 반복했던 말이었다. 세 번의 방어와 공격이 끝난 다음이었다.

그러나 반두는 "흥!" 하고 콧방귀를 끼더니, 방어가 끝나자마자 공격을 감행했다. 창에서 뻗어 나온 반원형의 섬광이 테드모의 어깨 쪽으로 뻗어갔다. 테드모는 재빨리 공격을 피한 후, 공중으로 번쩍 뛰어오르며 말했다.

"나가세나님이 눈의 산에 나타났다는 말을 하러 온 것이란 말이다."

반두 역시 테드모를 따라 공중으로 몸을 날리다 깜짝 놀라 멈췄다.

"뭐라고? 나가세나님이?"

"그렇다."

테드모는 대답과 동시에 어깨 부분의 통증을 느꼈다. 공격을 제대로 피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 지금도 눈의 산에 계신다는 말인가. 아니, 도대체 왜?"

테드모는 서서히 심해지는 고통에 어깨를 부여잡고는 바닥으로 내려왔다.

"대답해라. 나가세나가 왜 루드라님의 영역에 가신 계지? 무슨 음모라도 꾸미는 것 아닌 가?"

"무슨 말을! 루드라님이 신전을 비우고 계시다는 걸 뻔히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라."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필이면 크리슈나님이 수면기에서 깨어나시는 이런 중요하고도 위험한 순간에 나가세나님이 루드라님의 성지에 가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지?"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난 두 분 중에 누구든 일단 그 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친히 알려주러 온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 나에게 할 짓인가. 평화와 유지 어쩌구 하는 게 죄다 헛소리라는 걸 직접 보여 주는구나!"

테드모는 부상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반두는 그런 테드모를 어찌해야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와 내가 다시 만나면 둘 중의 하나가 끝을 봐야 한다고 말한 건 너였다. 내가 변명할 이유는 없지만. 네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아닌가. 끝을 보는 것!"

854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 3 2-1522
FAX 02) 737-0696

임 법 당 안 내
- 위치: 강릉시 사천 해수욕장 뒤 (낮은동산숲속)
- 최고의 위치,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
- 사용대지 약 200평, 야채밭 약 80평 (1년 도지 20만원)
- 법당외 방 4개, 화장실2, 목욕탕1
-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 일체
- 양도가액: 4350만원

010-2461-3014

사찰 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경관좋은 사찰, 토굴터
- 위치: 경남 합천읍 용계리 읍내에서 차로 10~15분 거리
- 토목 완료한 전 793평 남동향, 시멘트 포장도로 접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경관
- 만대산 7부능선, 도로와 장래성
- 가액: 3,900만원

010-9367-10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4층건물 중 2층 약 40평
- 방3개, 주방, 화장실
- 아미타, 관세음 대세지, 지장, 소불 250불
- 산신, 용왕, 신장, 칠성탱화, 인등 108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 A급 시설비 2천만원

010-7550-9797

도심속의 산속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국유지) 30년 전통
- 법당, 산신각, 용왕당, 공양간 등
- 사용평수 약 150평
- 바윗 속 약수 나옴
- 시설 집기류 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8500만원(조절가)

011-575-9707

66년 된 토굴(무허가)
- 위치 : 부산
- 법당1동,공양간1동,
- 요사채 1동 , 산신각
- 나한적 각 1동
- 가액: 1억 5천만원

※법당에 약물 나오는 용궁 있음

010-7309-73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공업 로터리 부근
- 10층 빌딩의 3층
- 평수 54평
-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조양동
- 총평수 : 880평, 대지 380평
- 법당 목조 18평
- 요사채 40평, (콘크리트건물), 종각1개 약 1평
- 심야전기보일러 CCTV 설치되어 있음
- 가액: 4억 5천만원

010-3112-3513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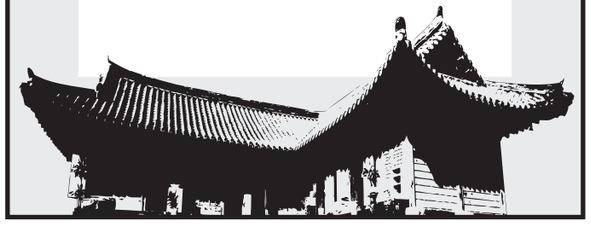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백화수각(白花水閣)

고시조집인 〈해동가요(海東歌謠)〉와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전하는 다정가(多情歌)라고 불리우는 시조가 있다. 고려말 예문관대제학을 지낸 이조년(李兆年)이 지었는데, 시조 가운데서도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시조 가운데 하나이다. 시조는 다음과 같다.

"이화(梨花)에 월백(月白) 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두견새)야 알랴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야/ 잠 못 들어 하노라."

이 시조가 뛰어난 점은 시각적, 청각적 대비의 효과를 최대한 이끈 점이다. 특히 배꽃과 흰 달빛, 은하수의 세 가지 흰색을 강렬히 표현한 점은,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 뛰어난 관점을 보이고 있다.

1963년 5월 29일자, 동아일보에는 관동기행(關東紀行)이라는 글이 실렸다. 당시 논설위원이었던 홍승면이 서양화가 윤중식과 함께 영동지방을 여행한 기록인데, 낙산사 홍예문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좌우가 모두 과수원으로 배나무 숲에 배꽃이 가득하다고 쓰여 있다.

양양에선 여러 과수원들에서 낙산돌배를 키우고 있는데, 1915년에 당시 낙산사 주지가 가장 오래된 배나무에서 씨를 받아 개량해서 심은 낙산돌배 시조목이 홍예문앞에 살고 있어서, 조선 성종 때 주요과수로 지정되어 나라에 돌배를 진상했다는 기록을 살아서 증명하고 있다.

낙산사 창건주인 의상(義湘)스님은 중국 화엄종 제2조 지엄화상(智儼和尙)의 문하에서 화엄학을 배워 670년 귀국해 낙산사 홍련암에서 지내면서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을 쓰고,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기 위해 간절한 발원을 드렸다.

의상 대사의 관음신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글은 총 261자로 된 간결한 명문(名文)으로, 화엄사상과 정토신앙의 진수를 보여주고 관세음에 대한 귀의와 가피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들의 본사이신 백화도량 관세음께 / 머리 숙여 조아리며 지성귀의 하옵니다.
저 하늘의 밝은 달이 온누리를 비추면서 / 강물마다 그림자를 남김없이 나투듯이
집착해도 언젠가는 부질없이 사라지니 / 지은 대로 받는 과보 의지하여 사는 세상
-중략(中略)-
온갖 공포 여의고서 몸과 마음 안락하며 / 찰나사이 거룩하온 백화도량 왕생하여."

발원문을 보면 백화도량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 그러면, 이 백화(白花), 즉 흰 꽃은 도대체



낙산사 사천왕문 앞에 있는 백화수각

백화는 '배 꽃'을 의미해
팔만대장경도 돌배나무

어떤 꽃이었을까? 낙산사에 성종 때 이미 돌배나무 과수원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이미 돌배나무가 무성했다는 추론을 가정해 보았을 때, 세상의 꽃들 중에서 가장 하얀 꽃중 하나인 배꽃일 가능성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해인사 팔만대장경 목판 팔만여장의 대부분이 산벚나무와 돌배나무로 만든 것이다. 낙산사 돌배는 이렇게 불연(佛緣)이 깊다. 물론 목판본중에 백화도량발원문도 들어있다.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석련지(石蓮池)라는 국보 제64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석조물인 수각(水閣, 물마시는 곳)이 아직도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다. 상당히 부서진 상태라 쇠로 만든 꺽쇠로 지탱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물을 담아 연꽃을 띄워 두었다고 한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낙산사 법주 정념 스님을 시봉하며 불사를 수행하면서 사천왕문 앞에 있는 백화수각을 디자인한 바 있다. 전서(篆書)의 꽃 화자(花字)를 형상화해서 만들었다. 동해바다, 삼족섬, 교룡, 청룡 등 문양을 넣고, 팔정도와 삼법인 등을 의미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조각은 석장인 권영진 씨가 하고, 익산 황등의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발군의 솜씨를 보여주어 무척 뛰어난 작품을 만들었다. 낙산사에 가시면, 꼭 감로수 한 잔을 드시길 바란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또 한 번 계절이 바뀌려 한다. 다한 계절은 새들이 날아간 길처럼 사라져가고, 다가오는 계절은 그리운 사람의 이름처럼 멀고도 가깝다. 멀어져 가는 것과 다가오는 것 사이에서 고단한 걸음은 또 한 번 길을 잃는다. 뜨거운 시 한 줄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람으로 눈물을 닦아내도 길은 없는, 가을이다.

'이 가을 저녁,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싸〉. 일본의 한 줄짜리 시(하이쿠)다. 인간으로 태어나 길을 잃고,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로 살아야 하는 이 가을. 산사의 숲은 점점 헐거워지고, 산새는 숲에 맞춰 울기 시작했다. 어찌해야 할까. 숲도 산새도 갈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누구의 것인지. 댓돌 위의 고무신은 쉽게 길을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누구도 이 가을을 쉽게 나서지 못하리.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월봉책헌 선사의 '유거(幽居)'

상에 매이지 않고 집착함 없이

久住烟霞裏 (구주연하리)
咱蔬世味輕 (담소세미경)
床寒知霧濕 (상한지무습)
庭滑認苔生 (정활인태생)
峰月臨軒白 (봉월림헌백)
山泉入戶鳴 (산천입호명)
幽居雖不貴 (유거수불귀)
只欲便韜名 (지욕변도명)

오랫동안 안개 노을 속에 살며
푸성귀 먹음에 세상의 맛 대수롭잖네.
침상이 차가우니 안개가 축축함을 알겠고
뜰이 미끄러우니 이끼가 돋은 줄 알아보겠네.
봉우리 달 창에 다다라 밝고
산골짝 샘물 문에 들어와 우네.
숨어사는 삶 비록 귀히 여길 것 못되나
단지 문득 이름을 숨기고자 한 뿐이라네.

월봉책헌(月峯策憲; 1624~?) 스님의 산속 깊이 머물러 사는 일상과 그 뜻을 펴 보인 시이다. 수행자의 기본적 삶의 공간인 산수 자연 간에서 나물밥을 먹고 살다보면 자연히 세상의 기름진 음식이 오히려 입에 맞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음식 맛뿐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미로 여기는 것들이 모두 심상(尋常)해 지기 마련이다.

그윽이 숨어사는 맛은 어떠할까. 그 맛을 스님은 촉각과 시각, 청각을 동원하여 대구로 묘사해 냈다. 스님의 일상은 한기 드는 잠자리와 미끄러운 뜰에서 계절을 느낀다. 한(寒)과 활(滑)의 형용사는 피부로 느끼는(觸) 계절의 변화를 실감나게 보여줬다. 한밤, 창에 비치는 달빛과 산을 울리는 샘물소리는 집안까지 들어온다. 소리가 몰고 오는 고요한 정적은 달빛의 청량함과 더불어 극대화 된다. 스님이 이렇게 유거하는 이유는 허망하게 이름에 집착하는 상(相)에서 벗어나고자 함이다. 한계지어지고 자신의 의미 부여가 이루어지는 이름이라는 상(相)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세상의 재미가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몰자미(沒滋味)한 수행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름은 이미 이분법적인 사고의 시작이다. 우리가 만든 이름의 굴레 속에 혹 나를 가둬 두고 오늘도 맹목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는 돌아보게 한다.



원법 스님(운문사 · 문학박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대행 스님

부처는 각자 마음에 있는 거지 어떤 형상에 있는 게 아니다

굳이 마음도리를 알아야 하나요?

문) 살다 보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마음이 더 착하고 평화롭게 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이 마음도리를 알아야 할까요?

답) 이러한 마음공부는 이 세상에서 돈을 산더미같이 갖다 주고도 그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만난 것도 역시 천세의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 그런 인연을 뭐라고 비유했느냐 하면 아주 깊은 바다 속에서 거북이가 천 년을 공부하다가 한 번 물 위로 뚝 뜰 때 그 구멍 뚫린 뗏목 하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금방 거북이가 뜨는데 뗏목이 별안간에 어디서 납니까? 허허바다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공부 인연이 이렇게 뗏목 만난 거나 똑같은 얘깁니다.

이런 인연을 그냥 저버리고 몸을 벗는다면, 이 도리를 모르고 그 차원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간다면 그 의식 자체만 있어 가지고 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까치둥우리도 이 부부지간에, 즉 말하자면 음과 양이 한데 합쳐서 벌레든지 새든지 구렁이든지 뭐 어떤 거든지 둘이 잠자리할 때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태어나면, 뱀의 잠자리에 들어가면 뱀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소가 그럴 때 들어가면 소 모습을 타고 나는데, 한 번 소가 되거나 뱀이 되거나 까치가 되거나 새가 된다거나 저 물고기가 된다거나 이러면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습이 거기 자꾸 붙어서, 자식이다 무슨 어미다, 이렇게 해서 착이 붙어 가지고 영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 되기가 어려운 까닭에 사람이 됐으면 좀더 마음의 세계로 승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쫓기고 쫓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던 그 습에 젖어 가지고 벗어날 줄 모르는 거죠. 그래 인간까지 벗어났으면 위로 상세계의 그 내 마음의 세계로, 자유스러운 세계로 이렇게 좀더 승진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중세계입니다.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마음의 세계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이러는 교차로가 중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생물에서까지, 저 식물에서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성물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천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게 전부 종합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종합되어 있는 그 여여함. 갖춰 가지고 있는 그 여여함.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면 그 모두를 어떻게 연구해서 지금 이 세계가 발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발전이 됐는데도 모든 큰 무기를, 핵폭탄이나 또는 수소폭탄을 만들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해 놨지 살리는 데에 쓰려고 해 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모든 게 우리가 살기 좋아진 것은 컴퓨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이런 공부를 하면 컴퓨터도 나를 감지 못합니다. 탐지기도 나를 감지 못해요. 자유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탐지기가 바로 난데 무슨 뭐를 전망합니까? 컴퓨터가 난데 무슨 업보가 거기 입력이 되어 있겠습니까? 또는 천체망원경이 난데 망원경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망원경은 한계가 있는 거지만 내 심안의 망원경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보배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 된 거는 자석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지만, 물론 자석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죠. 자석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장치만 해 놓는다면 차가 그냥 공중으로 떠다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를 떠나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이 자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주 천하를 그냥 탐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력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거를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무 끝의 이파리 같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얼마나 붙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데만 급급해서 하루 버는 것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한 번 생각에 자력의 능력으로 그냥 끌어오는 거하고 내 몸뚱이가 쫓아다니면서 한푼 한푼 버는 거하고는 참 다릅니다. 그러기에 황소걸음은 한 발을 떼도 황소걸음이지만, 졸개 걸음은 백 번을 떼도 황소걸음 한 발 걷는 것만은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이 도리를 알아야 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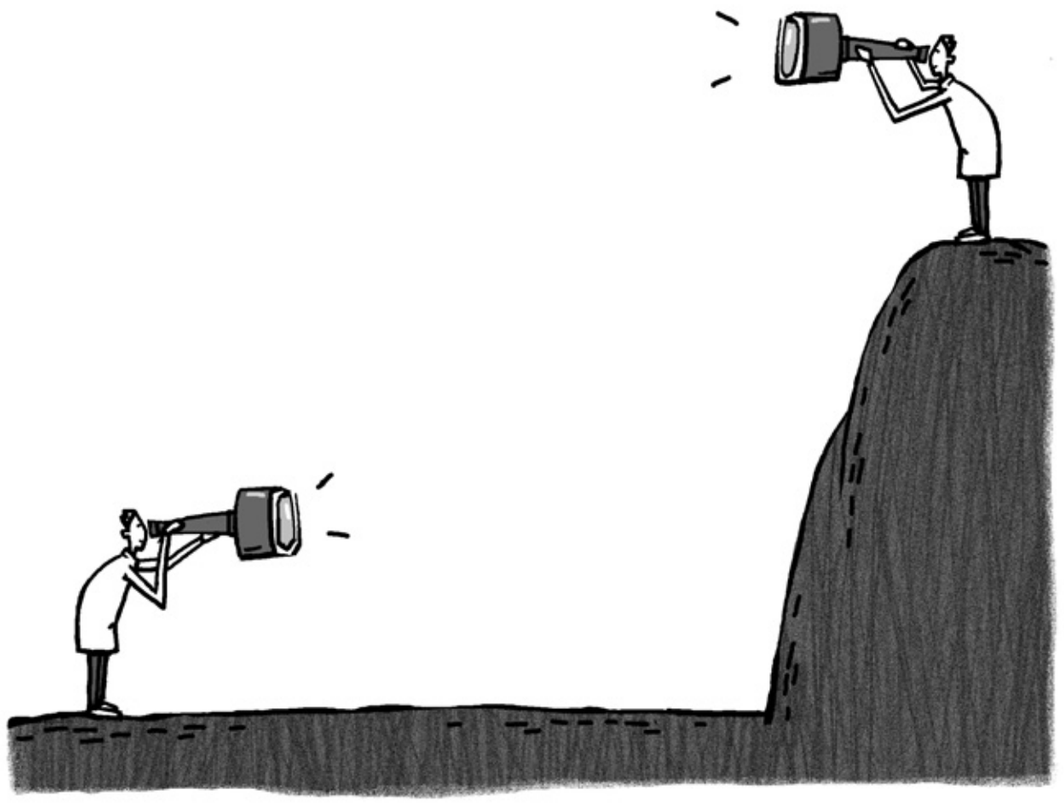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점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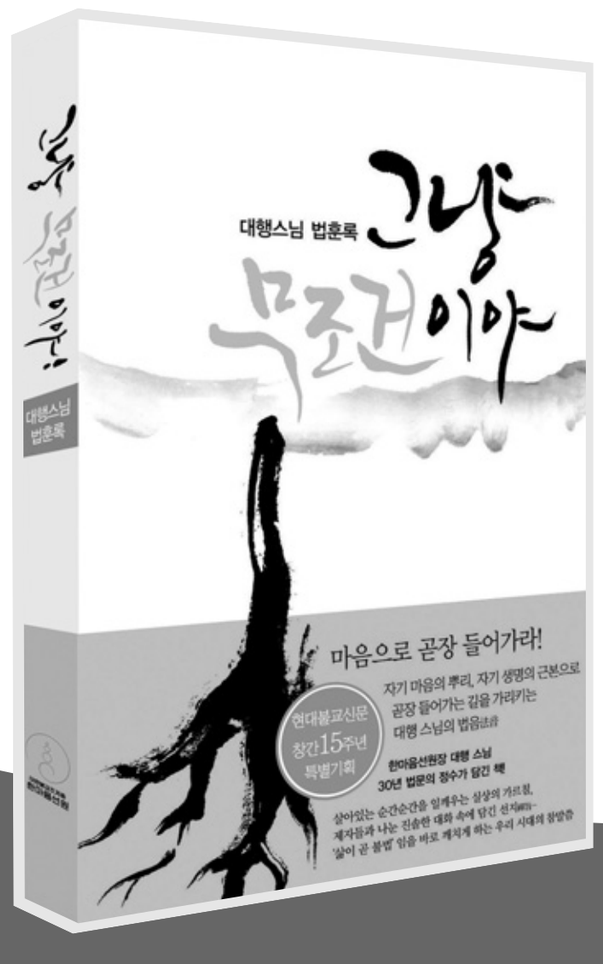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정년퇴임하고 지금은 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이 위축돼서 그런지 사소한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화도 자주 내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마음은 없는 거라고 하죠. 마음이 없는 게 마음이죠? 우리가 그 마음이 무엇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까닭은 여러분 몸속에, 육체 안에 생명들이 많으시죠? 생명과 모습과 의식이, 그 많은 의식들이 어디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내 마음이 안으로 모든 것을 믿고 거기에 입력될 때 거기서 다스림을 받게 되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영혼은, 각자 영혼은 악으로 가느냐 선으로 가느냐의 교차로를 증명해 주고 자길 따라 주는 그런 것이 영혼이지마는 에너지를 배출시키고 움죽거리지 않는 자기의 주인공, 그대로 불기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주인공에다 놓으면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밀어 가는 응신이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위대한 것이고 자기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고등 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이죠. 그 인간으로서 우리가 좀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서로에 이렇게 연결돼서 산다는 사실을 아느니만큼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더할 수 없는 보배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보디가드가 될 수 있고 이끌어 주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해결사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신 누가 죽어 주는 사람도 없을 테고 대신 아파 주는 사람도 없을 테죠. 또 밥 먹어 주고 잠을 자 주고 똥을 눠 줄 수도 없겠죠. 그리고 깨달아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홀로 와서 이 길을 걷다가 길로 간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것이 아주 살얼음판 같다, 파도치는 바다와 같다 이런 말을 하죠. 몸은 배로 비유를 하시고요, 또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은 중생으로 비유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공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모든 것을 일임한다면 걱정이 없어요

☞ 29면에서 계속

은 선장으로 비유했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지금 인생길을 노를 젓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이 이름 저 이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저 주해신 하고 바깥으로 찾아봤자야 그거는 오히려 배가 뒤집힐 징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왜냐? '마음으로 모든 걸 집중을 해서 안으로 거기다 놓으면 이 선장하고 콤비가 돼서 그냥 배는 그대로 유유하게 가는데까지 다 갈 수 있다.' 고 말씀하셨죠.

사대 성인들도 다 말씀하시기를 "인생이라면 못났든 잘났든 너 먼저 알아야 하느니라. 너 몸뚱이가 자동차라면 바로 그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가 참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 모습은 참자기가 이끌어 가는, 즉 말하자면 불가에서 시자라고 그러지만 종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종이라기보다 자기의 육신은 자기가 형성시켰고 자기가 바로 진화를 시켰으니까 자기 몸이죠. 자기가 자기 몸을 이 세상에 형성시키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빌려서 이 세상에 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도 그냥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지금 자기가 살면서도 이 정신과 육신이 같이 콤비가 돼서 100%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몰라서 50%만 자기라고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걸려서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걸리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계를 아예 생각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마라, 잠을 자지 마라, 먹지 마라, 입지 마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운전수가 차를 이끌고 다녀요. 기름이 없어도 운전수가 넣어 줄 것이고 찌그러져도 바로 고칠 거고 고장이 나도 고칠 거고….

그렇듯이 나의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그냥 거기다 맡기고 부지런히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요만한 거든지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일거수일투족 그냥 갖은 각색으로 닥쳐와요. 그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일임하고도 걱정이 안되죠. 걱정이 안되고 그냥 밀고 넘어가는 그 마음 태세, 그것이 아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요새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겉으로 욕하고 때리고 그래서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마음으로 휘어잡을 수 있어야만이 나갔다가도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데는 여러분도 그 자손들하고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그 이미지는 다 가설이 된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도 자식도 그렇게 되게끔 관하면, 즉 말하자면 거기다가 일임하고 관하고서 자기는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줘라.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돼요. 이 모두가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신경질이 나면 아무 데나 그냥 막 해 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가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속에서 분이 치밀어도 '너만이 이 분이 치밀지 않게 할 수 있어. 너만이 화목하게 살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떠밀어서 일임하고 가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거짓말인가 한번 해 보세요.

주인공이 나쁜 걸 하려고 하는데…

문) 이게 좀 우문이겠지만 주인공이 자꾸 나쁜 걸 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려 하지 않고 게으름만 부리는데 그런 주인공에게 맡겨 놔도 될까요?

답) 이거 보세요. 그렇다면 주인공이 말이요, 그 사람을 올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더 타격을 주는 거죠. 타격을 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 후에 끌고 가요.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것만 법이 아니고 안되게 하는 것도 법이다 이겁니다. 자기 주인공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다스리지 않고, 즉 말하자면 악으로 나간다든가 잘못된 도둑질로 나간다든가 이런다면 그 주인공은 도둑질하게 내버려 둬요. 열 번이고 다 내버려 둬서 인생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한 중간쯤 가다가 만들어 가지고선 다시 회전을 해서 나와요.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다시 회전을 해서 나오죠.

어떻게 사람이 나쁘게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나쁜 생각도 해 보는 건 앞에 너무 고달픈 일이 생기고 그 살려고 바둥거려도 안 될 때 막생각을 해 보는 수도 있죠. 그러나 막생각이 들걸랑은 '주인공, 내가 이렇게 막생각을 하게 해서 되겠어?'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요, 그렇게 이끌고 가진 않아요. 나는 '꼭 그렇게 맡겨 주고 씌워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것을 누가 대신해 주거나 씌워 주거나 대신 벗겨 주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쪽에 잘된 나무가 서 있는데 이쪽 나무가 저쪽 나무를 보고 부러워서 "아휴, 이 나무는 참 잘됐구나. 나도 너같이 그렇게 잘 자라게 좀 해 줄 수 없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나무가 이쪽 나무를 잘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뿌리가 굵고 성성해야 싹이 굵고 잘되는 법이니까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아무리 한 팔 한 다리가 없든, 한 쪽이 없든 자기가 중대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자부처, 즉 말하자면 '자신(自神)' 입니다, 그래서. 신은 부(父)가 되고 자(子)는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각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건 자가 되고 생각하기 이전의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자기 부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 자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부처는 각자 마음에 있는 거지 어떠한 형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도리를 우리가 이게 말로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이치가 거기에 붙어 돌아갑니다만, 찰나에 돌아가는 이 자체를 우리는 용도에 따라 잡아서 쓰는데 항상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절엘 다녀도 죄를 덮어쓰고, 죄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 씌워 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것을 짊어지고 지금 현생에 나왔기 때문에 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미래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을 뿐이고 지금 현재에도 찰나이기 때문에 붙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여하게 그대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고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면 하는 거고 내가 이것이 죄가 있어서 못한다 하는 생각은 그건 하지 않으셔야 되고, 마음은 체가 없는 것이고 죄도 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과거 아닙니까? 일초 전도 과거죠. 일초 전에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지었다고 생각하면 지은 거고 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지은 건데, 안 지었다고 생각도 말고 지었다고 생각지도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되 내가 하고 가는 길 그대로 여여하게, 일체 만법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여여하게 씀씀이를 쓰고 가는 것이 그대로 불교며 바로 그대로 여러분의 선행입니다. 그럼 악하게 하는 것도 선행이냐?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어폐가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악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하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놔 버린 채 그대로 맡겨 놓고 가신다면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도 그대로 보살의 마음으로서 정립이 되면서 바뀌지면서, 이렇게 진화가 되면서 여러분을 좋게 이끌어서 선행으로 끌고 갑니다. 이건 자동적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목탁이나 치고 밥이나 내려먹고 또 죄나 씌워 주고 죄나 씌워 받고 이러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선 그것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바깥에서 찾던 거를 모두 안에서 구원을 받으세요, 안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을 첫째로 믿고 모든 것을 내가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 움죽거리는 것마저도 그 주인공에서 형성된 거니까 모든 건 주인공에다 일임해서 놓고 믿고 감사하고 마음 편안하게 둬라 이겁니다. 모든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주인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다 놔버린 채
> 자기 주인공에 그대로 맡겨놓고 가신다면
> 아무리 악한 마음이라도 그대로 보살의 마음으로서 정립이 되면서
> 여러분을 좋게, 선행으로 끌고 갑니다.
> 이건 자동적입니다.

지구의 에너지가 고갈된다면…

문)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지금 지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 주는 모든 에너지들마저 다 고갈되어 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은 말 없이 말하는 거 모르시죠? 말 없이 저런 나무들도 말하는 거 모르시죠? 날아다니는 새들도 말 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땅도 살아 있고 땅도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땅도 망이 쳐져 있습니다. 땅속으로 이렇게 망이 쳐져 있다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법망입니다, 그게. 이 인간도 전부 이 세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법망입니다.

바깥에서 그거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도 아무거나 들어와서 받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잘못되는 걸 막아 돌아가는 거죠. 이 세포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거미줄 얽히듯 했으니까요. 이 지구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듯이 땅에도 그렇게 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층 아래는 망으로 돼 있고 또 젖같이 끈적끈적하는 대로 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그 근본입니다. 근본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병원에서 호흡을 못하면은 산소를 쓰고 있죠? 산소를 쓰고 있는 것도 그것도 자기의 산소가 산소로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소가 75%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산소보다도 더 윗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정말 에너지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고통 받을 때는 에너지를 허공에서 끌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나쁘게 쓰려면 이 수소를 얼마나 나쁘게 쓰겠습니까? 지금 수소폭탄 말입니다. 그러나 수소폭탄도 그것도 그것을 잘 돌려서 연구하기에 달린 거죠.

그러니깐 이런 말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깨쳐서 이 마음 도리를 다 알 수만 있다면 그냥 끌어내려서 연구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하게 정말, 우리가 물이 없다 이러면 그냥 바닷물로 갖다 먹게 만들어서 모두 여러분이 다 쓸 수 있고 또 에너지가 없다 하면 달리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같이 똑같은 걸로 잡아 쓸 수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도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since1973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2012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12절 258㎜×265㎜
200부 이상 @1,000원
3,000부 이상 @800원

[6절] 5호 연향이 머무는 곳
[12절] 12호 반야동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불자 세상보기

오래된 골목길 그리고 문학



이강렬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매년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여러 지역의 이런저런 많은 문학행사를 접하게 된다. 그곳에 가면 꼭 잊지 않고 찾는 곳이 오래된 책을 파는 서점가이다. 좁은 골목길과 덕지덕지 손때가 묻은 그 속에서 한동안 잊고 지냈던 색바랜 작가의 책들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잠시 문학과 문화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것은 문화가 정체성을 매개하고 제작하는 으뜸가는 기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책 읽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 때문 만일까. 기실 순수문학 작품은 고사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사회 제 분야의 혁신을 이루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글로벌시대 삶의 방식과 경쟁력도 모두 문화에서 나온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게 인위적으로 흉내 내고 만들어서야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우리의 문화가 사회 각 분야의 저변에 번지게 하려면 전통 속에서 소재를 발견하고,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사고의 틀을 바꾸는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훌륭한 문학작품들이 대체로 자신이 처한 거주에 대한 소재와 풍경을 담고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우리가 문화라는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정서적 함양과 수용을 갖는 것은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가 아닐까.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과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들어,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제작되고 고안된 내면화된 도시의 환경이다.

지형의 역사성은 그 생긴 모양과 기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문화적 정서가 쌓이면서 지리적 감각과 함께 우리들 삶의 문화형태로 드러내놓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울은 급격한 현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옛 모습은 하나둘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늘날의 도시 풍경은 외형적으로 무미건조하고 개성 없는 고만고만한 고층건물로 삭막함 그 자체이다.

문화의 세기인 작금의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옛 멋과 지리적 풍물이 담겨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것은 결코 거창한 전시물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통에 뿌리를 둔 소프트웨어의 질량에서 좌우한다.

지금이라도 그나마 전통적 풍경과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지역이나 건물을 보존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또한 지역마다 옛날부터 이어오던 근대 건축물이나 문화의 원형을 발굴하고 확장시켜 육성하고, 필요에 따라 현대적 시각과 미감에 맞춰 재창조하는 작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 재건축과 도쿄 모리 미술관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 리처드 글룩먼은 한국을 방문해 옛 건물을 무조건 부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다시 만들 수 없는 '시간'을 지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나마도 서울 강북은 그자체로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 배어있는 지역이다.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이 100여점도 남지 않은 서울을 과연 이대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밀어버려야만 옳은 일인가.

한때 인사동은 전통의 모습을 지닌 가옥들과 그곳에 오래된 책을 파는 고서점들이 꽤 여럿 있었다. 고서점이 주는 깊이 있는 풍경 때문에 자주 그곳을 찾았던 추억이 있다. 번성하던 청계천 고서점가도 서울의 문화적 지도를 그려주던 멋진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의 이곳은 어떤가.

사람을 이끄는 것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기꺼이 그 일부가 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역사와 전통이 변덕스러운 유행을 가볍게 뛰어넘는 멋이 담겨 있어야 한다. 방금 공장에서 만들어진 듯 조잡하게 반짝이는 도시와 세월의 이끼가 켜켜이 내려앉은 도시는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의 추억이나 삶의 질 보다는 개발로 인한 성과가 더 중요하고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앞서 있다.

문학의 소재를 깊이 있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은 시간의 무게다. 우리문학의 소재빈곤도 어쩌면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통이 숨 쉬는 환경은 세계를 도약할 수 있는 문학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칼럼

뒷꼭지가 서글픈 아이들을 위해



정관 스님
부산 원오사 주지

공양주 보살님이 햇밤이라며 삶은 알밤을 내어왔다. 까슬까슬한 아랫부분을 톡하고 쪼개어 조심스럽게 과도로 쩝질을 깎았다. 달고 맛있는 밤의 속살이 조금이라도 달아날까 집중에 또 집중했다.

가을은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계절이다. 말 그대로 곡식과 과일이 풍성해 만가지 열매가 우리의 식탁을 가득 채우는 풍요로운 시기다. '천고마비' 즉,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란 말도 가을의 햇과일과 햇곡식이 영양소가 풍부해, 여물을 먹는 말 마저도 살이 찔 정도라고 풀어볼 수 있다.

우리 원오사에는 이 가을을 더 없이 스산하게 맞이하고 있는 5명의 천진불이 있다. 13~14살 중학생들인 이 아이들에게는 가을의 영양가 많은 제철음식으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어머니가 없다. 또, 추석날 시골 고향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데려가 줄 아버지도 없다. 이들은 부모님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가출을 한 가정, 혹은 가정불화로 편부모와 조손가정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설레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올리는 일 따위는 이들에게 마음의 사치일지도 모른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수겸이는 얼마 전 일기장에 "무서운 아버지가 미워 우리를 져버린 어머니가 원망스럽지만 꼭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적었다. 1학년 예림이는 "명절 연휴동안 벡스코에서 열리는 만화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싶지만, 함께 버스를 타줄 부모님이 없어서 포기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아이들이 기대하는 추석 선물은 어쩌면 가족과 행복 그 자체일 지도 모른다.

수겸이와 비슷한 어려운 여건의 사하촌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절에서는 '꿈나무 공부방'을 열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든솔학교'를 졸업한 고학년과 중학생을 위한 공부방이다. 대학생 및 일반인에게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기초실력이 중요한 과목을 매일 지도하고 있다. 차비도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하는 가난한 살림살이에 봉사자들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또래에 비해 학습능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인내심 한계가 폭발해버리기도 했다. 자라온 가정환경으로 삐뚤어져 점점 개구쟁이로 변해가지만, 사실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오후 하교길에 공부방으로 곧장 향하며 성실히 개근하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공부방에서 특별수업을 부지런히 한 탓인지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남은 물론 수업태도는 보다 진지해졌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다 알아버린 눈빛이랄까.

개학 후 첫날이던 수학수업을 마친 밤 9시 무렵, 담당 교사인 최은영 씨(맑은소리 맑은나라 취재기자)가 짧은 차담을 청했다. 최 기자는 내게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달라졌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전에 비해 어른스러워 졌다"고 칭찬했다. 이어 비결을 묻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방학동안 매일 오전 특별수업으로 부족한 과목을 보충했더니, 이제 좀 공부하는 재미를 알아버렸나 봅니다. 다 선생님들 덕분이지요."

사실 방학 기간 중에 공부방을 운영한 이유는 학업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침과 점심 공양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가정에서 보살펴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바깥으로 나돌다가 결국 나쁜 친구의 꾐에 빠져 탈선의 길을 걷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오사 인근의 반송동 일대는 밤이면 우범지역으로 돌변해 다섯 천진불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 할 때까지 한시도 놓아줄 수가 없다.

내 마음으로 낳고 원오사 신도들의 사랑으로 키우는 꿈나무 공부방의 다섯 천진불이 가을의 문턱에 서서 여름 내내 작던 마음이 훌쩍 자랐음을 느낀다. 친구들에게 힘 자랑을 하기 좋아하던 태호는 보살님들을 도와 무거운 제기를 들고 대웅전 계단을 오르내린다. 곱슬머리가 콤플렉스라 늘 놀림받고 우울해하던 진우는 쿨하게 웃어넘기는 마음을 갖게 됐다. 가정폭력으로 주눅들어있던 민호도 해맑은 미소를 되찾았다. 한여름 내리쬐던 뜨거운 뙤약볕에 알알이 영근 알밤처럼 다섯 천진불은 용기와 희망이라는 열매를 키우고 있는 것일까. 어느 덧 차가워진 가을 바람 사이로 흩어지는 아이들의 뒷꼭지가 참 서글프다. 이 가을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비행이 간절하다.

社說

언제까지 말만 할텐가

최근 불교계는 많이도 변했다. 종교편향 등 직접적으로 불교계와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사태, 제주 해군기지, 현대 일가의 사재 출연 등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키웠다.

이 모습에 많은 불자들이 흐뭇하게 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내건 가르침이 이웃의 일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무언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점이다.

불교계는 수많은 성명서를 남발했지만 그 뿐이었다. 제주 강정마을 사태만 해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가톨릭 신부 25명이 강정마을을 찾아 자신의 목소리에 책임을 졌던 것과는 참으로 비교되는 일이다.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건도 그랬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때 보여줬던 적극적인 태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 삭감된 정부 예산이 있는 듯 마는 듯 갖고 있던 문화재에 민족문화의 옷을 입혔고,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까지 진행케 했음을.

올해는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의 해이다. 이로 인해 해인사를 비롯해 불교중앙박물관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대장경이 팔만장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읽고 익히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불교계는 알아야 한다. 한마디 말을 할 때 마다 대중의 관심이 머문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말 끝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대중의 관심은 비웃음으로 바뀌고 만다는 것을. 불자들은 당당하고 싶다.

스타의 후배사랑을 배우자

동국대 연극학부 출신 스타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허투루 넘길 일만은 아닌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베풀어 온 선행의 횟수가 적지 않아서만은 아니다. 그동안 동국대 출신 스타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CF출연료를 기부하고, 학과발전기금 등을 낸 것은 새로울 것 없다. 이번 장학금 전달에 눈길이 가는 것은 그들의 후배를 향한 사랑 가득한 마음이 함께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덕화 강석우 임예진 이경규 이효정 홍학표 이경실 김상중 김유석 최준용 최유라 남성진 홍진경 채정안 이정재 최정원 소유진 류시원 김수로 등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배우들이 매년 1인당 500만원씩 장학금을 내기로 했다. 이 돈은 각자가 직접 오디션을 거쳐 선발한 후배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통해 사랑과 관심도 전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후배를 위해 직접 연기 지도도 하고 취업까지 돕는다니 이만저만한 정성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법은 사자상승돼 왔다. 오늘날에도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현한 것은 스승과 제자가 있어 면면이 그 가르침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제행무상이라. 세상 모든 것이 변하듯 기부도 트렌드가 있다. 이제는 숨어서 남을 돕는 시대가 아니다.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도와야 하는 세상인 것이다. 시쳇말로 물에서 사람을 건지면 보따리까지도 챙겨주고, 옷까지 말려줘야 하는 세상이다. 동국대 동문스타들이 보여준 현대식 자비를 동국대 불교대학를 비롯한 불교계 곳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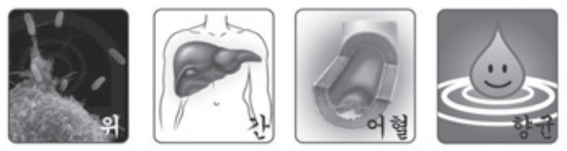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 과 『신약』 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嗽(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紅癚(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제조업체등록, 공정거래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에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셔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서래를 찾으서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급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드셔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준다는 마음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있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신것을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이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와 같은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잔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잔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가네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